



5

1988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8. 5호

(루계 487)



◆◆◆◆◆◆◆◆ 차 례 ◆◆◆◆◆◆◆◆

전투적인 창작으로 대건설행군에 적극 이바지하자	4
동강의 봄우뢰소리	6
대 답	7
만가지 소원 (외 2 편)	7
《바위종다리》	8
그대여 잊지 말라	8
향도의 자욱을 따라 (제 2 회)	9
승업한 정적속에 (외 1 편)	12
조국의 말과 글이며	12
사랑의 무지개 비낀 발머리에서	13
조국의 눈송이	15
《야전식당》	16
송원땅의 새 노래	17
그들의 문제	18
아, 백두산	28
200 일 낮 ! 200 일 밤 !	28
혁명의 전위-3 대혁명소조원들의 성격창조를 위하여	29
영원한 흐름	33
곡식의 뿌리는 땅만이 자래우듯... ..	33
소조원의 붉은 수첩	34

영웅이 돌아온 밤.....	35
사는 보람	36
이 사람들을 사랑하라.....	45
땅이여, 너를 위하여!.....	46
명제해설	48
향토애, 조국애 주제의 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는것은 우리 문학앞에 나선	
중요한 문제	49
이어지고있었네	52
분수비에 젖어 사랑에 젖어	52
우리는 살아서 왜 여기 남았는가.....	53
작가의 문체	54
심장과 하는 말 (외 1 편).....	57
물과 모래와 돌이면... ..	57
합수목에서	58
생명선을 일떠세우는 건설자들속에서.....	66
눈덮인 겨울밤에	67
인생에 대한 생각.....	68
병사의 꽃	69
피흘린 땅에 자유는 오리	70
동향친구	72
시대의 서정이 비낀 생명수.....	79

전투적인 창작으로 대건설행군에 적극 이바지하자

당중앙위원회 편지와 구호는 지금 우리 작가들을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기 위한 왕성한 창작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해주고 있다.

온 나라 인민들과 함께 200 일전투에 펼쳐나선 우리 작가들은 전당과 전체 인민들을 끊임없는 혁신으로 불러일으키는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혁명하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왕성한 창작활동을 벌리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올해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다시한번 일대 고조를 일으킴으로써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나라로 높이 솟아오른 우리 공화국의 위력을 온 누리에 떨치고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여야 하겠습니다.》

앞날에 대한 굳은 확신과 확고한 신심, 만만한 투지는 혁명하는 작가들이 지니게 되는 중요한 사상정신적 특질이다. 혁명을 끝까지 하려는 공산주의자의 결심과 각오는 혁명승리에 대한 굳은 확신에 기초하고있으며 신심이 확고하고 투지에 넘쳐있는 작가들에게는 점령 못할 창작이란 있을수 없다.

오늘 우리 당은 조국의 번영과 후손만대의 영원한 행복을 위한 휘황한 설계도를 펼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조직령도해나가고있다.

올해에 우리가 벌리는 대건설행군은 더욱 통성번영하게 될 우리 조국의 휘황한 앞날,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와 직접 잇닿아있는 성스러운 진군이다.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당중앙위원회 편지와 공화국창건 40돐에 즈음한 당중앙위원회 구호를 받아안은 우리 작가들앞에는 당의 주체적인 문예사상과 문예방침을 철저히 구현하여 혁명적이며 당적인 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200 일전투의 승리에 이바지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무엇보다먼저 우리 작가들은 대건설행군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형상화하는 작품창작에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작가들은 혈전만리 눈보라만리를 뚫고헤치며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청춘도, 목숨도 다 바친 항일혁명선렬들과 애국선렬들의 숭고한 모습을 형상하는데서 새로운 경지를 열어놓아야 한다.

또한 우리 문학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건국로선을 받들고 싸운 애국자들과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에서 피흘려싸운 영웅전사들을 그리는데서도 새로운 형상세계를 창조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문학은 전후 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지상락원을 일떠세운 영웅적 인민들을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공화국이 걸어온 40년의 력사야말로 흉악한 원수들과의 판가리싸움에서 민족의 존엄을 지켜낸 투쟁의 력사이며 가장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창조와 혁신의 력사이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대중의 단결의 힘에 의하여 승리하여온 자랑찬 승리의 력사라는것을 빛나게 형상화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공화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따라 승리의 한길을 걸어온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가 뚜렷이 바라보이는 령마루에 올라서게 된 전변의 력사를 통하여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한 불멸의 화폭을 빛나게 창조하여야 한다.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여야 할 우리 작가들앞에는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 모든 작가들은 휘황한 앞날에 대한 굳은 확신과 투지에 넘쳐 당의 호소따라 200 일전투를 힘있게 벌리며 대건설행군에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을 왕성하게 창작하여야 한다.

승리의 신심과 드높은 창작열의는 자기 당과 수령의 위대성, 자기 당정책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부터 생겨나게 된다. 때문에 대건설행군에 적극 이바지하는 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 당과 수령이 내세우는 로선과 정책이 가장 정당하며 당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철석같은 신조를 가지고 일하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밝혀내야 한다.

오늘 대건설행군의 진두에는 우리 혁명의 앞길을 개척하시고 빛나는 승리로 이끌어나가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서계시며 우리 당중앙이 혁명의 키를 억세게 틀어잡고있다. 지난날 우리 인민이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아무런 우여곡절이 없이 끝바른 승리의 한길을 걸어올수 있는것은 전적으로 정확한 로선과 정책으로 혁명의 진로를 밝히고 줄기차게 이끌어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이 과정에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길로 나아갈 때 언제나 백전백승한다는 고귀한 진리를 심장으로 체득하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 이것은 우리 인민의 락관과 투지의 근본원천으로 되고있다. 이 신념을 깊이 간직하고있는 우리 인민은 위대한 통일단결의 위력으로 대건설전투에서 그 어떤 기적도 창조할수 있다.

우리 작가들은 바로 이 대건설전투에서 위훈과 기적을 창조하고있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고상한 정신세계와 투쟁성과를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200 일전투에서 주공전선은 기본건설이다. 전력, 채취, 금속, 화학 등 중요대상건설분야에서 혁신을 일으켜야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의 위력을 강화하고 10 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반적인 건설사업을 줄기차게 밀고나갈수 있다. 때문에 이 부문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일하고있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줄수 있는 위력한 형상을 창조하여야 한다.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과 사리원카리비로련합기업소 건설, 광복거리 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 건설에 참가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고무할수 있는 전투적인 문학작품들을 창작하는것은 200 일전투기간 우리 작가들이 수행하여야 할 전투과업이다.

우리 문학은 200 일전투가 벌어지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투쟁을 형상한 작품의 왕성한 창작으로 그들을 적극 고무추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과학자, 기술자들의 투쟁과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반영한 작품의 창작으로 온 사회의 인테리화, 온 나라의 예술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 위훈이 나래치는곳엔 반드시 당의 의도를 심장으로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충성의 열정을 불태우는 시대적 전형의 생동한 개성이 있기마련이다.

우리 문학은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새형의 인간들을 비판복적인 개성으로 내세움으로

써 만사람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고 그 모범을 따르게 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가 수없이 창조되는 일대 양양기에 창작생활을 한다는 끝없는 영예와 긍지를 간직하고 시대와 함께 전진하는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창조하기 위하여 현실보다 앞서나가면서 영웅적인 건설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킬 형상을 더 많이 창조하여야 한다.

당과 수령이 주는 과업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으로 어김없이 수행하는것을 가장 큰 영예와 행복으로 여기는 우리 시대의 참다운 전형들이 대건설행군이 진행되는 일터마다에서 수없이 자라고 있다.

대기념비적 중요대상 건설장들에서 발휘되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이러한 시대정신, 시대의 지향을 높은 사상예술적 수준에서 형상해내는 여기에 우리 작가들의 숭고한 사명이 있고 끝없는 영예가 있는것이다.

오늘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와 인민들의 지향에 맞는 혁명적인 작품을 많이 창작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작가들의 책임성과 역할에 달려있다.

작가들이 생활에 대하여 열렬히 공감하고 깊은 사색을 거쳐 탐구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하여 긴장하고 완강한 창조적 노력을 기울여야 사람들을 격동시키는 작품을 창작해낼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작가들은 그 어느때보다도 긴장되고 전투적인 생활기풍과 혁명적인 창작기풍을 확립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시대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혁명적 열정이 타번지는 생활의 격류속에 뛰어들어 시대의 참신한 전형을 찾아내야 한다. 문학작품창작에서 우리 당이 무엇을 의도하고 바라고있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알고 생동한 현실속에서 종자를 골라잡은 다음 속도전을 벌려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작품을 만들어내야 한다. 우리는 혁명적인 창작기풍을 철저히 세움으로써 그 어떤 불건전한 사상요소도 작품에서 나타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모든 작가들을 공화국창건 40 돌을 빛내이기 위한 200 일전투에 적극 참가하여 들끓는 현실생활을 예술적으로 훌륭하게 창조함으로써 시대앞에 지닌 영예로운 임무를 다하여야 한다.

동강의 봄우리소리

장문필

그날
태고연한 동강의 수립은
류다른 봄빛에 싸이고
파릇이 돌아오른 봄순들마저
위대한 력사의 목소리에 심취되어있었다

천리수해가 숨을 죽이고
귀를 강군 그날
절세의 애국자 **김일성** 장군님께서
조국광복회 10 대강령을 발표하시었다

간고한 행군길에서
한자한자 적으신
광복의 대강을
불멸의 력사우에 뜨거이 펼치실 때

장군님 모신 회의장은
후더운 숨결로 부풀었다
날마다 지새우신 밀림의 밤에
그이 불태우신 크나큰 심혈이
꺼질줄 모르던 화토불처럼
가슴가슴에 뜨거이 남아

아, 봄이 없는 강산에 봄을 주시려
지동치는 밀림의 눈보라를
한결 외투깃으로 막으시며
10 대강령 구절마다
인민의 념원 새기신 위대한 장군님 !

엄동설한 다 녹이시며
사랑의 대강 꽃피우신 그 품에

광복의 봄인들 꽃피지 않으랴
인민정권 기발아래
땅의 주인 공장의 주인 된
인민의 행복 백화로 만발하고
면비교육 드넓은 대문으로
귀여운 어린것들 활개치며 들어서리라
평등의 권리 안고 일터로 가는
녀인들의 웃음소리 강산에 넘치리라

심혈로 꽃피운 사랑의 구절구절
광복의 봄빛으로 받아안으며
누군가 어깨를 들먹이였다
북받치는 격정에...
장군님 연설을 마치셨을 때
장내엔 터졌다 폭풍같은 환호성이

아, 백두의 만년설이
일시에 다 녹아내리는가
오랜 세월 숨죽였던
백두의 분화구가 불물을 뿜는가
격동의 물동을 터치고 터치며
하늘땅을 뒤울린 밀림의 환호성 !

오, 그 환호성은
장군님따라 펼쳐나선
온 겨레의 우렁찬 발구름소리였다
장군님 사랑에 목메여 터친
심장의 화산
동강의 장쾌한 봄우리소리였다 !

대 답

차승수

날씨도 궂은 날
하루도 이른아침
그이께선 오셨더라
오매에도 그리던 어버이수령님

이제 겨우 첫삽을 박은 손이라도
남먼저 잡아보고싶으시여
이제 겨우 첫 기둥 세운 어깨라도
남먼저 어루만져주고싶으시여

가까이 가까이 다가서신 자리에서도
그 마음 모자라
현장마이크를 손수 드시고
내 말이 들리는가
뒤에서도 들리는가
뜨겁게 부르실 때

목이 메여
목이 메여
차마 소리높이
대답을 드릴수 없었던 그 걱정

동무들을 믿고
방대한 건설을 시작했다고
세상 모든 믿음을 안겨주실 때
가슴에 용암처럼 끓고있던 그 충성
드디어 활화산의 열정으로 분출했나니

나는 지금 읽노라
하늘을 떠밀며 솟아오른
저 화력발전소 굴뚝의 뭉게치는 연기에서
불바다를 펼치며 잠들줄 모르는
건설장의 밤에서
그날에 그대들이 못다올린
마음속 대답을

나는 지금 듣노라
그날에 그대들이 못다올린
심장의 대답을
우리 인민생활의 생명선의
피줄같이 뻗어간 배관들로
그대들의 뜨거운 맥박이 이어진
거세인 증기소리 압축기소리
조국의 거창한 숨결이 태동하는 소리에서...

만가지 소원 외 2 편

백하

백두산에 오르면
소원도 많아라

만병초 꽃떨기 끌어안고
향기론 송이송이에 불을 부비며
나는 소원하노라
친애하는 그이 기쁨속에 바라보신
아름다운 백두의 꽃이 되어
내 조국의 하늘우에 피고싶노라

산정을 붉은 빛으로 휩싸는
백두산의 해돋이
그 타는 노을에 온몸 잠그고
내 소원하노라
친애하는 그이 그리도 사랑하시는
백두의 붉은 노을이 되어
혁명의 성산우에 영원히
활활 불타고싶노라

비루봉에 치달아올라

고함치는 바람에 옷자락 펄럭이며
장군봉을 바라보노라
광풍속에 영원한 호위병같이
장군봉을 지켜선 비루봉
내 백두의 비루봉이 되어
친애하는 그이결에
영원히 지켜서고싶노라

삼시에 하늘은 캄캄해지고
퇴성벽력 터치며
발밑으로 달리는 불줄기
연지봉아래 내리꽃히는 불번개
오, 내 저 백두의 불번개되어
친애하는 그이 명령하신곳으로
천만산악 부시며 내닫고싶노라

순간도 쉽없이
천변만화하는 백두산이여
하늘을 찌르고 누리를 굽어보는 백두산이여
친애하는 그이께 운명을 맡긴 이 몸

너의 벼랑을 광광 두드리며
내 말하노니

오, 백두산아! 백두산아!
나의 이 만가지 소원을 이룩해달라

《바위종다리》

세상에 이처럼 맑은 노래도 있을까?
세상에 이처럼 아름다운 노래도 있을까?
비루봉 흰 바위끝에 앉아
온종일 우는 《바위종다리》

내 천지기슥에 서서
황홀토록 취해 듣노니
옥같은 창공을 울려 그리 맑은가
거울같은 천지에 구울려 청고운가

현란한 꼬리도 없다
붉고 푸른 날개도 없다
허지만 이토록 심금을 울리는
아름다운 그 노래소리

북평, 붉은양진이, 동고비
천지호반에 깃든 못새들
눈보라 광풍에 놀라 떠나갈 때도
단 하나 백두산정에 남아

깃을 가다듬는 새
푸른 이끼 물어다
바위우에 보금자리 정하고
사철 폭풍속에 노래하는
백두산의 정착새야

물어보자
《바위종다리》
백두산의 《바위종다리》
온종일 목청을 돋구는 네 노래
사철 그칠줄 모르는 네 노래
그 뜻은 무엇이나?

오, 《바위종다리》 노래하네
백두산의 《바위종다리》 노래하네
세월의 계절에 철새가 되지 말고
혁명의 산에 영원한 정착새가 되라고!

그대여 잊지 말라

그대여 잊지 말라
서해의 논벌에 서있건
동해의 어느 산굽이에 서있건
그대 백두산의 지맥을 밟고있음을

그대여 잊지 말라
쇠밥 이는 기대앞에 서있건
새 거리의 창가에 앉아있건
그대 천지의 맑은 정기를 마시고있음을

백두산의 해돋이는 세기를 밝히고
백두산의 숨결은 시대가 호홉하나니
백두의 용암대지 뻗고뻗어

그대의 발밑에 닿아있거니
아득히 걸어온
자욱자욱 묻은
천리 구름바다를 내려다보며
내 백두산마루에 서서 말하노라

부디 잊지 말라 그대여
순간순간을 깨우치며 살라
그대 이 땅 어디에 섰건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밟고 서있다!

향도의 자욱을 따라 (제2회)

첫 혁명소설이 창작되기까지

1960년대중엽에 들어서면서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 새로운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고있었다.

혁명과 건설이 더욱 심화되고 문학예술에 대한 인민들의 미학적요구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혁명적인 내용과 형식의 문학작품창작사업은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특히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 이후 반당반혁명분자들이 당사상사업분야에 끼친 부르조아사상, 수정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등 온갖 잡사상여독을 청산하고 전당에 유일사상체제를 세우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진행되고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문학부문앞에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 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힘있게 이바지하는 혁명적인 소설문학창작을 더는 미룰수 없는 절박한 과제로 제기하고있었다.

그러나 당시까지만 하여도 작가들은 물론 창작지도일군들도 정치사상적 준비와 창작실무수준이 낮은데로부터 문학작품창작에서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세울데 대한 시대와 혁명의 이 절박한 요구를 창작실천에서 옹계 해결하지 못하고있었다.

이 문제는 문학예술의 영재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시대와 인민대중의 혁명소설에 대한 지향과 요구를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어 새로운 형식의 총서작품 《불멸의 력사》 창작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심으로써 빛나게 해결되었다.

1967년 6월 20일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날 문학부문사업을 맡아보는 한 일군에게 작가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세우는 사업을 혁명적 문학작품창작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할데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무엇보다먼저 수령님의 혁명력사와 혁명적가정을 주제로 한 소설창작을 위한 창작조를 따로 내올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확고한 결심과 열정이 어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에 그 일군은 격동되는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소설문학에 전면적으로 보다 빛나게 모시는것은 혁명의 영재이시며 전설적 영웅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생동한 형상으로 보고싶어하는 우리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으로 보나 우리의 사회주의사실주의문학발전의 요구로 보나 매우 절실한 문제였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이 시작된지 한세기가 지나고 사회주의사실주의문학이 발생발전하여 오랜 세월이 흐른 이날에 이르러서도 로동계급의 수령의 형상문제는 사상리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원만한 해명을 보지 못하고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 문제를 빛나게 해결할 결심을 안으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을 우리의 주체적인 혁명문학건설의 첫째가는 과업으로 내세우시였으며 학생시절부터 깊은 탐구와 사색을 거쳐오시였다.

그리고 이미 여러차례의 강령적인 말씀들에서 창작실천상의 과제로 제시하신 그이께서는 이날에 이르러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와 혁명적가정을 주제로 한 소설창작사업을 보다 힘있게 밀고나갈 혁명적 조치를 취해주시였던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 일군의 흥분된 모습을 바라보시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백하다고 말씀하시고나서 확신에 넘친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수령님께서 걸어오신 혁명투쟁의 전로정을 포괄하는 혁명소설들을 창작하는것입니다.

다시말하여 수령님께서 만경대고향집을 떠나 신태로부터 백두산을 넘나드시며 전개한 혁명활동전부를 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주체적인 소설문학, 혁명문학의 대상과 창작방향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그리하여 우리의 주체적인 혁명문학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서서 영예로운 첫걸음을 떼게 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그로부터 얼마후인 1988년 1월 중순 어느날 작가들의 창작실태를 료해하시고 그들이 앞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

를 전면적으로 형상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으며 창작조건을 비롯한 모든 문제들을 세심히 보살펴주시었다.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을 지니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소설문학에서 로동계급의 수령형상문제는 튼튼한 사상리론실천적인 토대우에서 신심드높이 창작의 초행길을 개척해나가게 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후에도 4. 15 문학창작단 작가들의 혁명소설창작사업을 세심히 지도하여주시었다.

작가들이 소설창작을 다그치고있던 1971년 8월 23일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4.15 문학창작단 작가들의 창작에서의 고충을 깊이 헤아리시고 인류력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간고하고도 방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어떻게 소설문학에 옮기겠는가 하는 문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결린 문제를 풀어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선 소설의 제목을 다는 문제를 창작방향과 관련되는 매우 심중한 문제로 보시고 명철한 해명을 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몇권의 장편소설로 형상한다는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수령님의 혁명력사의 위대성으로 보나 그 방대한 내용으로 보아 총서형식으로 하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말씀하시었다.

창작가들은 오래동안 모대기면서도 풀지 못한 매듭이 단번에 풀리는듯싶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하나의 총서형식으로 하면 매 장편소설들이 각기 자기의 독자적인 의의를 가지면서도 통일성을 보장할수 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잠시 사색을 모으시다가 열정에 넘쳐 말씀을 이으시었다.

총서제목으로는 《불멸의 력사》로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편소설 《1932년》뿐 아니라 수령님을 형상한 다른 모든 장편소설들을 모두 총서 《불멸의 력사》체계에 포괄시킬수 있을것입니다.

얼마나 명철하고도 비범한 재능과 예술적 예지가 빛나는 가르치심인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후 장편소설의 제목도 총서 《불멸의 력사》로 하고 매 작품마다 독립적인 소설제목을 달아서 1, 2, 3 권으로 할데 대하여 다시금 가르침을 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침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를 대서사시적인 화폭으로 전면적으로 형상할수 있는 새로운 소설형식이 개척되었으며 우리 문학은 주체의 혁명문학으로 발전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길이 활짝 열리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후에도 작품창작을 작가들에게만 맡겨두지 않으시고 료독단체에서부터 그 내용과 구성, 대사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가르침을 주시여 완성하도록 이끌어주시었다.

1971년 8월 31일, 자정도 훨씬 지나 새날이 시작되던 때였다.

작가들은 창작실로 급히 달려온 당중앙위원회의 한 일군에게서 뜻밖의 놀라운 소식을 전달받게 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조국의 복단 량강도 삼지연 일대에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분명한 속에서도 장편소설 《1932년》의 수천매에 달하는 방대한 량의 원고를 누구보다도 먼저 읽으시고 깊은 밤 몸소 장거리전화를 거시여 가르치심을 주시었다는것이였다.

그이께서 전화로 하신 말씀은 감격과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작가들의 가슴을 더욱 세차게 울려주었다.

그이께서는 소설을 잘 썼다고 하시면서 사상적대가 서고 형상수준이 높으며 감동도 있다고, 소사하집 장면 같은것은 눈물이 난다고 말씀하시었다.

이 소설을 읽으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피어린 투쟁을 전개한 항일무장투쟁이 그 첫걸음을 어떻게 내디디었으며 간고한 무장투쟁과정에서 제기되는 겹쌓인 시련들을 어떻게 이겨내시였는가를 알수 있다고 하시며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었다.

앞으로 거목으로 자라게 될 항일무장투쟁이 어떻게 첫 년류를 감아올렸는가 하는 작품의 창작적의도가 선명하게 안겨옵니다.

그이의 치하의 말씀은 작가들에게 크나큰 기쁨과 창작적 신심을 안겨주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 작품을 출판하기전에 좀 고쳐야 할 점들이 있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모실데 대한 문제, 대사를 더 진실하고 깊이있게 형상적으로 다듬을데 대한 문제를 실례를 들어가며 세심히 가르쳐주시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위대한 수령님 탄생 60돐이 되는 1972년 4월 15일 장편소설 《1932년》을 총서 《불멸의 력사》중에서 처음으로 완성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삼가 올릴 수 있게 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후 1974년 2월 16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장편소설 《1932년》을 룡음으로 들으시고 아주 잘 썼다고 높이 평가하신 데 대하여 알려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이 창작집단이 당의 방침을 무조건 관철하는 충성의 대오답게 소문없이 일을 많이 하고있다고 높이 치하하시면서 창작성원들이 수령님의 높은 신임과 크나큰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리라라는것을 굳게 믿는다고 뜨거운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사랑이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믿음이면 이보다 더 큰 믿음이 또 어데 있겠는가.

그 사랑과 믿음은 그대로 작가들의 창작적 열정이 되고 충성의 불길이 되어 타올랐다.

총서 《불멸의 력사》의 장편소설 《1932년》의 탄생으로 소설문학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문학화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으로 교양하는 력사적위업의 첫걸음을 뗀 작가들은 혁명소설창작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나갔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장편소설 《혁명의 려명》의 창작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었다.

초기 《태양이 솟는다》라는 제목으로 창작되고있던 이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가운데서 초기혁명활동시기부터 항일유격대창건 전시기까지를 포괄하고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 소설의 원고를 위대한 수령님께 올리도록 하여주시고 수령님의 가르치심이 계시었을 때에는 교시를 전달하여주시면서 너무 전기같은 감을 주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깨우쳐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 소설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게 된 출발점과 그 시원에 대한 형상을 중심으로 그리도록 작품의 대를 튼튼히 세워주시었다.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은 작가들은 《태양이 솟는다》라는 소설의 제목을 그 내용에 맞게 《혁명의 려명》으로 고칠수 있었다.

그리하여 작품의 종자를 바로잡지 못하여 형상적 대를 튼튼히 세울수 없어 오래동안 고심어린 탐

구의 길을 걸어온 이 작품은 마침내 완성되게 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1973년 5월 25일 장편소설 《혁명의 려명》을 보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장편소설 <혁명의 려명>은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반영한 작품들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작품의 하나입니다. …

이 시기의 력사적사실을 소설에 담는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작가들이 장한 일을 하였습니다. 소설을 읽어보니 작가들이 심오한 사색과 탐구, 피라는 노력을 기울였다는것이 알립니다.》

작품의 초고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세심한 지도와 가르침을 받고서야 이 작품을 완성할수 있었던 작가는 그이의 높은 치하의 말씀에 기쁨과 함께 송구함을 금할수 없었다.

그이의 예지로 빛나는 지도가 아니었던들 이처럼 작품을 완성할수 있었겠는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정력적인 지도와 사랑속에 그후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백두산 기슭》, 《준엄한 전구》를 비롯한 수많은 총서작품들이 창작완성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백두산 기슭》과 《준엄한 전구》를 읽으시고 1982년 1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지도하시면서 이 소설들이 거둔 성과에 대하여 높이 치하하시고 《혁명적인 소설책들은 금보다 훨씬 값있습니다.》라고 높은 평가를 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정력적인 지도와 세심한 보살핌속에 작가들은 그후 위대한 수령님의 항일혁명투쟁시기를 포괄하는 총서 《불멸의 력사》의 장편소설을 15편 가까이 창작완성하였으며 수령님의 혁명적 가정을 형상하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옮긴 소설들 그리고 해방후의 력사적 사건과 사실들을 소재로 한 장편소설들을 계속 창작해내고있다.

문학예술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와 시대와 인민의 지향을 한몸에 체현하시고 실천에 빛나게 구현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의 혁명문학은 앞으로 보다 높은 발전의 길을 걸을수 있게 되었다.

승업한 정적속에 외 1 편

최호진

백두밀영 고향집 트락엔
밀립의 설레이
해맑은 추녀아랜
정다운 새들의 우짓음뿐

백두의 정적속에
승업히 솟아있건만
우리의 마음속엔
고요하지 않구나

혁명의 숨결을
가슴가득 안고서서
영원한 조선의 래일로 이어진
장엄한 진군의 발걸음소리에
높이 뛰는 심장의 박동소리여

나는 듣노라
주체의 위업을 받들어
래일로 이어진 향도의 자욱따라 내닫는

조국의 거창한 진군소리를

광명한 미래의 노을속으로
걸어보는 마음이어
태어나고 태어나는 악기들의 재롱섞인 웃음소리
쏟아지는 쇠물이 폭포치는 소리
생활의 정다운 향취를
한가득 안고서 높이 솟아있는 집

대지위에 설레이는 오탁의 바다
숲처럼 일떠서는 강철의 은빛 지붕들
새시대를 떠받들고 빛발치는 대기념비들
조국의 영원한 세월을 이어준 집

오, 고요 아닌
백두산의 폭풍안고 솟아있는 집
무궁할 조국의 새삶의 복된 음향들이
여기서 끝없이 태어나는것이구나

조국의 말과 글이며

-백두밀영 대원실 낮은 책상위에 투사들의 학습장이 놓여있다-

초가막 광솔불아래서
내 마디마디 익혀온 말
나리잃은탓에
할수도 쓸수도 없었던 모국어
내 조국의 귀중한 말과 글을
그분들은 여기에서 꽃피웠구나

제 나라 말을 하고 글을 썼다고
왜놈의 칼에 등뼈 꺾이던 그 세월
빛을 잃은 조국의 말과 글을
민족의 피와 살로
애국의 불덩이로 안고 싸운 투사들

혈전의 천만고비 막아서도
격전의 총포탄 우박쳐도
잃지 않았구나
배낭뒤에 솟눈우에...
《가, 가, 거, 겨 ...》
한자두자
심장의 더운 피로 쓰며

아, 한자의 글
한마디의 말

조국의 운명과 함께 있어
빼앗길수 없었던 민족의 녀이
여기서 힘있게 울리였구나
우리의 말이여 조국의 글이여

내 진정 무심히
익히고 배워온것이 죄스럽구나
투사들 피로써 지켜왔고
목숨으로 빛내여온
승고한 삶의 노래

너는
그 어떤 총칼로써도 앗아못간
조국의 녀
자주의 녀

억눌린 그 세월
우리 수령님 찾아주시고
한평생 꽃피가시는
아, 내 조국
잃어서는 안될
이 세상 단 하나인 조선이었구나 !

사랑의 무지개 비긴 발머리에서

리수덕

위대한 수령님의 농촌테제를 높이 받들고 이미 완성한 수리화의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해 분수식 발판개공사에 펼쳐나선 농장원들과 지원자들의 힘찬 투쟁모습을 취재하러 우리는 얼마전 남포시 와우도구역 대대협동농장을 찾아 길을 떠났다.

이미 20 여년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여 분수식 관수체계를 받아들이는 데서 온 나라에 소문을 냈던 이 농장은 시내에서 서북쪽으로 약 15 리 떨어진곳에 자리잡고있었다.

마침 이 농장에 보내는 구역안의 로동계급의 뜨거운 마음이 담긴 비닐관, 이음토시, 뿌무개, 볼트 나트 등 분수식 발판수에 쓸 지원물자를 가득 실은 화물자동차에 오른 우리는 이미 적재함우에 올라있는 몇몇 사람들과 자리를 같이했다.

우리가 자동차에 오를 때 친절히 손을 잡아주며 제가 앉았던 자리까지 내주던 나이 지숙한 사람이 바로 시농촌경리위원회의 한 책임일군이었고 같이 탄 애젊은 로동자들은 구역안의 한 공장의 기능공들이었다. 농장일을 도우러 가는 사람들이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정말 때를 맞춰 왔습니다. 오늘 그 농장에서는 올해 봄까지 예견했던 분수식 발판개건설 마지막구간에 판을 설치하구 수압시험을 하지요.》

무뎡쫄게 건네는 시농촌경리위원회 일군의 말이었다. 우리의 마음은 흥떴다. 자동차가 목적지를 가까이할수록 우리의 가슴은 류다른 흥분에 젖어들었다.

위대한 농촌테제의 찬연한 빛발아래 이미 완성된 수리화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는 보람찬 투쟁의 길에서 나날이 새 모습을 펼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

이제 오래지 않아 50 만정보의 밭에 분수식 관수체계가 완성되어 수수천만년을 두고 하늘에서 땅으로만 내리던 비가 이제 땅에서 하늘을 향해 사랑의 《약비》로 솟구쳐올라 풍요한 대지우에 알곡을 더 불쿠어줄것이니 그것만으로 해서도 우리의 생활은 얼마나 더 윤택해질것인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있는사이에 자동차는 어느덧 대대협동농장의 한 포전머리에 이르렀다.

《여기가 남새 1 작업반 포전입니다. 처음 오시는 것 같은데 이 농장의 분수식 관수체계에 깃든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어야 할겁니다.》

문득 차를 멈춰세우고 이렇게 말꼭지를 댔 그 일군은 먼저 자리를 털고 일어나더니 적재함에서 성큼 뛰어내렸다. 우리도 따라내렸다.

취재길에서 붙임성있는 사람을 만나는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닌데 이렇게 사람좋은 안내자를 만나고 보니 우리 마음은 여간만 기쁘지 않았다.

봄별을 받아 해면처럼 부풀어오른 남새밭 포전길을 앞서 걷던 그 일군은 우리가 가까이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 허두를 뱉다.

《지금으로부터 스물두해전이니까 1966 년 봄이었지요. 이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남새밭에 분수식 관수시설을 훌륭하게 갖춘 이곳 대대협동농장(당시는 고령협동농장)의 성과와 경험을 전국에 일반화하시기 위해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몸소 이곳 농장을 찾으셨지요.》

오בות한 농장마을을 곁에 두고 규모있게 펼쳐진 남새포전의 여기저기에 깃든 불멸의 자욱을 마음속에 새겨주며 그 일군은 뜻깊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었다.

…그날은 유난스레 맑은 날씨였다.

마치 줄지어선 살수기들이 환희로운 무용의 절정을 펼친듯 쉬임없이 돌아가고 뿌무개에서 피여나는 물안개가 4 월의 따사로운 햇빛을 받아 오색령롱한 무지개를 남새밭 여기저기에 펼치고있었다. 두손을 포개시여 가슴우에 가법게 얹으신채 이 절경을 미소어린 안광으로 점도록 바라보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대로 분수식관수체계를 하니 남새밭이 그대로 한쪽의 그림같다고 말씀하시였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한자리에 모신 기쁨과 영광을 안고 료무를 펼친듯 물동적으로 빙글빙글 돌아가는 뿌무개며 푸르싱싱한 남새포전들과 조화를 이룬 아롱다롱한 무지개들은 농촌수리화의 새 모습을 보여주는 생동한 화폭이었다.

언제나 인민을 위하시는 한길에서 기쁨을 찾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바람결에 풍겨오는 물보라에 옷자락이 젖으시는것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남새밭머리에 오래도록 서시여 《단비》를 흠뻑 맞는 남새포기들을 생각에 잠기시여 살펴보고나서 남새밭 분수식관수체계가 우리 나라에서 수리화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의 발전이며 발농사에서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도록 발판개를

실시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의 빛나는 실현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

일군이 전하는 이야기를 마음속에 새기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농촌수리화의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키시려 바치신 크나큰 수고와 정력적인 령도의 나날을 더듬어보는 우리의 가슴가슴은 하얗 후더워왔다.

일찌기 1964년 2월에 발표하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농업생산에서의 수리화문제를 농촌기술혁명의 기본과업의 하나로 규정하시고 그것을 완성하는데 언제나 큰 힘을 넣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농촌테제를 실현하는 첫시기에 관개면적을 더욱 늘이고 관개시설의 리용률을 높이도록 하시는 한편 수리화가 완성되어 가는 조건에 맞게 그것을 한계단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밭에 분수식 관수체계를 세울 새로운 구상을 펼쳐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오류지구를 비롯한 평양시의 주변 협동농장들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그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신데 기초하시여 남새밭을 등성이에로 옮기고 분수식 관수를 도입할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구상에 의해 남새밭들에 분수식 관수체계가 도입되게 된것은 남새농사에서 해마다 안전하고도 높은 수확을 내며 전반적인 밭농사에서 분수식 관수체계를 실현하여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비약을 가져오기 위한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은 하나의 혁명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바로 이곳 대대협동농장의 포전머리에서 농촌수리화의 새로운 면모를 그토록 만족스럽게 바라보시며 남새밭 분수식관수체계는 우리 나라에서 수리화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발전이라고 하신 그 말씀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그 모든 업적과 현명한 령도를 깊이 헤아리신 심오한 뜻이 담겨있었다.

하기에 이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아직 치하를 받기엔 하는 일이 시작에 불과했고 평가를 받기엔 해놓은 일이 너무나 적은 이곳 농장원들과 지원자들의 적은 성과도 귀중히 여기시고 이 농장의 경험을 일반화하여 온 나라의 협동농장 남새밭들에 분수식관수체계를 널리 받아들이도록 할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치셨던것이다.

그런데 오늘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남새밭만이 아니라 50만정보의 밭에 분수식 관수를 빛나게 실현할 확고한 전망을 눈앞에 내다보게 되었음을 생각할 때 우리의 가슴은 봄날의 대지인양 한껏 부풀어 올랐다.

우리는 영광의 자욱이 깃든 포전길을 지나 맞은편 강냉이밭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오늘 마지막 콩크리트관을 설치하고 수압시험을 하는 등성이밭이었다.

양수장과 밭머리 그리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큰 길가에 술한 사람들이 운집해있었다.

그중엔 농장원도 지원자도 있었고 마을에서 나온 로인들과 길가던 사람들도 있었으며 나팔과 소고를 든 소년단원들도 있었다.

금시 수압시험을 시작하려는듯싶었다. 이제나 저제나 분수비가 솟구칠 시각을 기다리는 못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양수장쪽으로 달려가는 농장원들, 옷이 젖을세라 마지막 물뿌무개 조립을 끝내고 밭최쪽으로 장달음치는 젊은이들이 한순간 부산을 피우더니 급기야 양수기 돌아가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이윽고 드넓은 밭에 줄지어선 살수기들이 돌아가며 《약비》를 뿌어올리기 시작했다.

삽시에 온 밭이 물안개로 덮였다. 구름 한점없이 말짱하게 개인 하늘에서 엿비치는 해살을 받아 밭에 오색무지개가 비졌다.

못사람들이 환성을 지르고 소년단원들이 나팔을 불며 북을 두드렸다. 장쾌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생각은 자못 깊어갔다.

아직 봄이라고는 해도 경칩을 앞둔 절기여서 저 멀리 국사봉마루와 린회석광산 버럭더미의 음달진 곳엔 흰눈이 그대로 남아있고 하늘조차 아직 봄비를 내리우지 않았는데 영광의 이 땅에선 올해의 강냉이풍년을 기약하며 사랑의 《약비》가 땅속에서 솟구쳐오르고 철아닌 《봄무지개》를 대지위에 수놓는것이 아닌가.

어찌 이 농장의 강냉이밭만이라.

온 나라의 방방곡곡 그 어디나 분수식 관수체계가 실현되어 가까운 앞날에 50만정보의 강냉이밭이 영영 가물을 모르고 년년이 안전하고 높은 수확으로 풍년장혼을 부르게 될것이다.

《과시 희한한 세월이군. 남새밭 분수식 관수체계를 하는데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는데 강냉이밭이란거야 하두 넓은 바닥이어서 언제 끝을 보랴 했더니 내 오늘 분명 저 밭에서 솟구치는 <분수비>를 보게 되는구나!》

분수식 밭관개공사의 수압시험을 한다는 말을 듣고 80을 바라보는 나이에 지팡이도 없이 나와 등성이에 콧곳이 서서 백발을 날리며 누구에게라 없이 하는 마을로인의 말이였다.

결에 있던 우리가 이곳에 찾아온 취지를 말하고 이 고장에 오래 살았는가고 묻자 로인은 수염발속에 회심의 미소를 그리고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여기야 내 태줄이 묻힌곳이지요. 바로 저 분수식이 된 밭 한구석이 해방전엔 내 소작지였구 해방후엔 분여받은 내 땅이었다우. 해방전 이고장에선 수수농사 조농사가 고작이었소. 한창 가물때는 땅이 고드레돌같이 굳어져 호미끝에서 불이 일 지경이었으니 곡식이 제대루 될리 없었다우.

그때 농민들은 저기 옥천대와 국사봉에 올라 <기우제>를 지내며 하늘에 대고 비를 내려달라 빌었소그려. 하지만 어디 하늘이 비를 줍디까. 농사라는 게 겨우 종자나 건지는 형편이었다우.》

로인은 해방후 땅의 주인이 되던 나날의 감회며 협동화의 보람차던 시절에 대한 추억을 더듬고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했다.

《정말 사람도 사람이지만 땅도 복을 받는 세월이지요. 철따라 갖가지 농기계들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곡식을 가꾸어주지. 게다가 이제 땅우에만

이 아니라 땅속에까지 젖줄기처럼 물관이 뻗어 아무때나 <단비>를 주게 되었으니 아무리 마음없는 땅이라 한들 어떻게 무심할수 있겠소? 아마 올해저 강냉이밭엔 땅이 우물어들게 풍년이 들게우다.》

의미심장한 로인의 말이 우리의 가슴속에 안겨주는 충동은 컸다.

수압을 높이는지 더욱 세차게 돌아가는 살수기에서 일어나는 물보라며 빗갈 고운 무지개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앞엔 금시 강냉이 《금》이 펼쳐져 우썹우썹 키를 솟구는 모습이 보이는것 같고 사랑의 《분수비》를 맞아 그루마다에 팔뚝같은 이삭을 두세개씩 들쳐업은 아득한 강냉이 《바다》에 수확기를 몰아가는 농정원들의 기쁨에 젖은 얼굴들이 안겨오는것 같았다.

조국의 눈송이

-삼지연대기념비앞에서-

리충평

망울 터친 진달래
해빛과 마주 웃고있건만
삼지연 못가엔 밤새 내린 눈송이
조국으로 진군해온 투사들을 반겨서인가
그 어깨우에 송이송이 내린 봄 눈송이

털지를 앓았구나
기관총 둘러멘 애젊은 대원도
묵직한 배낭을 걸머진채 책을 읽고있는
중년나이 로대원도...

허리치는 설한풍을 헤치며 몇십만리
막아서는 천봉만악을 넘고넘어 몇천만리
웁기는 자욱마다 기승부러 눈보라 장벽이 되고
홀날려 뻗속깊이 숨배던 차디찬 눈송이

정든 고향을 뒤에 두고
한겨울날 홀잡땀이 입은 몸
살길 찾아 이국땅을 떠나던 그날

송이송이
눈물의 방울처럼 언가슴에 젖어들고
원한의 타향살이 보짐우엔

비운의 찬서리로 덧쌓여지던 눈송이

오, 너는 정녕
빼앗긴 조국 설음났던 가슴엔
수난의 찬바람이 아니었더냐

그 찬바람 가시려
하루도 떨어져선 못살 그립던 강산에
오랜 세월의 눈비를 헤쳐서야 온
항일영웅들의 어깨우에 오늘은
꽃보라처럼 뿌려진 눈송이 봄눈송이

고난도 슬픔도 넘어
혈전을 헤쳐온 희망넋친 가슴들에
오히려 포근히 추억도 불러주는
반가운 눈송이 너 아니냐

그래서 털지 않는구나
떠나온 고향집과 정깊은 산촌
다시 찾은 조국
정다운 그 모습을 속삭여주며
그립던 강산의 행군길우에
꽃보라되어 반기는 그 눈송이기에...

《야전식당》

박창민

령넘어 또 령, 구름넘어 또 구름…
시작은 있었는데 끝은 없으려는가.
첩첩 높이 솟은 충암절벽을 감돌며 《하늘길》
로 자동차는 기세좋게 달렸다.
차창으로 물결쳐오는 밀림의 바다, 볼수록 장쾌하다.

《우리 운전사들은 이 류둔령을 <철령>이라고 부릅니다.》

운전사인 군인동무가 침착하게 차를 몰며 하는 말이였다.

《철령, 정말 그럴듯한 표현입니다.》

나도 동감이였다.

명문에서 마침 특별임무를 받고 송원언제 건설장으로 가는 이 자동차를 타고 취재의 길에 오른것이 얼마나 잘된 일인지 모르겠다.

한굽이 또 한굽이… 《철령》은 높기도 하였다.

부지중 나는 시장기를 느꼈다. 얼굴에 손목시계를 보니 두개의 바늘이 《12》자로 육박하고있었다.

(식사시간이 돼오는군!)

도중식사라고 하면서 안해가 가방안에 꾸역꾸역 넣어주던것들을 한사코 꺼내놓고 온것이 후회막심하였다.

나는 그렇다치고 순간도 마음의 격동을 놓지 못하는 운전사동무를 보기가 미안하였다.

자동차가 또 한굽이 산기슭을 감돌 때 길옆에 아담한 집 한채가 나타났다.

《기자동차, 식당에 들러 식사를 하고 갑시다.》

《여기에 무슨 식당이…》

《저 집이 식당입니다. 말하자면 <야전식당>이지요.》

《야전식당?!》

자동차가 집앞에서 멎었다,

군인동무가 운전사로부터 금시 《접대원》이 되어 나를 안내하였다.

산기슭의 아담한 작은 기와집, 눈부시도록 회칠을 한 하얀 벽이며 기둥을 암만 살펴봐도 《식당》이란 간판은 없다.

화단에 곱게 핀 갖가지 꽃, 마당엔 모이를 쫓는 햇병아리들과 한가하게 누워있는 멧머리…

향촌의 그윽한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이 집이 식당이란말인가.

《도중식당입니다. 인민들은 군대식당이라고 친근하게 부르고 우리들은 군대식으로 <야전식당>이라 부르지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우리 운전사들이 끼니를 번질가봐 세워주셨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요?!》

쿵-심장이 박동쳤다.

찌릿해지는 가슴속으로 이름할수 없는 송엄하고 다심한 사랑의 물결이 흘러들었다.

식사시간이 되면 수백리 먼곳-이 령길을 넘는 운전사들을 생각하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이 우렁이 안겨와 눈굽이 젖어들었다.

(다심한 사랑의 손길이 늘 몸에 닿아있고 행복의 감정이 늘 가슴속에 흘러넘칠 때는 느끼지 못하던 한없이 숭고하고 파사로운 은정을 여기서 느끼게 되누나.

은혜로운 향도의 해발은 이 땅 그 어느 한구석도 비움이 없이 뜨겁게 비쳐주고있구나!)

식당에 들어서니 다림발이 선 취사복을 산뜻하게 차려입은 녀인이 반겨맞아주었다.

군인동무의 말에 의하면 그는 《료리사》에 《접대원》에 식당 《지배인》의 중책까지 지니고 있다고 한다.

이윽고 식사가 시작되었다.

인심좋은 식당 《지배인》은 자꾸만 곱배기를 요구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섯뜻 수저를 들수 없었다.

그렇게도 명량쾌활하던 운전사동무도 식탁을 마주한 다음부터는 말이 없었다.

서글서글하던 두눈이 습벅이군하였다. 그도 뜨거움에 젖어들어 저러리라.

참으로 잊을수 없는 취재길의 식사였다.

류둔령기슭의 이름없는 식당. 종업원이 겨우 두명, 손님도 많지 않다. 깊은 밤, 이른새벽에도 손님거절을 모르며 따뜻이 맞아들이고 《봉사시간》도 따로 없는 《야전식당》,

먼길에 늦어진 군인운전사들 때없이 고향집처럼 들어서는 《야전식당》!

그러나 얼마나 뜨거운 사랑이 방안가득 흘러넘치고 있는가.

우리 시대의 자랑스러운 대기념비적 창조물인 태천발전소 송원언제 건설을 진두지휘해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바로 이 집을 세워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송원언제 건설장으로 가는 길에 령이 가로놓여있어 수송에 지장을 준다는것을 아시고 돌격대를 무어 굴을 뚫고 안전한 길을 열어주시었다.

길가에 나선 자식이 얼어질세라 넘어질세라 보살피는 친부모의 심정 그대로 사랑의 수송길, 송원언제 건설장으로 잇닿은 승리의 지름길을 열어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이께서는 그래도 마음놓이지 않으시여 류든령을 넘나들며 250 여리의 먼 수송길을 달리는 군인운전사들이 혹시 끼나라도 번질세라 도중식당을 세우도록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슬하의 자식보다 외지에 나가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는 친부모의 사랑인들 이보다 더하랴. 먼길을 떠난 자식을 걱정하는 어머니들의 마음인들 이보다 다심할수 있으랴.

길떠난 자식을 기다리는 어머니들의 사랑은 파스한 부뚜막을 넘지 못해도 전사들모두를 보살피주시는 그이의 사랑은 굽이굽이 높고높은 저 령길에 흘러넘치거니 얼마나 위대한 품에 병사들이 안겨사는가. 우리모두가 안겨 행복을 누리는가.

나는 뜨거워진 눈을 습벽이며 식당안을 둘러보았다.

식당은 크지 않다. 손님도 많지 않다. 하루에 기껏하여 여라문명, 어떤 날에는 한명의 손님도 맞아들이지 못한다. 경제적으로 보면 《수지》가 맞지 않아 《폐업》을 선언한지도 오래였을 식당이다. 애당초 국가는 이 식당의 리득금을 생각하지 않는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송원언제 건설에 동원된 군인건설자들에게 베풀어주시는 사랑을 그들

에게 고스란히 안겨주는것, 이것이 식당의 계획과 제이고 《리득금》이었다.

돌이켜보면 얼마나 자애로운 사랑의 손길이 송원언제 건설에 동원된 군인건설자들을 보살피주시였는가.

태천발전소 건설은 매우 방대하고 어려운 공사이지만 이 동무들은 꼭 해낼것이라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고 당중앙창가에 비방울이 떨어지면 전사들이 비에 맞을세라 사랑의 전화를 걸어주시고, 현지지도의 길에 단풍이 물든 산을 보시고 전사들이 추워할세라 솜옷을 보내주도록 하시고, 명절날이면 전사들의 휴식조직도 친히 알아보시고, 전사들이 손끝 하나 다칠세라 《야전병원》도 차려주시고, 온 나라가 지원의 손길을 보내도록 하시고...

위대한 사랑은 위대한 기적을 낳는다.

송원언제 건설에서 기본을 설비가 아니라 그 담당자인 군인건설자로 보시고 그들에게 크나큰 믿음을 주시고 위대한 사랑을 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손길아래 송원언제는 기적과도 같이 일떠섰다.

웬만한 담력으로써는 결심하기 어려운 것처럼 방대하고 거창한 공사를, 보통으로는 10 년도 더 걸린다는 장엄한 공사를 1 년 남짓한 기간에 해제긴 놀라운 속도, 그것은 위대한 사랑이 낳은 빛나는 결실이 아닌가.

그 기세, 그 기백으로 대건설행군을 힘있게 다그치며 올해안으로 태천발전소 건설을 끝내기 위해 산악같이 일떠선 이 영웅적인 전사들은 이제 또 얼마나 큰 승리로 사람들을 경탄케 할것인가...

우리는 사랑의 집-《야전식당》을 나눴다.

후더워진 가슴들이 훨훨 날개가 돋렸는가 자동차는 썩썩 날아넘었다.

그 높은 류든령을...

가사

송원땅의 새 노래

박필모

천년세월 속절없이 흐르던 물이
우리 당의 손길따라 새롭게 흐르네
송원이라 언제아래 춤추며 흐르는 물
바다같은 산중호수 아름답게 펴쳤구나

에돌면은 굽이굽이 수백리길도
물길따라 나서면은 하루길되네

전진하는 조국의 숨결을 안고
충충마다 발전소의 동음이 멋이로다

인적 없던 심산속에 휴양각 솟고
양어장의 종소리가 고기떼 부르네
송원땅이 생긴 이래 천지개벽 이룩하니
우리 당의 이 은덕을 길이길이 노래하세

그들의 문제

로성렬

1

도에서 진행되는 기관책임자들의 회의에 갈 준비를 하고있는 석천광산 지배인 주광진의 얼굴에는 그늘이 져있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회의에서 비판받을 걱정이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로서 석천광산은 어제까지 분기계획을 보기 좋게 마무리했다.

그런데 그런 걱정 없는 지금 그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있는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문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부지배인이 들어왔다. 그는 첫마디부터 화가 잔뜩 나서 광진의 책상앞으로 다가섰다.

《지배인동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광진은 얼른 얼굴의 그늘을 지우며 그를 쳐다보았다.

《무슨 일 말이요?》

《집문제 말입니다.》

《집문제?》

《모르는척하지 마십시오!》

광진은 그제야 그가 왜 이렇게 따지고 드는지 짐작이 갔다.

부지배인으로서의 응당 화를 낼만도 했다. 그가 그렇게 애써서 마련해놓은 집을 한마디 토론도 없이 년뻑 자재과에 있는 리우철에게 주고말았던것이다.

광진은 아직 두칸짜리 단층집에서 살고있었다.

좋은 살림집이 완공될 때마다 옮겨갔으라고 결사사람들이 권고했으나 그때마다 광진은 《나야 식구가 넷인데 뭐라고? 쓸데없이 집이나 커서 뭘하겠소? 지배인이야 현장에 나가서 일하지 집에서 사업하는것은 아니지 않소?》하고 막아치웠었다.

그런데 얼마전에 부지배인은 지배인이 어머니를 모셔온다는것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기어이 새집으로 옮겨앉아야 한다고 주장해나섰다. 광진이라도 이번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부지배인은 제가 집을 받기라도 하는듯 싱글벙글하며 좋아했다. 그러던 부지배인이니 지배인이 자기와 한마디 토론도 없이 리우철에게 그 집을 쥐버린데 대하여 화를 내지 않을수 없었다.

광진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직접 차를 조직하여 리우철의 집을 옮겨놓았다. 마침 리우철이 자재인수차로 떠난 때여서 조용히 끝낼수 있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부지배인은 어성을 높였다.

《아, 됐소, 됐소!》

주광진은 얼른 그의 말을 막았다.

《회의나 갔다와서 이야기하기오.》

하고 가방을 채우던 그는 책상우의 탁상일력 뒤에 써놓은 《자재과 리우철문제》라는 글자에 눈이 미쳤다.

《자재과 리우철문제》 그는 저도 모르게 이마를 찌프렸다.

거기에 씌여있는것처럼 리우철은 자재과 일군이였다. 별로 신통한데도 없는 보통 자재일군이였다. 그런데 그가 3년전에는 갑자기 유명한 존재로 되었다. 어떻게 짧은시간을 얻어냈는지 독학으로 기사검정시험을 쳐서 화학기사자격을 받았던것이다, 평범한 자재인수원이 일약 화학기사로 되었다. 그런데 우철은 얼마 지나자 자재과로부터 기사자격을 받은 화학분야로 돌려줄것을 조심스럽게 요구하기 시작했다. 누구나 응당한 요구라고 생각했다. 석천광산에는 그의 요구를 만족시켜줄만한 자리가 없었다.

물론 선광장이며 분석실이며 이렇게나 저렇게나 화학과 인연이 있는 《구석》은 좀 있었으나 우철을 위하여 비어놓고있는 자리는 없었다. 그래서 립시로 그에게 약간이라도 화학과 인연이 있는듯한 시약인수를 맡겨보았다.

그러자 얼마 지나서부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우철은 어떤 재간을 부리는지 광산에 필요한 시약을 거침없이 원만하게 접수해오는것이였다. 시약 때문에 애먹는 일은 아예 없어졌다.

자재라는것이 아무리 올리뛰고 내리뛰여도 튀는적이 있기마련인데 우철은 그런 실수를 몰랐다. 시약을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기라도 하는듯 요구되는만큼 척척 가져다놓곤했다. 마치 기사검정시험을 치는 과정에 자재인수의 비결을 터득하기라도 한듯했다.

광진은 날이 갈수록 그가 마음에 들었다. 기관책임자가 되고보면 능력있고 수완있는 일군을 자기 아래에 두고싶기마련이다.

우철이야말로 리상적인 자재일군이였다. 그래서 그의 직종문제를 차일피일 미루어온것이 어느새 3년이 지났다. 우철이 화학기사라는것을 거의 잊어갈만큼 되었을 때 우철이 문제가 또 제기되었

다. 이번에는 조심스럽게가 아니라 단호하게 제기해왔다.

《이러다간 원소주기표까지 잊어버릴것 같습니
다.》 하고 우철은 빨리 해결해달라고 말했다. 원래
말이 없던 사람이 이쯤했을 때는 보통아니게 속
에서 불이 날지경이 되었던 모양이다.

광진은 이해할만 했다. 그것이 밍게 생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그를 위한 빈자리가 없는것
은 둘째로 치고(전혀 없는것도 아니었다.) 시약을
그만큼 책임적으로 원만히 인수해올만한 인물이 없
었다. 대리할만한 사람만 있어도 고려해볼수 있겠
는데!

아래일군들, 특히 자기 일에 능력있는 일군들을
무척 아끼는 광진이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조
동시키거나 다른 일을 시키지 않았다. 그가 《욕심
많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것이 우연치 않았다.
그 말은 광진을 만족케 하군했다. 석천광산의 일이
이만큼 잘되는것도 그점과 적지 않게 관련된다고
믿고있었다.

《리우철문제》 이것 역시 회의에 갔다와서 다시
생각해보아야 했다.

(다른 문제는 없던가?)

하고 생각을 더듬어보던 광진은 문득 자재과장
을 빨리 임명해야겠다고 하던 부지배인의 말이 생
각났다. 자재과장은 얼마전에 조동되고 부재중이었
다. 그것도 회의에 갔다와서 토론해야지 하고 생각
하던 그는 눈길이 저절로 탁상일력의 《리우철》이
라는 이름에서 멎었다.

가만 있자. 리우철이가 자재과장을 하면 어떻게
될가...

문득 떠오른 생각에 그는 우철이의 얼굴을 눈앞
에 그려보며 자재과장으로서의 그를 상상해보았다.
그러자 왜 인제야 그 생각이 떠올랐는가 할 정도로
적임자로 느껴졌다.

우철은 아마 자재과의 모든 사람들을 자기처럼
일하게 만들것이다.

《부지배인동무!》

광진은 다시한번 생각해보느라고 말을 끊었다
가 있었다.

《자재과장 후임에 대해서 생각해봤소?》

《자재과장 후임이요?》

부지배인은 갑자기 화제가 바뀐데 어리둥절한
기색이었다.

광진은 빙그레 웃었다.

《내 생각인데... 우철동무가 어떨것 같소?》

《우철동무요? 자재과장으루말입니까? 아니, 그
동무야...》

《그건 나도 아오.》

광진은 그의 말을 막았다.

《그건그거구 자재과장일을 맡기면 어떻겠는가
하는걸 생각해보란말이요.》

《자재과장이라면... 글썄... 하기가 잘할수... 있
겠지요... 허지만...》

《허, 이거 부지배인동무가 언제부터 이렇게 욕
심없는 사람이 됐소? 그런 쫄쫄한 사람은 다른데
주고 부지배인동문 빈 껌데기만 안고있자는거요?
시약때문에 꼴탕을 먹던 일을 벌써 다 잊었소?》

《거야 글썄 그렇지요.》 하고 게면쩍게 웃던 부
지배인은 갑자기 정신을 차린듯 책상앞으로 다가섰
다.

《지배인동무, 이렇게 어물쩍해서 그 문제에서
빠질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

집문제를 기어이 따지고들겠다는것이다.

광진은 또 한번 허허 웃었다.

《나야 식구가 넷인데 집이 특별히 커서 뭘하겠
소?》

《그럼 우철동무네는 식구가 몇입니까?》

따지고드는 기세가 만만치 않았다.

광진은 뭘수록 이야기가 더 깊기로 들어가지 않
게 하려고 웃음을 지었다.

《다섯이지.》

《그거야 젓먹이까지 해서 다섯이지요. 그렇지만
지배인동무네야 이제 어머니를 모셔오면...》

순간 광진의 얼굴에는 혼자 있을 때에 젖던 그
늘이 다시 비졌다.

그는 나직이 말했다.

《어머니는 오시지 않소.》

입밖에 낸 다음에야 아차! 하고 입술을 깨물었
다. 별로 하고싶지 않았고 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야
기였다.

부지배인은 눈이 둥그래서 책상에 더 바투 다가
앉았다.

《오시지 않는다니요?》

《그렇게 됐소.》

《왜 오시지 못한답니까?》

《그건... 모르겠소.》

《예?!》

부지배인은 믿지 않는 얼굴이었으나 광진의 말
은 사실이였다.

며칠전 어머니에게서는 일이 생겨서 떠날수 없
게 되었다는 편지가 왔었다.

《무슨 말씀인지 원...》

부지배인은 못미더움을 숨기지 않았다. 그 못미
더움은 말로써만은 지워버릴수 없을것 같았다.

《별수 없구만!》

광진은 책상서랍을 열고 어머니의 편지를 꺼냈
다.

《읽어보오.》

부지배인은 저으기 어리둥절한 기색으로 편지를 받아들였다.

꾸며낸 말이라고만 여겼던것이 분명했다.

그가 읽는동안 광진은 이미 열번도 더 읽었던 편지의 글줄을 되새겨보았다.

《…손자에들한테로 떠나려던 참에 그대로 스쳐 버릴수 없는 일이 생겼다.

어차피 제대로 될 일이지는 하지만 지금은 안타까운 생각에 잠이 다 오지 않는구나.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렇지만 여기 일에는 마음을 쓰지 말어라. 다 잘 풀릴수 있겠지…》

어머니는 광진이의 마음을 번거롭게 할가봐 넘려해선지 더 상세히 쓰지 않았고 몇마디로 편지를 끝냈다.

《어찌겠느냐. 이 어미 불찰로 생긴 일이니… 이왕지사 기다리던바에 좀더 기다려주렴.》

편지의 글줄들에는 채 말하지 못한 어머니의 안타까움이 짙게 어려있었다.

도대체 어머니의 신상에 무슨 일이 생겼을가.

30 여년이나 교원생활을 해오던 어머니였다.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긴것 같았다.

그렇지 않고야 그리도 기다리고있는 아들에게로 오던 걸음을 멈추었을까 없었다.

부지배인은 몇번이고 고쳐읽더니 랑패한 기색으로 내려놓았다.

《리유는 전혀 모릅니까?》

광진은 머리를 흔들었다. 부지배인이 내려놓은 편지의 글줄을 기계적으로 다시 더듬었다.

《혹시 몸이 편찮은게 아닐가요?》

광진은 머리를 흔들었다. 편지의 글줄속에서 그는 도소재지의 역근처에 있는 부채공장에서 합숙관리원으로 일하게 되었다는 내용에 다시 눈길을 멈추었다.

불안과 의혹은 더욱 짙어갔다. 어찌하여 30 여년 교원경력을 가진 어머니가 갑자기 부채공장 합숙관리원으로 일하게 되었을가. 무슨 일이 생긴것인가.

부지배인은 풀기없이 편지를 내려다보았다.

《왜서인지 정말 모릅니까?》

광진은 머리를 끄떡거렸다.

《그래서 이번에 갔던길에 한번 들러볼가 하오.》

《꼭 들러서 잘 알아보고 오십시오.》

부지배인은 기분이 언짢아서 나갔다.

광진은 주섬주섬 가방을 채우고 일어났다.

문을 나섰을 때 그는 자재과쪽으로 가는 리우철을 발견하였다.

《우철동무!》

우철은 돌아보더니 켜걸음으로 왔다.

《왜 그러니까?》

광진은 그의 가름하고 총명하게 생긴 얼굴을 이윽히 보다가 입을 열었다.

《어떻소? 이제는 다른 일을 해보고싶지 않소?》

《다른 일지요?》

우철의 눈이 번쩍하고 광채를 띠었다. 그 눈에 비친 기대와 흥분에 광진은 미소를 짓지 않을수 없었다.

《그렇소. 이제까지 그냥 같은 일만 시켜서 미안한데…》

《무슨 일입니까?》

광진은 다시 생각해보고 입을 열었다.

《이건 내 생각인데… 토론해야 할 문제지만…자재과사업을 한번 책임지고 해볼 생각이 없소?》

우철은 눈이 등그래서 쳐다보았다.

《놀래기는 왜 놀래오? 동무는 얼마든지 할수 있소! 시약인수에서 보인 그 일본새로 온 자재과가 일하도록 만들란말이요! 한번 해볼만하지 않소?》

《…》

《왜 자신이 없소?》

《저-좀 생각해보겠습니다.》

우철의 눈에서는 이미 기대도 흥분도 찾아볼수 없었다.

《전 그럼 가보겠습니다.》

《음-》

광진은 기분이 나빴다. 흥분하고 기뻐할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는 수긋하고 자재창고쪽으로 가는 우철을 거칠은 음성으로 불러세웠다.

《우철동무! 새 분기에 쓸 시약은 어떻게 됐소?》

《다 들어왔습니다. 석달분이…》

《그렇소? 수고했구만!》

역시 자재일꾼으로는 그저그만이라고 할수 있었다. 갈데 없는 자재과장감인데…

그는 구내를 이리저리 《주인다운》 눈으로 살피며 걸었다. 동발더미에 잘라쓰고 남은 절두목들이 어지럽게 널려있었다. 그속에서 덩구는 광차바퀴도 보인다. 광진은 얼굴을 찌프렸다. 단단히 말을 해야겠군. 자재를 망탕 쓴단말이야. 도무지 아까운 줄을 모르고…

그때 그를 찾는 소리가 쫓아왔다.

《지배인동무!》

부지배인이었다. 무슨 할말이 또 있는지…?

《어머니한테 집이 다 되었다는 소식을 알렸댔습니까?》

《그것까지야 알릴 필요가 있을까?》

《아, 지배인동문 어머니들의 마음을 잘 모릅시다. 그러지 말고 이번에 갔던길에 아예 어머니를 모시고 오십시오.》

광진은 그를 쳐다보며 새삼스럽게 반문했다.

《함께 온다?》

《혼자서는 광산에 들어서지 못할줄 아십시오. 어머니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꼭 함께 오겠다고 말합니다!》

광진은 가슴이 뭉클했다.

그 기색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짐짓 무뎡뎡하게 말했다.

《부지배인동문 자재를 좀 아껴쓰는데 관심을 돌려야겠소.》

그는 동발더미옆의 절두목들과 광차바퀴를 가리켰다.

《이걸 보우...이렇게 망탕 써서야 나라도 아무리 부유하다 해도 당해내겠소?》

그전에 부지배인을 할 때는 《구두쇠》라는 별명까지 들은 광진이었다. 자재문제에서는 아직도 빈틈없었다.

《알만합니다. 하여튼 어머니문제는 꼭 그렇게 하십시오!》

《고맙소!》

광진은 걸음을 옮겼다.

정말 어머니와 함께 올수 있을지도 모른다. 별치 않은 사정일수도 있고 나이가 많아지면 로파심도 그만큼 많아진다고는 않았는가.

걸음이 가벼워짐을 느꼈다.

2

렬차는 대기를 가르며 쏜살같이 달리고있었다.

푸른 숲이며 누른 들판이 시원스러이 차창을 스치었다.

렬차안은 손님들로 흥성거렸다.

의자에 앉은 주광진은 등받치개에 몸을 맡긴채 눈을 감고있었다.

어느때라든 사업의 갈피갈피를 넘기며 미진된 문제들을 더듬어보고 앞으로 사업을 설계도 하여보았을것이나 지금 그의 머리속은 어머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차있었다.

오늘저녁에 만나볼 생각을 하니 가슴으로 파뚫한 바람이 흘러드는듯했다.

《애야,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라. 그러면 엄마가 일찍 들어온다.》 하던 음성이 귀가에 다시 살아났다.

광진이 어린 시절에 어머니는 초등학교의 교원이었다. 아버지는 1,211 고지전투에서 전사하였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초등학교의 교원을 하였다.

집에는 늘 늦게야 돌아왔는데 집에서는 어린 광진이가 혼자서 기다리고있었다. 어두워져야 집으로 돌아오면 어린 광진은 불도 없는 집에 앉아있다가 와락 달려들곤했다.

《어머니, 어머니 왜 이렇게 늦게야 오나? 좀 빨리 오는 못오나?》 하고 광진은 눈물이 그렇게서 물었다.

어머니는 아들을 껴안고 말했다.

《광진아, 좀 참거라. 너에게는 그래도 이 어머니가 있지 않니? 학원에서는 어머니를 영영 잃은 애들이 이 어머니를 기다린단다.》

초등학교의 교원-그것은 곧 원아들의 어머니였다. 원아들은 교원들을 《어머니》라고 불렀다.

《그럼 어머니 영영 늦게만 와야 하나?》

어머니는 아픈 가슴을 누르며 어린 아들에게 말했다.

《아니 앞으로는 빨리 들어온다. 저 애들이 좀더 크기만 하면...》

《정말이나?》

《정말 아니면!》

어머니는 아들에게 약속했다.

《좀 기다려라. 그러면 저녁마다 어머니가 옛날도 해주며 재미있게 살자.》

그러나 어머니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전쟁의 폭격속에 부모 잃은 아이들은 계속 생겨났다. 전쟁이 끝난후에도 어머니는 여전히 빨리 들어오지 못했다.

폐허로 변한 거리와 골목으로 무수한 전재고아들이 어머니의 품을 찾아 헤매고있었다.

어머니가 일찍 들어올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광진은 이미 청년으로 자랐었다.

그는 군대에 나갔고 군대복무를 마친후 대학에 갔고 다음은 광산으로 왔다.

어머니는 여전히 교원으로 일했다. (물론 초등학교는 아니었지만) 광진은 어머니를 자기 있는곳으로 와서 함께 살자고 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이렇게 회답을 썼다.

《기다려다오. 지금 말은 아이들을 졸업시키고는 가겠다.》

그러던 어머니가 드디어 광진의 권고에 응했다.

《이제는 함께 모여살자.》

그런데 무엇이 어머니의 걸음을 붙잡은것일까? 그 편지를 바로 부지배인이 가지고 왔었다.

《어머니의 이름이 유경심입니까? 초등학교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알고보니 부지배인은 바로 광진이의 어머니가 있던 초등학교에서 자라났던것이다.

그는 광진이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어머니》라고만 불렀다.

《이젠 어머님도 퍼그나 늙으셨겠지요?》

그는 어머니를 한시바삐 모셔오라고 매일같이 권고했고 나중에는 원망까지 했다.

《지배인동문... 지배인동무혼자의 어머니인 줄 압니까? 나에게도 어머니란말입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의 이야기도 주고받았다. 그때부터 부지배인은 광진이 어머니를 모셔오라고 하며 집을 해결하려고 더욱 극성스레 뛰어다녔다.

《옛날엔 내가 철없이 어머니에게 매달려서 지배인동무와 즐길 시간을 빼앗았는데 이제야 그 시간을 될수록 앞당겨야지요.》

이번에 어머니를 모시고 갈수 있다면 아마 부지배인이 광진보다 더 기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도대체 무슨 일이 생겨서 오지 못하게 된것일가?

불안은 다시금 질게 갈마들며 광진을 괴롭혔다. 도대체 어머니의 신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것인가. 뒤좌석에서 점점 높아지는 음성에 광진은 생각에서 깨여났다.

《그게 그래 옳단말이요? 다섯키로짜리 전동기를 쓸데다 서른키로짜리 전동기를 쓴게. 그것도 석달씩이나!》

굵다란 남자의 목소리였다.

광진은 뒤좌석을 넘겨다보았다.

청년과 처녀가 마주앉아있고 그들의 옆에는 로인이 앉아있었다.

변명하는 처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가 옳대요? 그래서 바꾸려고 한가지 않아요?》

《그럼 그사이 랑비한 국가전력은 동무네 농장기 사장이 변상하겠대요? 한심하지!》

(정말 한심하군!)

광진이 생각하는데 처녀의 약오른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 기사장동질 모욕하지 말라요.》

《체네, 기사장이라는 사람을 감싸지 말라구. 이 젊은이 말이 옳네.》하는것은 분명 로인의 말이였다.

《그런 사람이 많으면 나라가 뭣이 되겠나. 그거야 기동감을 서까래감으로 쓰는것과 같지 않나?》

광진은 미소를 지었다. 기동감을 서까래로 쓴다는 말은 아주 그럴듯했다. 박수라도 치고싶을만큼 적중한 표현이였다.

로인의 말은 광진이의 마음에 쏙 들었다. 그 말이 마음에 든것은 광진이 혼자만이 아닌것 같았다. 맞은편 좌석에서도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목소리가 들렸던것이다.

《옳습니다! 기동감을 서까래감으로 쓰는격이지요. 아직 그런 일꾼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젠가 귀에 익어 일어서서 돌아보았다.

그러자 얼굴이 벌개서 열변을 토하는 남면화학공장 지배인을 발견했다.

《저런!》

광진은 반가와서 소리쳤다.

《<남면지배인>동무!》

남면화학공장 지배인은 머리를 들더니 환성을 올렸다.

《아니 이게 누구요? <석천지배인>이 아니요?》

석천광산에서는 선팡장을 비롯한 여러곳에 필요한 시약을 남면화학공장에서 가져다 쓰고있었다. 그래서 광진은 남면지배인과 잘 아는 사이였다. 우철이 자재인수원으로 숨쉴을 보인것도 바로 남면화학공장에서 시약을 해결해오면서부터였다.

《어데 가는길이요?》

남면지배인은 광진의 옆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도에 가요. 회의때문에, 지배인동문?》

남면지배인은 대답대신 큰 손으로 광진의 잔등을 탁 하고 쳤다.

《칭찬받으러 가누만! 분기계획을 초과수행했다면서?》

광진은 껄껄 웃고말았다.

《소식도 빠르다! 건 어떻게 알구...》

《그걸 모를수가 있나. 련관기업소의 일인데...》

광진은 문득 이 기회에 우철이가 시약을 원만히 인수해온 비결을 알아볼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된셈인가. 시약을 푼푼히 보내주니? 동무같은 <구두쇠>가...》

남면지배인은 씩웃었다.

《안줄수가 있소? 석천광산 그 리우철이한테야 어쩔수가 없지.》

광진은 지배인이 다른 기업소의 인수원 이름까지 아는데 놀랐다.

《내 그런 친구를 처음 봤구만. 우리 공장에 오면 시약을 내라는 소리도 없이 직장들에 나가 일하지 않는가 하면 실험실에 들여박히고... 난 그 친구를 우리 종업원인줄 알았다가 망신한적도 있네. 우리 공장에 오면 공장사람이나 같네. 그러니 암만 요구해도 안줄수가 있나? 얼마전엔 걸린 문제까지 몇가지 풀었다네. 알고보니 그 친구 화학쟁이두만!》

《화학쟁이?》

광진은 코웃음을 쳤다.

《화학기사야, 화학기사! 기사자격증을 받은게 언제라구?》하고 자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철이의 원만한 자재인수의 《비결》이 신통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만 하면 어데서나 다 자재를 내줄것이다.

그러고보니 리우철이 자재과장감으로는 더욱 그저그만일것 같았다.

자재과를 책임지면 모든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잘해나갈수 있을것이다.

《알고있네.》

남면지배인은 머리를 끄덕거렸다.

《벌써 3년이 되었다면서?》

《응?》

광진은 말이 막혀 멀뚱멀뚱 건너다보기만 했다,

남면지배인이 광산의 보통인수원에 대하여 이리도 잘 알고있는것이 이상스러웠다. 기색을 보니아는게 그것뿐이 아닌것 같았고 더 구체적인것까지도 알고있는것 같았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을 시킬 작정인가? 그냥 대기중이라는데...》

하고 남면지배인이 물었던것이다.

광진은 의문이 더 커졌다.

《히, 이거 남면지배인이 오지랖이 지내 넓다? 석천광산 간부사업까지 관심을 두다니?》 하고 룡담으로 대답하면서도 속으로는 남면지배인의 진속을 알아내려고 분주히 생각을 더듬었다. 묻는대로 다 대답하다가는 꼭 그 어떤 계책에 말려들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남면지배인은 그의 옆으로 다가왔었다.

《여보게, 그 사람을 우리한테 주지 않겠나?》

《뭐라구?》

광진은 그에게서 물려앉았다. 남면지배인의 류다른 관심이 이제야 리해되는것 같았다.

《놀라긴?》

남면지배인은 더 바싹 다가왔다.

《주겠지?》

광진은 어이없어 허- 소리를 냈다.

《자재과장감을 어물쩍해서 뽑아갈려구? 어렵도 없네.》

《뭐? 자재과장?》

남면지배인은 한동안 그를 보기만 하더니 꺾꺾 웃었다.

《통담이겠지?》

《통담이라니?》

남면지배인이 달라붙을수록 광진은 더욱더 우철이가 도저히 내놓을수 없는 일군으로 느껴졌다. 내놓는다는것은 어렵도 없는 소리였다. 자재문제에서 보다 사람문제에서는 더 《구두쇠》인 광진이었다.

다행히 도소재제가 가까와지고있었다.

《아이쿠 벌써 다 왔군! 난 내리겠네.》

《벌써?》

남면지배인은 차창밖을 내다보더니 혀를 찼다.

《뭘? 아직 역구내에도 들어서지 않았는데?》

하고 그는 광진이 옷자락을 잡았다.

《어떻게 하겠나? 우리한테 주지? 시약은 달라는 대로 보장해줄테니 응?》

《지긋기도 하군!》

광진은 남면지배인의 손에서 옷자락을 뽑아냈다.

《내 좀 생각해보지.》

하고는 도망치듯 승강구로 나왔다. 뒤에서 남면지배인의 《그럼 그렇겠지.》 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승강구로 시원한 바람이 몰려들었다.

광진은 신경질적으로 담배를 피워물었다.

왜 생각해보겠다고 했던지 자기로서도 알수 없었다. 생각해볼게 무엇이 있다가?

문득 우철이 말이 생각났다. 《생각해보겠습니까.》 가만, 혹시 우철이와 남면지배인사이에 벌써 무슨 이야기가 있는것이 아닐까? 아니, 그랬을리 없다. 광산이 자기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가를 모르는 우철이가 아니다.

하여튼 자기가 남면지배인과 생각해보자고 한것은 잘못이다. 두말 못하게 해야 하는건데... 계를직한게 기분이 상했다.

렬차는 장내 신호기를 지났다.

부재공장이 바라보였다.

부재를 가마에서 꺼내는지 증기가 구름처럼 피어오르고있었다. 저 공장합숙에 어머니가 있을것이다.

그러자 불안과 의혹이 공장구내의 증기구름처럼 피어올랐다. 어머니가 오지 못하게 된것은 어떤 심상치 않은 일때문일수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얼마후에는 그것이 자기와 관계되는 일이 아닐가 하는 의혹까지 스며들었다. 이 무슨 엉터리없는 생각인가...

《젠장!》

렬차가 속도를 늦추는 바람에 그는 차벽에 부딪치고 비틀거렸다.

렬차는 역구내에 들어서고있었다.

3

그날저녁 회의가 끝나자 주광진은 부재공장으로 향했다.

합숙은 공장구내에 있었다.

구내길을 천천히 걷던 그는 길옆에서 켁켁대는 한 청년을 보았다.

청년은 길다란 원목 한대를 메고 일어서려고 애쓰고있었다. 겨우 일어섰으나 중심이 맞지 않아 뒤꽂무니가 철썩 하고 땅에 닿았다.

청년은 뭐라고 욕지거리를 퍼부으며 원목을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다시 시작하려고 했다.

광진은 그의 뒤로 가서 꽂무니를 쳐들었다. 청년은 뒤를 돌아보더니 눈을 껌벅거렸다. 광진은 머리를 끄떡해보였다.

《같이 가져가요.》

《예! 미안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몇걸음 걸더니 머리를 반쯤 돌리고 물었다.

《어느 부서에 계십니까?》

그는 광진을 자기 공장 사람으로 생각한것 같았다.

《동문 이 공장에 갓 온 모양이구만?》

청년은 웬일인지 좀 당황한듯 대답을 더듬거렸다.

《예? 예... 저- 사실은 전 이 공장 사람이 아닙니다.》

광진은 나무를 다른 어깨에 바꿔냈다.

《그럼소? 그런데 어떻게... 출장왔소?》

《예? 아니 저-》

청년은 웬일인지 또 당황한 기색이었고 대답을 피했다.

《그저 일이 있어서 왔는데 창고를 하나 새로 짓 더군요. 그래서 가던길에 좀 메다주느라고...》

《아, 그러니 도와주는거로구만.》

광진은 감탄했다.

그러나 청년은 그의 감탄에 쓸쓸하게 대답했다.

《뭘 칭찬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광진은 놀랐다.

《그건 무슨 소리요?》

《저- 그저 그렇게 됐습니다.》

광진은 또 한번 어깨를 바꿔며 말머리를 돌렸다.

《합숙이 어데쯤인지 모르겠소?》

《합숙말입니까? 이 길로 가다가... 저와 같이 갑시다. 저도 합숙에 갑니다.》

《그럼소? 반갑소!》

광진은 잠시후 또 물었다.

《합숙이 크오?》

《보통입니다. 합숙생이 82 명이니까요.》

광진은 웃었다.

《이 공장 사람이 아니라면서 합숙생이 몇명인지는 잘 아는구만?》

《예?》

청년은 또 당황한듯했다. 걸핏하면 당황해하는 거동이 퍼그나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청년은 잠시후에 중얼거리듯 대답했다.

《합숙에서 사니까 알게 됐지요.》

《?》

도무지 모를 소리였다. 공장사람이 아니라면서 공장합숙에서 산다니? 갈피를 잡을수 없이 알쏭달쏭했다. 멋없이 까다로운 청년으로 느껴져 광진은 불쾌해졌다.

청년은 그를 돌아보더니 물었다.

《힘드십니까? 이젠 다 왔습니다.》

《아니 괜찮소.》

《여깁니다. 내려놓읍시다.》

나무가 떨어졌다가 튀어오르는바람에 광진은 무르팍을 호되게 얻어맞았다. 팔사납게 비틀거렸다. 화가 났다. 왜서인지 까닭없이 이번 려행이 좋은 결과는 없으리라는 예감이 들었다.

《에이!》

모든것이 이 정체가 애매한 청년때문인것만 같았다.

그래서 광진은 같이 가자던 청년의 말은 무시해 버리고 혼자서 절룩절룩 걸음을 옮겼다. 무르팍의 아픔이 사라지면서 걸음은 점점 빨라졌다. 기분도 개운해지기 시작했다.

어머니를 만나볼 생각으로 가슴이 울렁거렸다.

기관총쏘는듯한 소리가 귀청을 때렸다. 성형장에서 부재를 진동시키는 소리같았다.

소음으로 가득찬 공장은 부글부글 끓고있었다.

벨트콘베아가 찰칵찰칵 소리를 내며 높은 건물 위로 부지런히 모래를 실어올리고있었고 성형장과 잇당은 건물에서는 증기가 확 타래쳐올랐다. 증기가마에서 양생된 부재를 꺼내는 모양이었다.

주광진의 걸음은 점점 빨라졌다...

합숙은 공장안쪽의 조용한곳에 있었다.

그는 합숙마당에 들어섰다.

접수실안에는 봉긋봉긋 피어나려는 꽃망울처럼 생기가 넘쳐흐르는 처녀가 다소곳이 머리를 숙이고 앉아 책을 보고있었다.

《수고합니다. 합숙책임자어머니를 만나자고...》

《예?》

처녀는 주광진의 얼굴을 말끄러미 올려다보았다.

《아, 증명서말이요?》

광진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처녀는 얼굴을 붉히며 머리를 흔들었다.

《아닙니다. 그런데 아니라 책임잔 아바인데요...》

《그럼소? 그럼 유경심이라고...》

《유경심어머니요? 어머니 합숙관리원인데요?》

《아, 참 그렇지! 옳소 관리원이요.》

《그럼 절 따라오세요.》하고 처녀는 앞서서 걸어갔다.

광진은 그를 따라가면서 자기가 왜 책임자라고 말했던가 하고 생각해보았다. 편지에서 관리원을 한다는것을 알고 왔는데도...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럴수밖에 없었다. 1952년에 입당한 오랜 당원이며 수백수천의 제자들을 키워낸 로교원에게 합숙관리원이라는 직무는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것이였다.

《이 방이 관리원실이에요.》

하고 말하며 처녀는 《합숙관리원실》이라는 표쪽이 붙은 방문을 열었다.

그런데 방은 비어있었다.

처녀는 복도로 나와 이리저리 살피더니 말했다.

《아! 저기 계시요.》

작업복을 입은 어머니가 구부정한 자세로 복도를 밀대로 닦아내고있었다. 별로 더 늙어보이고 체소해보였다.

광진은 가슴이 아팠다. 누가 어머니를 보고 수천명의 제자를 키워낸 로교원이라고 할것인가.

어머니는 손님이 왔다는 처녀의 말을 듣고 광진을 돌아보았다. 무엇인가 더듬는듯 눈을 살쾅이 쏘프렷다가 크게 떴다.

《아니? 이게? 광진이 아니냐?》

어머니는 그의 손을 움켜잡고 순간에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쳐다보았다.

광진은 자기도 역시 눈물이 어리는것을 느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왔냐? 바쁠텐데...》

《도에서 회의가 있어서 왔던길에 들렀어요.》

《그래?》

어머니는 그제야 복도에 그냥 서있는데 생각이 미친듯 밀대를 세워놓으며 서둘렀다.

《자, 어서 들어가자.》

방안에서는 세탁한 깨끗한 백포냄새가 풍겼다.

얇은땀이 책상이 창문밑에 놓여있었고 책상우 책꽂이에는 《건설공학》, 《건설재판》 등의 책들이 나란히 꽂혀있었다. 빨래한 백포냄새만 아니라면 교원의 방으로 생각될 지경이었다.

《그래 요즘 그 둘째는 어떻게 잘 있냐?》

둘째란 후방부지배인이었다.

어머니는 옛시절에 초등학교졸업생들을 졸업한 회수에 따라 첫째, 둘째 이렇게 불렀다.

《부지배인이 둘째였는가요?》

《그럼 둘째지, 잘 때도 내 손을 잡고야 잠들더니...》

광진은 웃으며 밀을 이었다.

《그 사람이 어머니를 빨리 모셔오지 않는다고 야단입니다. 집이 좁을가봐 지체하시는것 같은데 자기가 집은 다 꾸러놓을테니 무조건 모셔오라는겁니다.》

광진은 부지배인의 말로 어머니의 의향을 떠보려 했다. 부지배인이 자기가 일을 쓰게 못해서 어머니를 지체하게 한다고 말한것도 잊지 않고 덧붙였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집이 넓고 좁고가 무슨 상관이었나? 닭알안에서도 대사를 치른다는데. 안가는게 아니라 못가고 있지.》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거 너한테도 말하기가 창피한 일이어서... 교원질을 쓰게 못했으니 어찌겠나. 막녕이녀석때문에 그런다.》

《예? 막녕이요?》

아마 마지막 초등학교졸업생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전쟁의 상처가 가서집에 따라 초등학교원 원아들도 점점 줄어들었다.

그 막녕이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는것일가.

《그런데 그 막녕이한테...》

광진은 그 막녕이라는 말이 퍼그나 마음에 들어서 다시 한번 씹씹었다.

《막녕이한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다른 일이 아니다. 그녀석이 건설단과대학을 다녔는데 공부를 얼마나 잘했겠냐? 체육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난 그래서 막녕이에 대해선 은근히 긍지를 가졌었다. 그런데 한달전에 그 애가 대학을 졸업했는데 상업관리소에 갔다는게 아니겠냐? 이런 변이 어디 있겠니? 건설대학을 졸업한 건설기사가 상업관리소에 가서 뭘하겠냐? 내 그래서 찾아가보았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실습때에 상업관리소에 나가 필요한 건물을 설계해주었다는구나. 그때 관리소장은 그 애를 욕심내고있다가 그를 어떻게 설복했는지 자기네 관리소로 끌어다가 지도원자리에 앉혀놓았다는게 아니냐? 내 그래서 막녕이녀석한테 단단히 말해주었다. 상업일군을 하라고 나라에서 돈을 들여 건설대학공부를 시켰겠냐? 건설기사로 키워놓으니 상업일군을 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거나 하나?》

광진은 머리를 끄덕거렸다. 상업관리소장에 대한 적의가 치밀었다. 막녕이라는 녀석도 한심하게 생각되었다. 만나서 단단히 말을 좀 해주어야지. 《형》의 자격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게 했습니까?》

어머니는 안타까움이 어린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오늘은 이 사람 만나보구 래일은 저 사람 만나보구 속만 태우고있지. 누가 이 늙은것의 말을 귀담아들으려고 하나?》

《그런데 이 함속에는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막녕이 일을 외면하고 손자애들한테로 떠날수가 없구나. 여기서 이렇게 뒤바라지라도 해주자구 걱정했다. 그러나 빨래나 해주어서야 그를 도와준다고 할수 있겠니? 참...》

《...》

이제야 어머니가 왜 놀러왔는지 리해되었다.

그때 문이 벌럭 열렸다.

의외에도 방금전 나무를 같이 메고 온 청년이었다.

그는 방안에 있는 광진을 보자 문을 열던것과 달리 주춤거렸다.

어머니는 머리를 들더니 미소를 지었다.

《인제 오냐? 인사해라. 너의 형이다.》

하고는 광진이에게 말했다.

《막녕이다》

《그래요?》

그래서 청년은 이 공장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알쏭달쏭한 소리를 했던것이다. 별스레 당황해하며 얼뭉한 대답을 하던것이 이제는 리해되었다.

어머니가 막녕이에게 물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냐?》

《오다가 보니 창고를 짓기에 좀 구경하했는데... 그냥 지나올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좀...》

어머니의 얼굴에는 미소가 어렸다.

《그렇게지. 그래서 고기도 제 물을 찾아가야 좋다지 않니? 그런데 끝세...》

어머니는 그늘이 비낀 얼굴로 물었다.

《그래, 관리소장하고는 말해봤냐?》

청년은 우물해졌다.

《절대로 내놓을수 없다는거지요. 이제 관리소에서 집을 지울것이 있고 또 뭐 써클도 체육도 추켜세워야겠다면서... 가겠으면 대신할 사람을 내놓고 가라는거예요.》

《뭘라구?》

광진은 버럭 소리질렀다. 화가 나서 견딜수 없었다. 이거야 나라에서 공을 들여 키운 재목을 자기를 위한 불쏘시개로 쓰겠다는것과 무엇이 다른가. 기동감을 서까래감으로 썼다는 농장기사장보다 더 한심한 사람이다.

그런데 어머니는 가늘게 한숨만 쉴뿐이다.

《또 그 소리로구나.》

광진은 청년에게 물었다.

《이젠 그래 어떻게 할 작정인가?》

《어떻게라는게 있습니까? 계속 뻔쳐야지요. 차라리 한 두어달 아프다고 자빠져볼까 하는데...그럼 놔줄지도 모르지요 뭐.》

《아서라, 그럼 못쓴다.》

어머니의 말이였다.

《일하는 사람이 그렇게는 하면 안된다. 저도 모르는사이 버릇이 되고 사람을 버리게 된다.》

《글쎄 나도 오죽 안타까우면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하긴 처음에 동요한 내 잘못이 큼니다...》

청년은 한숨을 내뿜었다.

광진은 묵묵히 앉아있었다. 어머니의 말도 옳았고 막내이의 말도 옳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말 속이 타는구나.》

어머니의 말이였다.

《생각해보려무나. 그 상업관리소장이라는 사람의 말대로 하면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어떻게 알겠냐? 그동안이면 배운것은 하나하나 잊어질게구 쓸모없이 되어서야 제자리에 가게 될게 아니냐? 그러면 애써 배운것이 무슨 소용있겠냐? 하나 둘 다 잊어버린 다음에야...》

광진은 부지중 흠칫했다. 《하나 둘 잊어버린다》는 말이 문득 《원소주기표》까지 잊어버릴것 같았던 우철이의 말을 연상시켜서였다.

그는 머리를 흔들었다. 그러나 그 말이 서로 갈다는것은 부정할수 없는 사실이 아닌가.

《우리 에미들이란 자식들이 어릴 때 장난하는것을 보면 <수학가가 되겠구나>, <과학자가 되겠구나>, <체육가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단다. 난 이애가 초등학교에서 자랄 때 장난하는걸 보고 건축가가 될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정말 건설단과대학에 가지 않겠느냐? 얼마나 기뻐던지.

그런데 이렇게 되고말았구나. 지금은 몰라도 이제 10년, 20년을 그렇게 살고나면 뭐가 되겠냐? 그땐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될게 아니냐? 일생이 다 가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프구나.》

《...》

광진은 저도 모르게 머리를 점점 더 깊이 떨구었다. 앞에 앉아있는것은 막내이가 아니라 우철이 인것 같았고 우철이가 어머니의 입을 빌어 안타까움을 토로하는것만 같았다.

일생, 한 인간의 운명... 《좀 생각해보겠습니다.》 하던 우철의 말과 실망에 찼던 눈동자, 기사 자격증을 받았을 때 그의 심정은 얼마나 환희와 기쁨, 희망으로 부풀어올랐을것인가. 그러나 3년이 지나도록 그는 자재인수사업을 계속했다. 바로 광진이때문에...

혹시 우철의 어머니도 광진의 어머니처럼 속을 태우며 아들을 기다리고있을지도 모른다. 광진을 원망하면서 ...

시간과 함께 잊어지는것, 그것은 단순한 지식의 상실이 아니라 조국의 재부가 상실되는것이다.

3년, 그동안에 우철이 만일 자기 분야에서 일했다면 무엇을 해냈을지 어찌 알랴. 혹시는 나라의 파

학기술을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는 거대한 발명을 하였을지도 모른다.

허나 3년은 헛되이 사라졌다. 광진이의 지나친 《사랑과 아낌》때문에, 그것이 참으로 아끼는것이며 사랑하는것이였을가?

떠나기전에 부지배인과 주고받던 말이 떠올랐다. 《자재를 아껴써야겠소. 자재를!》 얼굴이 화끈해올랐고 다음은 싸늘하게 식어들었다. 자재때문에 언제나 열을 올렸다. 랑비해서는 안된다고.

그러나 사람을 잘못쓰는것보다 더 무서운 랑비가 어데 있겠는가. 다시는 돌아올수 없는 한 인간의 일생이 헛되이 지나가버리는것이다. 그것은 무엇으로도 보상할수 없는것이다!

《그래서 난 아무래도 여기를 떠나지 못하겠다. 이 일이 다 제대로 되기전에는 발이 떨어질것 같질 않다.》

《...》

《어쩔수 없구나. 일이 바로잡히기전에는...》

《어머니!》

청년은 울먹울먹해서 머리를 푹 떨구었다.

《저때문에... 제가 그만...》

광진은 머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지는듯했다. 이것이 어찌 막내이의 잘못이라. 어머니의 발목을 붙잡은것은 바로 광진이 자신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형님.》

막내이는 광진에게 말했다.

《제가 똑똑히 처신 못해서 어머니와 형님을 괴롭혔습니다. 떠받들어주고 칭찬해주는바람에 그저 똥똥 떠서...》

광진은 움쭉 몸을 일으켰다. 더 앉아 들을수 없었다.

《어머니, 내 상업관리소장을 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어머니는 따라일어났다.

《가서 너무 목소리를 높이지 말어라. 싸움이 되면 될 일도 안된다.》

광진은 밖으로 나섰다. 또다시 울리는 기관총사격소리같은 진동기소리. 그것이 지금은 그의 머리를 아프게 두드리는것 같다. 식씩거리는 증기소리... 《이거 나때문에 형님까지... 정말 이거...》

막내이가 뒤에서 분주히 따라오며 어쩔바를 모르고 중얼거렸다.

광진은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 동무때문이 아니요!》

그는 걸어가며 머리속으로 상업관리소장에게 말하고있었다.

《소장동무, 나는 동무가 아니라 나자신을 비판하려고 찾아왔소.

내가 바로 동무처럼 일했소. 아니, 그보다 더 했다고도 말할수 있소. 아래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제 손아귀에 그러쥐고있으려고만 했소. 그 사람자신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소. 자기에게 좋으면 그만이였고... 동무도 아마 이 건설기사청년을

사랑한다고 하겠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었소. 사랑한게 아니라 자기에 게 써먹으려고 했을뿐이요. 그것도 기동감을 서까래로! 제가 좋다고 1년, 2년, 3년...계속 끼고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소? 그 사람의 운명은? 나아가서 나라의 운명은?...》

《이쪽길로 가야 됩니다.》

막냉이의 말에 그는 옆길로 들어섰다.

《소장동무, 지금 우리 나라의 어머니들중에 자식이 어머니공양을 얼마나 잘하겠는가를 생각하는 어머니는 아마 없을거요. 그런데 우리 일군들이 어떻게 자기자신의 일만 생각해야 되겠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책임진 일군들이 아니요?》

우철의 얼굴이 다시 떠오른다. 헛되이 흘러간 3년, 실망에 잠긴 그 얼굴...

《용서하오. 우철동무!》

(65 페이지에서 계속)

《애들아!》

가슴빠근한 환희에 도취된 최창보는 물결을 헤가르며 거센 흐름의 한가운데로 들어섰다.

아카시아꽃향기가 물씬 코를 찌르는 어느날.

《혁신호》는 대형 집배 《번개호》를 달고 곧 출항하였다. 상선부두는 환송을 나온 수많은 사람들로 떠들썩 흥성거렸다.

어느때없이 정복차림을 단정히 한 최창보선장은 흐뭇하여 웨쳤다.

《기관장, 속도 높였!》

《혁신호》는 물오리떼를 하얗게 날리며 경쾌하게 내달렸다. 노상 싱글벙글하던 최창보는 눈섭을 쥘겼다.

《갑판장은 뭘하고있어?》

입을 헤 벌리고 서있던 갑판장이 큰일이라도 난 듯 소리쳤다.

《선장아바이, 변압기가 보이지 않아요.》

최창보는 조타실문을 열고 선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웬걸, 꽃가마같은 대형 집배가 동실 떠온다. 은구슬이 튀어오르는 배머리에 나란히 서있는 수옥이와 맹재길의 모습은 이채로왔다. 그때문인지 우람진 변압기는 잘 나타나지도 않았다.

최창보는 저들이 지금 무엇을 속삭이고있을것인가를 상상해보았다. 그러면서 더없는 행복감을 달콤히 맛보는것이였다.

《예? 우철이가 누구니까?》

막냉이의 의아한 반문에 광진은 자기가 저도 모르는사이 우철의 이름을 입밖에 내어 말했음을 깨달았다.

《우철이 ? 그런 사람이 있소! 자, 빨리 가시오.》

그는 성큼성큼 걸었다. 한걸음이라도 늦어지면 돌이킬수 없는 후회가 더 커질것만 같았다. 사실 그렇지 않은가.

이런 걸음이 늦으면 늦는 그만큼 나라의 귀중한 재부가 헛되이 소모될것이다. 이것이 어찌 우철이나 막냉이에게 한한 문제랴. 그것은 그들의 문제이기전에 광진의 문제, 상업관리소장의 문제, 광진이와 같은 일군들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광진은 더 빨리 걸음을 옮겼다. ...

이윽고 선단은 태끼바위앞에 이르렀다.

운봉언제의 취수구가 때맞춰 열렸는지 압록강은 갑자기 천군만마가 내달리는듯 함성을 지르며 기세좋게 사품쳤다. 이에 호응하듯 장자강도 와와 소리치며 흘러들었다.

함수목에서 두 강은 서로 얼싸안고 환희에 못이겨 춤을 추는것만 같았다. 격조높은 파문을 일으키며 천만 은구슬을 창공에 휘뿌리며 빙글빙글 돌아가던 푸른 물결은 서로서로 떠밀며 끌어당기며 힘차게 앞으로 내달렸다.

이 거세찬 흐름은 미구하여 발전소의 언제에 철철 넘치며 수력타빈을 돌려 붉은 번개를 일으킬것이었다.

오, 언제여 !

그 옛날 새각시를 태운 가마조차 중도에서 주저앉아 바위로 굳어졌다는 그 험한 길로 오늘은 꽃배를 타고 대형 발전설비들이 너를 찾아간다. 티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피끓는 심장의 고통을 변영하는 조국에 보태여주자고 이날 위해 땀흘린 미더운 청춘들이 함께 간다.

최창보선장은 엄마어울에 접어들면서 배고동을 울렸다.

붕!-

배고동소리는 압록강의 흐름을 타고 저 멀리 이땅에 솟아난 청춘언제에 높이높이 메아리쳤다.

아, 백두산

로진용

마치 두손 벌려 반가이 맞아주는듯
아, 넓은 품을 지닌 그대 백두산이여
이역의 이 아들은 스스럼없이 오르나니
한없이 자애로워라 어머니산이여

마치 천만대군을 거느리고 솟은듯
아, 천리수해속에 거연한 그대 백두산이여
아득히 뻗어간 조국산천 바라보니
더없이 위대하여라 어머니산이여

마치 푸르른 하늘 여기서 열린듯
아, 천지를 한품에 안은 그대 백두산이여
머리우에 맑은 정기 뿌리나니
끝없이 숭엄하여라 어머니산이여

수령님 자옥어린 불멸의 전장이여
친애하는 그이 태어나신 영원한 고향이여
온 누리가 우러르고 온 세상이 찾아오는
아, 조선혁명이 태를 묻은 어머니산이여

백두산, 백두산, 조선이 시작된 어머니산이여
오늘은 온 천지가 그대 슬하에 안겼나니
이역의 이 몸도 태를 묻고 가노라
넋이 되어도 돌아올 아, 어머니산이여!

-백두산에서-
(문예동 효고지부 총무부장)

200 일 낮 ! 200 일 밤 !

오필천

용접의 불광이는 런포벌
또 한기
석회로에 불을 지피고
첫 카바이드를 뽑아낸
높이 솟은 로대우에서
연공이 웨친다
-시간이여, 따라서라!

해쫄는 철산봉
한발파에 열흘일을 해제긴
쇠돌무지를 타고앉아
광부가 소리친다
-세월이여, 따라서라!

그 목소리에 시간이 따라선다
그 발걸음에 세월이 따라선다
시간을, 세월을 앞당겨
시대의 주인들이 달리는 이 땅

인연이 없어라
떨물에 뚫달고
밀물에 노 저으며
세월이 정해준 시간과도
무정하게 쫓아가던 그 세월과도

대건설행군의 나날들에
그 심장들이 창조한 시간은
세기를 비약한 《70 일전투속도!》
세월을 경탄시킨 《서해갑문 건설속도!》

당의 편지를 가슴에 새기고
9 월의 대축전장으로 가는
시련의 언덕들을
우리 당과 함께 헤쳐넘을
불을 안은 그 심장들이
다시 또 새로운 속도를 창조해가는
200 일 낮!
200 일 밤!

한세기의 위훈의 노래로도
한력사의 영웅담으로도
다 자랑해줄수 없는
200 일 낮!
200 일 밤!

아, 우리의 이 시간은
이제 이 땅우에 태어날
《80 년대속도》
《200 일전투》의 나날이
다 노래해주시라!

혁명의 전위-3 대혁명소조원들의 성격창조를 위하여

박영래

우리 시대의 참다운 인간전형을 감동적으로 인상깊게 그려내려는것은 작가라면 누구나 간직하고 있는 한결같은 마음이다.

이러한 욕망은 당의 로선과 정책이 구현되고있는 벽찬 현실속에서 새형의 인간전형을 찾아내고 그들의 숭고하고 아름다운 풍모를 깊이있게 그려낼 때라야 비로소 실현되게 된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을 위하여 당중앙이 파견한 3대혁명소조원들은 온 사회를 혁명적 기백으로 차넘치게 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전환을 가져오도록 하는 우리 시대의 참다운 인간전형이다.

3대혁명소조운동이 발단된 때로부터 우리 문학은 3대혁명소조원들의 성격창조에 탐구적 힘을 기울여왔다.

그리하여 우리 문학의 자랑스러운 주인공들속에는 김준오(단편소설 《해빛을 안고온 청년》 리종렬, 《조선단편집》 3), 영희(단편소설 《혁명전위》 성혜랑, 단편소설집 《혁명전위》), 채숙(영화문학 《청춘의 심장》 리춘구)을 비롯하여 혁명의 전위인 3대혁명소조원들의 감동적인 형상이 웅당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명호동무에겐 물러설 자리가 있었지만 나에겐 없었어요. 왜냐면 전 당중앙이 직접 파견한 3대혁명소조원이기때문이에요. 이제 저마저 물러나면 사람들은 <3대혁명소조도 뒤걸음친다>고 말할거예요. 소조가 뒤걸음치면 혁명이 뒤걸음쳐요.》

3대혁명소조가 뒤걸음치면 혁명이 뒤걸음친다는 이러한 높은 자각을 안고 누구도 몰래 회생을 무릅쓰고 위험한 실험을 수행하고야마는 영화문학 《청춘의 심장》의 주인공 채숙의 형상은 주체형의 혁명가는 어떻게 혁명앞에 순결해야 하며 우리 시대 청년들의 참된 삶의 보람과 영예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에 심오한 예술적 해답을 줌으로써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지울수 없는 인상을 남기고 있다.

바로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작품은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청년지식인들, 참된 혁명전위들의 심장이야말로 항일의 피바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충성심을 이어받은 심장이며 적의 화구를 가슴으로 막으며 《나를 조선로동당원으로 불러달라》고 웨치던 영웅전사들의 가슴속에 맥박치던 그런 불타는 청춘의 심장이라는것을 밝혀냄으로써 만사람의 심장을 격

동시키며 사람들을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혁명의 길로 힘있게 고무하고있는것이다.

이처럼 우리 문학은 지난 기간 3대혁명로선을 받들고 앞장서나가는 혁명의 전위-3대혁명소조원들의 형상을 시대적 전형으로 빛나게 창조하였다.

그러나 몇몇작품들을 제외하고는 3대혁명소조원들의 형상이 그리 큰 인상을 남기지 못하고있다.

최근년간에는 3대혁명소조원들의 생활을 반영한 작품들이 매우 드물게 창작되고있는 형편이다.

이렇게 되는데는 3대혁명소조원형상이 어렵고 힘들다는데로부터 웅당한 작가적 탐구를 앞세우지 않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이 발기한 3대혁명소조운동은 혁명적군중로선으로부터 출발한것이며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한것입니다. 우리는 당, 국가, 경제기관 일군들과 근로단체일군들, 과학기술일군들과 청년인테리들을 망리한 큰 규모의 3대혁명소조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파견함으로써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우가 아래를 더 잘 도와줄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실천활동을 통하여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확증된 3대혁명소조운동을 계속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강령적 과업을 제시하면서 3대혁명소조원들이 3대혁명의 전위, 투쟁의 기수로서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일것을 강조하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3대혁명소조운동이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오늘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끊임없는 혁신이 일어나고있다.

이 혁신의 앞장에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혁명의 전위-3대혁명소조원들이 서있다.

바로 이러한 소조원들의 형상을 더욱 다양하고 깊이있게 창조한 훌륭한 작품들을 더 많이 써내는것은 오늘 우리 작가들에게 맡겨진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다.

3대혁명소조원들의 형상을 발전하는 현실의 시대적 요구에 맞게 보다 높은 차원에서 훌륭히 창조하기 위하여서는 이 주체작품의 철학적 깊이를 보장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철학적 깊이를 보장하는것은 문학예술작품의 정치사상적 성격과 예술적 가치를 규정하며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하는 근본담보로 된다.

작품의 철학적 깊이는 무엇보다먼저 종자의 철학적 무게, 사상의 철학적 심오성, 사회적 문제의 예리성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다. 다시말하여 작품의 종자가 심각한 인간문제, 사회정치적 문제를 안고있을 때에만 철학적 깊이를 보장할수 있다.

영화문학 《청춘의 심장》은 이러한 탐구를 매우 높은 수준에서 해결하였다.

작품은 배수리체제를 철저히 세울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는데서 제일 걸리고 있는 수입원료를 대신할수 있는 국내산원료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투쟁을 기본으로 하고있다.

작품이 제기하고있는 기본주제사상은 결코 어떠한 기술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청춘의 심장은 무엇을 위하여 고동쳐야 하며 삶의 참다운 보람과 청춘의 영예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 다시말하여 주체형의 혁명가의 정치적 생명에 관한 문제였다.

이처럼 심각한 문제, 인간문제를 제기하고 작품은 그것을 3대혁명소조가 뒤결음치면 혁명이 뒤결음친다는 높은 자각을 안은 주인공 채숙의 형상을 통하여 훌륭히 해결하고있다.

그런데 최근년간에 창작발표된 일부 소설작품들을 살펴보면 이처럼 심오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있다.

단편소설 《새 일터》(김정남)와 《별들이 찬란한 밤》(김승도)을 놓고 봐도 그렇다.

단편소설 《새 일터》는 벨트콘베아상선기를 항에 도입하는 이야기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3대혁명소조원은 항에 파견되어 사업을 료해하는 과정에 상선기를 도입하는 문제를 놓고 사람들의 생각이 제가꿈이라는것을 알게 된다.

소조원은 《한줄기한줄기 제갈래로 흘러가고있는 강물을 하나의 지향속에 대하의 흐름으로 흘러들도록 할》 결심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기술적 난관을 극복함으로써 사람들의 생각이 한몫으로 흐르게 되어 상선기가 도입되고 항은 새 일터로 전변되었다는것이다.

이것이 작품의 기본문제이며 작가가 독자들에게 주려고 하는 기본사상이다.

보는바와 같이 작품에는 인간의 삶과 그 운명개척에 대한 생활철학을 새롭게 체득할만한 깊이가 주어져있지 못하다.

작품의 철학적 깊이에 관한 문제가 생활의 리치를 깊이있고 심오하게 밝혀주는 문제라고 할 때 문제제기부터 그 깊이가 없다보니 읽어볼 재미도 없을뿐더러 간혹 읽는다 해도 독자들 자신이 생각할수 있는것외에 다른것은 아무것도 없다.

마땅히 작가는 3대혁명이 벌어지고있는 장엄한 현실생활을 보여주면서 거기에서 생활의 진리를 파헤칠수 있는 심오한 문제를 제기해야 했으며 생활속의 진리를 정확히 들여다보고 그 본질을 밝혀낼수 있는 작가다운 분석력과 안목으로 그 모든것을 인간의 운명개척문제와 밀착시켜 보여주었어야 했다. 그래야 독자들이 3대혁명소조원의 활동과 품모을 통하여 소조운동을 현명하게 령도하는 우리당의 위대성을 뜨겁게 느낄수 있고 3대혁명수행의 길에서 자기의 참된 삶과 보람을 찾을 각오를 가지게 할수 있을것이다.

혁명하는 사람은 별무리에서 떨어지는 별씨가 되지 말고 밤하늘에 찬란히 빛나는 별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심장한 문제를 제기하고있는 단편소설 《별들이 찬란한 밤》은 《새 일터》와는 달리 어느 정도 작가의 탐구와 사색이 엮보이는 작품이다.

그리고 주인공을 비롯한 인간들의 정치사상적, 문화도덕적 관계를 깊이 보여줄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있다.

그런데 작품은 주인공인 3대혁명소조원과 그와 맺어진 인간관계를 깊이있게 보여주지 못하고 형상적 소개에 그침으로써 3대혁명의 앞장에서 나가는 소조원의 시대적 성격을 옹게 보여주지 못하였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듯이 좋게 제기한 문제도 주인공의 성격형상을 통하여 구현되어야 알찬 열매를 맺을수 있다.

작품의 철학적 깊이는 주인공의 성격형상을 통하여 보장된다. 그런데 시대를 안은 인간-3대혁명소조원의 높은 정신세계에 대한 탐구가 없이 어떻게 작품의 사상적 내용의 심오성을 생각할수 있겠는가.

제아무리 심오한 문제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벅찬 시대를 안은 소조원의 성격이 탐구되지 못하면 작품의 철학적 깊이를 보장할수 없다.

모든 문학예술작품 창작에서와 마찬가지로 소조원들의 형상창조에 바쳐지는 작품들도 철학적 깊이가 있어야 볼 재미도 있고 사람들을 3대혁명수행으로 힘있게 고무할수 있다.

3대혁명소조원들을 형상한 작품을 보다 훌륭히 창작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다른 하나는 그들의 성격적 특성을 옹게 밝혀내는것이다.

3대혁명소조원들의 생활을 그린 작품에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로 나르고있다.

소조원들도 우리 문학이 그려야 할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이라는 점에서는 우리의 현실속에 살고있는 이여의 긍정적 주인공들과 다른 점은 없다.

그러나 그들은 사상, 기술, 문화 혁명수행을 지도하기 위하여 파견된 혁명의 전위이며 3대혁명수행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서서 싸워나가는 투쟁의 기수들이다.

바로 여기에 그들도 다같이 우리 시대의 새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이면서도 다른 인간들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

당정책의 철저한 옹호자, 관철자들인 3대혁명소조원들은 3대혁명의 붉은 기발을 들고 전진하는 대오의 앞장에서 투쟁의 기수가 되고 돌격의 나팔수가 되며 어려운 일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진격로를 헤쳐나가며 자기의 실지행동으로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당정책관철으로 조직동원하는것을 사업과 생활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있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우리 당의 인민적 사업작품을 지니고 대중과 혼연일체가 되며 늘 인민대중속에서 허심하게 배우고 겸손하고 소탈하고 레절있게 행동하며 인민의 참다운 충복답게 일해나가고있다.

3대혁명소조원들에게 있어서 소조활동기간은 로동계급과 농민대중 속에서 배우고 체험하며 단련하는 매우 귀중한 기간이다.

때문에 그들은 학습과 조직생활을 강화하여 자신을 수양하고 단련할뿐아니라 실천을 통하여 로동계급의 뜨거운 충성심과 높은 계급의식,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 불굴의 투쟁정신을 배우고 자신의 사상정신적 풍모를 부단히 완성해나가고있다.

3대혁명소조원들의 이러한 특성을 깊이있게 밝혀내야 다른 긍정인물이 아니라 우리의 3대혁명소조원, 현실에서 사는 구체적인 생동한 혁명전위의 인상깊은 형상을 옹게 그려낼수 있다.

단편소설 《혁명전위》의 주인공 영희가 독자들의 기억속에 오래동안 인상깊이 남아있는것은 다름아닌 혁명전위로서의 성격적 특성이 옹게 그려졌기때문이다.

소설에서 보는바와 같이 어느 신발공장에 3대혁명소조원으로 파견된 주인공 영희는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할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하여 직장장의 자리에도 서보고 생산자의 립장에도 서본다.

그러나 그는 《로화고무》라고 덮어놓고 쓸수 없다고 하면서 손쉽게 생산을 높이려는 만수직장장의 립장이 자기분위적인 사업방법과 보수주의적인 사업태도라는것을 알게 된다. 소설은 만수직장장의 자기분위적이며 보수적인 사업태도에 대한 소조원의 속생각을 드러내는 심리묘사를 이렇게 하고있다.

《이 순간 번개같이 영희의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류체속에서 류체의 속도를 따르지 못하는 인자는 마찰을 일으키는 법이지. 그것이 급류일수록 마찰은 더 큰거야. 그건 곧 저항으로 되지.)

그렇다. 우리의 대진군은 충성의 급류이다. 이 급류속에서 충성이 모자라는 인자는 저항이 된다.

모색끝에 흐름과 저항의 리치를 생각해낸 영희는 가슴이 후련하고 눈앞이 밝아지는것 같았다.

영희는 오늘의 대진군속에서 만수자신이 어떤 인자로 되어있는가를 그에게 일깨워주고 도와주어

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에 뒤따르는 자기 우위성을 처음으로 느꼈다. 그는 비로소 자기 사명을 깨달은것 같았다.》

시대의 전진속도를 따르지 못하는 직장장을 류체속에서 류체의 속도를 따르지 못하는 인자에 비교한 묘사는 소조원의 성격적 특성을 얼마나 뚜렷하고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는가.

소설의 이 심리묘사는 소조원이 청년지식인이라는것과 소조원의 기본사명에 대하여 알수 있게 할뿐아니라 그가 만수직장장을 어떻게 돕고 이끌어주리라는것까지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의 일부 소설들은 3대혁명소조원들의 성격적 특성을 뚜렷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리상화함으로써 작품의 품위를 낮추고있다.

우리의 소설들에는 3대혁명소조원이라면 모든것을 너무나 다 잘 아는 만능의 인간으로 사업과 생활에서 완성된 인간으로 형상화되고있다.

물론 소설의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3대혁명소조원은 작가의 미학적 리상을 대변하는 인물인 까닭에 우리 시대의 높은 지향을 체현하고있는 긍정적인 인물로 형상화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을 결코 완성된 인간, 만능의 인간으로 그려야 된다는것은 아니다.

3대혁명소조원도 생활에서 잘못 생각하는 때가 있을수 있으며 그래서 고민도 하고 사업방법과 생활경험이 어리어 모대기는 경우도 있을수 있다. 또 공부정을 예리하게 갈라볼줄은 알아도 몸에 배지 않은 해당 부문의 생산기술적 문제를 비롯하여 구체적인 실무적 문제들을 잘 모를수 있다.

이것이 현실에 사는 인간들의 생활일것이다. 고민도 없고 막히는 일이 없으며 오직 다 잘 알고 제기되는 문제를 척척 처리하는것으로 그려야만 3대혁명소조원의 전형적인 형상이 창조되는것은 아니다.

중요한것은 3대혁명소조원답게 일하며 생활하려고 하며 3대혁명수행에서 앞장서 나가려는 그들의 높은 리상과 지향을 옹게 보여주면 될것이다.

3대혁명소조원들도 혁명화, 로동계급화되는 길에 있는 사람들이며 바로 3대혁명소조운동을 통하여 자신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는것이다.

이러한 생활과 그 과정에 드러나는 구체적인 심리와 감정을 여러 측면에서 그려야 현실에서와 같이 생동한 3대혁명소조원의 시대적인 성격을 창조할수 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바와 같이 타고난 혁명가란 없으며 완성된 혁명가도 없는것이다. 투쟁과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성장발전하여가는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활이다.

바로 이 생활의 론리를 어기면 성격은 리상화되고 작품은 진실성을 잃게 되는것이다.

3대혁명소조원의 성격을 단순화하며 생활을 메마르고 딱딱하게만 그려놓는데 대하여서도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거의다 청년지식인으로서 생기발랄하며 진취성이 강하다. 우리들이 현실에서 만나게 되는 3대혁명소조원들의 이러한 특성도 문학형상에 생동하게 구현해야 한다. 그래야 3대혁명소조원의 성격형상은 현실에서 보는 산 인간처럼 생동하게 형상화될 수 있다.

물론 어느 작가나 3대혁명소조원의 생활을 그리면서 그들의 성격을 단순화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3대혁명소조원을 그리면서 사상, 기술, 문화 혁명 수행을 지도하기 위하여 당중앙에서 파견한 지도성원이라는 측면만 강조하면서 그들의 리상과 포부, 구체적인 심리와 감정세계를 여러 측면에서 그려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딱딱하고 메마른 인간으로밖에 될 수 없다.

백남룡의 단편소설 《첫생활에서》의 주인공인 소조원의 형상도 여기에서 예외로 되지 않는다. 사업에서는 언제나 티각태각하기가 일쑤인 직장장과 보이라기관장, 여기서 3대혁명소조원은 그들사이의 틈을 메꾸어주기 위해 급급하지 않으면 안된다. 타이르고 비판하고 종당에는 희생성까지 발휘하고...

이러한 소조원의 모든 행동은 옳지만 사랑이 가지 않으며 다감하고 생기발랄한 인간으로서 안겨오지 않는다.

이것은 산 인간의 구체적인 심리와 생활감정세계를 보여주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다.

3대혁명소조원들의 성격의 단순성을 극복하고 사상과 감정에서, 사고와 행동에서 언제나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존재로 생동하게 그려내는것은 현시기 우리 소설작품들이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절실한 문제이다.

3대혁명소조원들의 형상을 보다 훌륭히 창조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도식과 유형을 결정적으로 극복하는것이다.

우리의 창작실천행정을 살펴보면 3대혁명소조원들의 생활을 반영한 소설작품들은 유감스럽게도 독창성이 덜 느껴지고 어수비수한 점들이 적지 않다.

그것은 무엇보다 소설의 줄거리조직에서 심하게 나타나고있다.

소설의 줄거리조직은 작가가 현실에서 골라잡은 특색있는 작품의 종자를 꽃피우기 위하여 필요한것이다.

따라서 작품마다 종자가 다르고 반영하는 생활이 같지 않으며 또한 그것을 형상하는 창작가들도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지고있기때문에 소설의 줄거리가 같아질 근거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작실천과정은 왕왕 생활 소재도 다르고 종자와 주제사상도 같지 않은 작품

을 창작하면서 틀에 박힌 류형적인 줄거리조직을 답습하고있는탓으로 하여 새롭고 특색있는 형상을 창조해내지 못하고있는 경우가 드문하다.

우리는 어느 제련소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이 일군들을 도와 기술혁신의 앞장에 서서 굴뚝직장에 남아있는 유해가스와 먼지를 말끔히 없애는 희생적인 소조원의 형상을 기억하고있다.

3대혁명소조원 김준오가 제련소에 파견되어 료해하여보니 굴뚝직장에서만은 로동자들이 유해로운 가스와 먼지봉당에서 일하고있었다.

굴뚝직장에 있다가 지배인으로 일하는 엄영선 지배인의 그릇된 사상관점에 전적으로 기인된것이였다.

일깨워도 주고 비판도 하고... 끝내 소조원은 생명을 위협하는 연도에 들어가 해결방도를 찾아내고 굴뚝직장의 유해가스와 먼지를 없애버린다.

엄영선지배인과 유성학기사는 여기에서 커다란 감동을 받게 되며 자기들의 그릇된 사고관점을 고치게 된다.

이것은 리종렬의 《해빛을 안고 온 청년》의 간단한 줄거리다.

이 작품의 줄거리는 작가가 독창적으로 골라잡은 종자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의 앞장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소조원의 형상을 통하여 기술혁명의 시대에 3대혁명전위인 소조원이 일군들을 어떻게 돕고 이끌며 투쟁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예술적 해명을 줄수 있도록 잘 짜진 줄거리조직이다.

그런데 이와 엇비슷한 줄거리가 그 이후에 소조원들의 생활을 반영한 소설들에서 자주 나타나고있다.

단편소설 《첫생활에서》가 그러하며 《별들이 찬란한 밤》과 《새 일터》가 그러하다.

상기 작품들은 신중히도 소조원의 실례를 료해하는 과정에 기술혁신이 일군들의 요령주의, 무책임성, 주인답지 못한 태도를 비롯한 낡은 사상때문이라는것을 알게 되며 다음에는 결함을 고치도록 비판하고 실천적 모범으로 기술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일군들의 낡은 사고관점이 개조되는것으로 이야기줄거리가 되어있다.

특히 작품의 절정은 어느 작품이거나를 불문하고 소조원이 희생을 각오하고 누구도 모르게 위험한곳으로 들어가는 영웅적인 행동을 보여주고있는바 《첫생활에서》는 보이라직장의 《재굴》속으로 《새 일터》에서는 바다로 뻗은 벨트콘베아를 타고나가는것으로 그리였다.

사실상 이것은 단편소설 《해빛을 안고 온 청년》에서 소조원이 유해가스가 가득차있는 관속으로 들어가는것과 별로 다른것이 아니며 그의 변종일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설정은 실례를 든 상기 작품들의 예도 적지 않은 작품들에서 찾아볼수 있다.

과연 이러한 설정만이 일군들을 돕는 3대혁명 소조원들의 생활을 그리는것으로 되겠는가.

물론 현실에 요령주의, 형식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 요소가 남아있는 조건에서 이것을 응당 비판해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소설의 줄거리가 갈아질수는 없다. 이어간에 소조원들은 여러차례나 바뀌었다.

그리하여 현실에서는 지난날 소조생활을 한 청년지식인들이 우리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수많은 일하고있으며 새세대소조원들은 선배들이 3대혁명수행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그들처럼 당과 수령께 기쁨드릴 큰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있는것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 대건설행군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우리의 현실이며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대중적 운동으로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는 3대혁명소조원들의 생활인것이다.

그런데 우리 소설들에는 소조운동의 첫시기를 반영하여 창작된 작품의 이야기줄거리가 구태의연하게 변성명을 하고 아직도 나타나고있다.

생활이 다양하고 인간들의 성격이 개성적인것만큼 소설에 그려지는 인물성격이나 줄거리자체도

비반복적이고 개성적이어야 형상의 진실성과 생동성을 보장하고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줄수 있다.

감동도 없고 교훈도 주지 못하는 따분한 소설을 읽어달라고 강요할수는 없는것이다.

독자들은 항상 새로운 소설을 대할 때마다 이미 세상에 나온 그러한 류형의 작품이 아니라 새로운 인상을 주고 흥미를 주는 예술적 형상, 작가들의 개성이 뚜렷이 나타나는 독창적인 형상수법을 볼것을 기대하며 바라는것이다.

그러자면 작품의 종자도 새롭고 그 형상수법도 새로와야 하며 성격과 인간관계도 새로와야 한다.

현실에 살고있는 인간들의 구체적인 형상을 그려야 참으로 독특한 개성을 가진 3대혁명소조원의 인상깊은 형상을 창조할수 있을것이다.

3대혁명소조원들의 형상을 보다 훌륭히 창조하는것은 매우 절박한 시대적 요구로 나서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3대혁명소조원들의 형상을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창조한 훌륭한 소설들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200 일전투에 펼쳐나선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더욱 힘있게 고무해야 할것이다.

영원한 흐름

백일호

흙이 타고
바위가 튀던
조국의 고지에
포연이 걸히자

아름다웠다
계곡에 불타던 물 신기로웠다

맑고 깨끗한 흐름우에
병사의 모습이 병실거림이

흐리울수 없는
그 뉘의 눈동자인듯
수호자의 가슴속에 끓을 잡은
영원한 흐름이어

곡식의 뿌리는 땅만이 자래우듯...

리종덕

곡식을 가꾸는 레사로운 순간에
문득 느껴오는 생각이 있나니
곡식의 뿌리는
땅만이 자래운다

취여보면
어머니젖가슴처럼 부드럽고
내 살결처럼 검붉은 흙
너만이 곡식의 뿌리를 내려주누나

진주보석속에 묻어도
씨앗은 움터나지 않으리
황금의 더미에 심어도
잎은 피어나지 못하리

오, 어머니 내 조국의 품이어
씨앗은 진주보석속에 묻어도 움터나지 못하듯이
나도 내 조국밖에는 한치도 없어라
내 삶의 뿌리를 안아
잎피워주고 꽃피워줄곳은

소조원의 붉은 수첩

로정법

3 대혁명소조원에 대한 글을 써달라는 편집부의 청탁을 받고보니 문득 영천농장에서 만났던 김성숙 동무가 생각난다.

그에게는 붉은색 뚜껑을 한 작은 수첩이 있었다. 대학시절, 외국어단어를 외울 때처럼 그가 늘 들고 다니던 그 수첩에는 영천리의 수백명 농장원들의 이름과 그보다 몇배나 되는 가족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성숙동무가 농장에 와서 해놓은 일은 수없이 많다. 하지만 나는 짧은 이 글에서 그가 해놓은 큰일들보다도 3년전 그를 만났던 때의 첫 인상만을 적어보려다.

그날 나는 농장 축산반 소여물가마앞에서 그를 만났다. 아궁에 장작을 듬뿍 밀어넣고 앉아서 《박순탄, 박미화》하며 수첩을 들여다보고있던 성숙동무는 수첩게 웃으며 나를 맞아주었다.

알고보니 순탄이와 미화는 5 작업반에 있는 박응세로인네 손자 손녀인데 성숙동무는 그날 오후사업의 첫 순서로 응세로인을 만날 계획이라고 하였다.

《무턱대고 마주앉기보다 뭘 좀 준비해가지고 만나야 하지 않겠어요?》하며 성숙동무는 웃었다.

응세로인은 칠순이 가까와오지만 해마다 매우 질이 좋은 부식퇴비를 100여톤씩이나 받아내고있었다. 말이 쉽지 그것은 트랙토르에 실어도 50차에 가까운 막대한 양이다.

5 반사람들의 말을 빌면 로인은 그것을 달구지에 싣고 술술 《별로 힘들지 않게》 한다고 했다.

사람들이 그 경험을 좀 듣자고 하면 《농사군이란게 두엄을 어떻게 받는지 몰라서 묻나?》하고 두마디안팎에 면박을 주었다. 성미가 참 피뻘한 로인이어서 언제인가 성숙동무자신도 취재온 방송기자를 데리고 그를 찾아갔다가 그런 무안을 당했다고 한다.

하지만 오늘은 어떻게든 로인을 잘 구슬려서 저녁에 열리는 농장원결기모임에서 토론을 시켜볼 결심이었다. 그렇게만 되면 다른 사람의 백마디연설보다 더 실속이 있을것이고 《거름원천이 어땠소.》, 《큰소리 쳐야 우리 농장 실정은...》하는 일부 초급일꾼들과 농장원들의 그릇된 인식을 깨치는데 좋은 약이 될것이었다.

천성이 무뚝뚝하고 피뻘하지만 손자, 손녀에게는 오금을 못편다는 로인이라는것을 알고있는 성숙동무는 지금 돌도 안된 소녀의 이름을 상기하며 응세로인한테로 《똥고 들어갈 쫄새기》를 찾고있는 중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3 대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3 대혁명소조성원들의 지도방법과 사업작품에 크게 달려있습니다. 3 대혁명소조성원들은 군중속에 들어가 생활하며 그들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사업하여야 합니다.》

양지바른 언덕아래 아담한 문화주택들이 도시부럽지 않게 늘어진 마을로 우리는 함께 갔다. 펍오랜 느티나무에서 깍깍거리는 까치들을 바라보던 성숙동무는 나에게로 얼굴을 돌리였다.

《늙은이들은 보통 <아바이 안녕하십니까?> 하고 말하는것보다 <순탄이 할아버지, 그새 편안했습니까? 군데나간 창호동무가 입당을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참 기쁘시겠습니까.> 하는 식으로 인살해야 더 좋아한답니다.》

성숙동무는 웃으면서 하는 말이지만 나는 웃음으로 스칠수가 없었다. 인사말 하나에서도 대중속으로 깊이 들어가기 위한 성숙동무의 사색을 느꼈기때문이었다. 말 한마디에 백만대군을 휘어잡는다는 격언도 있지 않는가.

농장원들은 당중앙에서 과전된 3대혁명소조원이 자기네 가정형편을 손금보듯 하고있을뿐만 아니라 탁아소에 다니는 손녀의 이름까지 알고있다는것을 펍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렇게도 고마와한다.

로인들뿐이 아니다. 소조원이 평범하게 불려주는 한사람의 이름까지도 농장원들한테는 기쁨이 되고 고무가 된다. 그리고는 자기들의 속심을 스스로 없이 더놓으며 힘을 내서 일한다. 그렇기때문에 당에서는 사람과의 사업을 하는 일군은 먼저 사람의 이름부터 알고 성미, 취미, 지향 등을 손금보듯해야 한다고 가르치고있다.

얼마나 깊은 뜻이 담긴 가르침인가! ...

사람들은 소조원이 자기한테 건지는 한마디의 인사말에서, 자기의 인사를 받는 소조원의 태도와 얼굴표정에서도 자기를 보며 자기 생활을 검토하며 자신을 스스로 평가한다.

소조원이 웃으면 그들도 웃는다. 소조원이 자신 있어하는 눈치면 그들은 팔을 부르짖고 달려든다.

소조원이 어느 한쪽 귀퉁이를 잡고 같이 들어주는 눈치면 그들은 백배의 힘을 낸다.

그런 소조원, 그런 혁명의 기수가 되자고 성숙동무는 사색하고 또 사색하며 자신을 그런 높이에 세워놓고 채찍질한다.

그런 성숙동무이기에 농장에 온지 두달이 지난 짧은 기간에 수백명의 농장원들은 물론 그 가족들의 이름까지 거의나 알고있다.

《한농장안에도 같은 이름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영희라는 이름은 무려 여섯이나 된답니다.》하며 그는 웃었다.

《그 여섯 <영희>가운데는 예순이 지난 늙은이도 있고 과수반장동무처럼 남자가 있답니다. <어느 영희말이요?> 하고 물으며 웃을 때가 많아요.》

손으로 입을 가리웠던 그는 인차 정색하였다.

《그래서 늘 이 수첩을 들고다니지만 외국어단어처럼 줄줄 외워만 가지고는 다 알수 없는것이 사람의 이름인가보아요. 미화, 옥화, 장철이 하는 이름들에도 자기 교유의 생김새와 성격과 희망, 자기 나름의 생각이 있는것이 아니겠어요. 그걸 잘 알아야 소조원구실을 제대로 하겠는데 난 아직 멀었답니다...》

그때로부터 3년이 지나 나는 다시 영천농장을 찾았는데 성숙동무는 이미 소조기간을 마친뒤였다.

어느 농장의 신망있는 일군으로 자랐다고 한다.

허나 영천리 사람들은 지금도 그를 출가한 만팔처럼, 언니와 누나처럼 그를 제집 식구로 생각하고 있었다.

사람들의 기억속에 사라지지 않고 좋은 추억을 남기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인간이 아니겠는가!

나는 오늘도 성숙동무를 생각할 때마다 그가 늘 보물처럼 들고다니던 붉은색 뚜껑의 수첩을 생각한다. 언제나 군중들속에 살면서 그들 한사람한사람을 모두 우리 당의 사상으로 무장시키고 사회주의 농촌체제 완성의 길로 이끌어다가던 김성숙동무의 티없이 맑고 아름다운 얼굴이 그 붉은 수첩에 어려 있는것만 같아서...

영웅이 돌아온 밤

림공식

두등실 솟아오른 보름달
유난히도 밝게 비치고
청아한 개구리소리
노래처럼 정답게 울리는 밤

밤이 깊도록
밤이 지새도록
무훈담 끝없을 마당가엔
모락모락 모기불이 타오르고
명석도 널찍이 펼쳐졌는데

-어쩌면 저이두...
젊은 안해의 수집은 시선을 받으며
전장에서 돌아온 영웅전사
고향집 얼룩소와 마주앉았네

정겨웁게
소잔등을 쓰다듬으며
듬뿍듬뿍
맛좋은 꼴도 끌라주며

래일은
이른새벽
채등꼴로 나가잔다
밭목이 시도록 밭목이 시도록
사래긴 밭이랑을 다 밟아보잔다

-어쩌면 저이두...
저리도 어질고 순박한이가
싸움터에서 용맹했을가
나라에 소문난
어엿한 영웅이 되었을가

아, 모르리
젊은 안해 다는 모르리
그 포연탄우속에서도
장군님 주신 발머리에
홍겹게 울리던 소방울소리 못잊어
총가목 억세게 틀어잡던 그 마음

한밤이 깊도록
영웅의 금별이 희한해
통방울눈 데룩데룩
얼룩소도 잠못드는 밤

고향의 밤
우리네 영웅전사
얼룩소와 마주앉아
끝없이 나누는 마음속 그 기쁨은
피로 지킨 땅이 있어
주인된 권리도 있다는 행복이었네

사는 보람

김창희

1

상쾌한 아침이었다. 부드러운 새벽안개가 살진 논밭을 정겹게 쓰다듬으며 피어오르고 백양나무우듬지에서 까치가 반갑게 짹짹거렸다.

이 아침의 기쁨을 까치가 물고왔는지 아니면 둥구둥구 떠오르는 아침해가 안아올려 해살처럼 뿌려주고있는것인지 ... 령상모판 울바자안에서 갑자기 환희와 탄성이 터져올랐다.

《애들아, 령상모가 나왔어 !》

《어디 어디... 아이 요것들, 뽀족뽀족 키돋웁하누나.》

《파릇파릇 옷을 입고 깜찍하게 서있네 !》

화려한 꽃수건들이 모판의 비닐박막앞에서 춤추듯 움직였다.

(참새처럼 또 고아대기 시작하는군...)

장급단은 사이바람막이바자너머로 그들을 바라보며 골살을 찌르렸다. 모두가 세상에 나서 벼모를 처음 보는것 같다. 하기는 지난해에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농장에 나온 그들이니 금시 돌아나온 벼모 보기가 처음일제다.

장급단은 농사나이가 서른에 가깝지만 그들은 아직 돌도 채 못되였다. 그러한 철부지들을 누룽재 모판에 배치해서 아연했는데 기가 막힌 일로 장급단이라도 누룽재로 떠밀렸다. 병아리들을 품은 어미 닭이 된것이었다. 그런데다 지난해에 그 혼자 말아서 줄대같은 모를 길러낸 (총화때 그는 희한한 웃감을 상으로 탔었다.) 재안모판이 올해에는 그와 척을 진 돌이엄마에게 안겨졌다.

참으로 일은 맹랑하게 되였다. 지난해와 같은 칭찬과 상은 바랄수도 없었고 오히려 그 상이 돌이엄마에게 안길수 있게 된것이었다.

그러니 어찌하겠는가... 농대모표를 달고 지난해 가을에 새로 파견되어온 골방샘님같은 소조원이 처녀애들을 키워야 한다면서 짜고든 일이니 어찌는 도리가 없다. 성난 암탉처럼 날개를 쭉 퍼들고 병아리들을 품을수밖에...

《소조원이 왜 아직 나오지 않을까?》

셋중에서 그중 일손이 여물고 새침한 선옥이가 소조원을 찾았다.

《정말 소조원이 벼모가 나온걸 보면 얼마나 기뻐할가 !》

《늘 우리보담 먼저 나왔었는데...》

《...》

《애들아, 우리 모판을 모두 돌아보자. 벼모가 다 나왔나말이야.》

수수대처럼 키가 설렁한 순월이가 감질이 나는 소리로 의견을 냈다.

《응 그래... 소조원은 무엇이나 우리 눈으로 보구 리치를 깨쳐야 한다고 했어.》

선옥이는 여전히 소조원 얘기다. 하면서도 장급단이에 대한 소리는 혀끝에도 한번 올리지 않는다.

그런데 비위상하는 일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뭘 풋내기들 같은게 모판을 조사하겠다고?》

쩍하면 어른들의 흉내를 내어 웃음판을 터쳐놓는 경실이가 장급단이처럼 거드름스레 말하며 허리를 쪼고나섰다.

《너희들이 백번 보는것보다 내가 한번 보는게 나아, 도대체 뭘 안다구... 그저 시키는대로 하면 돼. 알아들었나?》

《호호...》

《막내어머니 신통하구나 호호.》

짹짹그르... 웃음이 터쳤다. 참새무리가 돌개바람에 휘말리는 락엽처럼 백양나무에서 풍겨나며 날아올랐다. 깔깔깔... 웃음은 여전히 그칠줄 몰랐다.

《잘한다. 웃고 떠드는것이 모판관리인줄 아느냐, 여기 모였!》

처녀때 로농적위대 부소대장을 하였으며 걸찬 목소리로 대렬보고를 멋지게 하여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 큰 자랑거리인 장급단은 모판이 쨍하게 구령을 쳤다. 웃음소리는 채찍에 맞은것처럼 딱 그치였다. 그런데 경실이는 구령을 기다리거나 한듯 차렷하며 맞받아 소리쳤다.

《알았습니다 !》

순월이는 키득 웃었다. 선옥이는 이쪽을 힐끔 보더니 눈을 푹 부릅뜨고 서있는 장급단이와 눈길이 마주치자 찔끔하며 목을 움츠렸다.

《막내어머니, 모가 나왔어요 !》

경실이가 웃음을 싹 가시고 진지한 얼굴로 달려왔다.

《너희들이 알려주지 않아도 내 눈으로 봤다.》

장급단이의 목소리는 거칠고 무뎠었다. 그런데도 능갈이 여간 아닌 경실이는 해죽해죽 웃기까지 하며 다가들었다.

《모가 정말 잘 나왔지요?》

장갑단은 못들은척했다. 상대를 하엿다가는 어느결에 엇가락처럼 녹아들며 웃어야 하는것이다.

《오늘은 일을 부쩍 다그쳐야겠다. 경실이와 순월이는 물을 길어오구 선옥이는 가마에 불을 때여 물을 덥혀라. 내 이제 모판을 쪽 돌아보구 벼모가 잘 나오지 않은 파상들에 더운물을 주어야겠다.》

장갑단은 엄엄하게 작업지시를 내렸다.

《우리두 모판을 쪽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경실이가 일동을 대표한다는듯 제 동무들을 휘둘러보며 말했다.

《벼모를 보는게 뭐 꽃구경인줄 아느냐. 그저 재미로 볼러구?... 난 벼모를 진찰해볼러는거다. 모가 배고파하지 않는지, 포단속의 얘기처럼 자리가 질어하지 않는지, 아직 나오지 않는건 왜 꾸물거리는지 하는걸말이다. 그런것두 모르면서 뭘 보겠다는거냐, 일손을 놓고 우르르 몰러다니면서...안돼!》

장갑단은 팔을 책 내저었다.

《소조원은 그저 일만 하지 말고 모가 자라는 리치를 깊이 연구하며 기술을 익혀야 한다고 했어요.》

머뭇머뭇하던 선옥이가 등을 떠민다고 물러설수 없다는듯 속대를 세워 말했다.

《뭘 일만 하지 말라구?... 일이 곧 벼모이구 땀이 곧 낱알인거다. 일에 손이 시리면 아예 이 장갑단이결에서 물러가는게 좋아!... 내 첫날부터 일에 몸을 꼭 잠그고 일손부터 여물구어야 한다고 했는데 소조원의 말만 귀에 못처럼 박혔구나. 소조원은 책상물림의 기술이지만 내 말은 뼈심으로 낱알을 익히며 얻은 경험이야. 벼모는 땀과 정성으로 자라는거라고 그만큼 말했는데 그저 소조원이니...》

두손을 허리에 얹고 거센 소리를 내지르던 장갑단은 불시에 툭 그치며 벌려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언제 어디서 나타났는지 사이바람막이바자옆에 소조원이 서있는데였다.

늘 친근하고 조용히 웃으며 나타나던 소조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었다. 더구나 모판을 한바퀴 돌아보았다는것이 알리는 소조원의 행색이 덮치듯 안겨서 장갑단은 몸이 굳어졌다.

징검다리를 건느다가 개울에 빠졌겠는지 물참봉이 돼버린 아래도리... 이제 젖은 신발을 철력이며 다가올테지, 자진 새벽길을 남면저 걸으며 애를 쓰는데 뒤에서 무슨 횡설수설이냐고 노여운 소릴 할거구...

그런데 노여움은 폭발하지 않았다. 소조원은 늘 길을 떨구며 걸음을 떼더니 모판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침묵이 흘렀다.

이윽하여 소조원의 목소리가 울렸다.

《모가 정말 잘 나왔군요...》

언제나처럼 부드럽고 친근하였다. 어떻게 사그렸는지... 장갑단은 모두숨이 나왔다. 소조원의 녹진 성미가 천만다행스러웠다.

《갑단어머닌 참으로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애기를 보살피듯이 벼모를 진찰한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렇게 제안모판도 진찰했으면 좋겠는데요. 방금 돌아보니 제안은 모가 잘 나오지 않았더군요. 갑단어머니의 진찰애기를 저도 듣고싶는데 오늘은 군동기구공장에 가야 하니... 후에 꼭 듣겠습니다.》

장갑단은 얼떠름했다. 소조원이 연기처럼 감겨도는 노엽과 어색한 분위기를 능치려고 장갑단이를 추어올리는게 아닌가... 모뭇기때 뿌려진 씨앗을 보고 평당그람수를 정확하게 알아맞히어 사람들을 놀래운 소조원이 장갑단이의 진찰을 듣고싶다 하니 걸치레말갈기도 했다. 하였지만 장갑단은 자기를 바라보는 소조원의 눈길이 너무도 진지하고 솔직하여서 그러한 속치부를 황급히 뿌리쳤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과상씩 돌아보면서 갑단어머니의 진찰을 들려주면 참 좋겠는데요. 어떻게요?》

여전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심하게 물었다. 소조원이 이처럼 친근하고 진지하게 의논해주니 저만 잘 안다면서 어찌구저찌구 하였던 일이 다시금 되새겨지며 얼굴이 화끈 더워났다. 장갑단은 늘 자랑스럽던 덩치 큰 몸이 이때에만은 열적고 거북하여 저도 모르게 몸을 웅크렸다.

《자기들이 기를 벼모인데 구체적으로 보며 낫을 익혀야 하지 않을까요. 잘 생각해보십시오. 갑단어머니...》

《그렇게 하지요.》

2

《잘 생각해보십시오. 갑단어머니...》 소조원은 오늘까지 세번째로 그렇게 말한다. 그럴 때면 순하게 껌벅이던 눈동자가 호수처럼 깊어진다. 걱정과 녀려와 안타까움이 때아닌 구름장처럼 그 호수가에 어리어 떠돈다. 왜 생각해보라는건가. 걱정스러운 빛은 왜 떠돌구...

《막내어머니 물...》

선옥이의 목소리가 귀가에 들려왔다. 그제야 보니 빈 술술이를 들고있다. 장갑단은 술술이를 선옥이앞에 묵묵히 내밀었다. 선옥은 장갑단이의 얼굴을 조심스레 살펴보며 물통의 더운물을 부었다.

장갑단은 여전히 입을 꼭 다물고 다시 일손을 쥐었다.

와... 술술이의 나팔주둥이에서 안개발처럼 물이 뿜어졌다.

《꼭단어머니, 잘 생각해보십시오...》 소조원이 처음으로 그렇게 말한것이 언제였더라. 그게 지난해 벼가을때였지...

무슨 일에서나 기록을 내야 직성이 풀리는 장꼭단은 벼가을에서도 논배미들을 따로 말고 본때나게 해대었다. 다른 사람들보다 한배반의 농물을 냈고 어떤 날에는 몇곱절의 기록을 올렸다. 본조에서는 물론 작업반과 농장적으로 그의 기록을 따르기 위한 경쟁이 벌어졌다.

그러던 어느날, 소조원이 그의 낫가락을 갈아주면서 사근사근 말했다.

《정말 솜씨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장꼭단은 그저 못들은척했다. 하면서도 마음은 흐뭇했다. 그러한 칭찬과 감탄은 너무도 자주 듣는 것으로 새삼스럽지 않았지만 새로 온 소조원의 감탄이어서 듣기가 좋았다.

상냥한 웃음을 담고 동네에 나타난 때부터 드살꾼들이 《골방샌님》이라는 이름을 덧붙인 소조원이었다. 몸도 얼굴도 갈람하고 웃음도 조용하고 말소리도 부드럽고 살뜰하였다. 생긴 맵시로 보아도 아리잠직할 성미였다.

소조원의 이름도 그러하였다. 리성... 마지막자를 뭐라고 하던지... 이름이 모가 나지 않고 두리몽실하다보니 잊고말았다.

《벼가을을 두뭇씩 해제끼니 정말 훌륭합니다. 꼭단어머니...》

장꼭단은 그의 부름에 어리둥절하였다.

누구도 불러주지 않는 이름을 소조원이 스스로 없이 친근하게 불러주어서였다.

아직도 어미치마폭을 감싸도는 막내가 젖가슴에 매달릴 때처럼 장꼭단의 덩치 큰 몸이 애무에 젖으며 가슴이 스프르 번지였다. 그러나 감동은 그것으로 끝났다.

장꼭단은 속으로 픽 웃었다. 소조원도 그 이름을 부르며 웃고있으리라는 생각이 떠올라서였다.

롱구선수처럼 키가 꺾지고 얼굴이 우둥통한 그에게 꼭단이라는 이름은 아예 어울리지 않아서 이름을 부르며 그를 보는 사람치고 웃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아들 네형제를 줄날다가 다섯째만에 딸이 생긴 것이 하도 기쁘고 장하여 꼭단이라고 이름지은 부모들도 크면서 너무나 드살세계 번지고 사내애들처럼 덜렁거리며 꼭단이를 뒤집어 뱃단이라고 불렀으니 다른 사람들이야 더 말해 무엇하랴. 그런데다 성깔사나운 오빠들속에서 주먹질하며 자란 버릇대로 누구앞에서나 굽어들려 하지 않고 일에서도 그렇게 승벽이 세여 아무도 당하지 못하는 《왕드살》로 되였다. 그래서 뒤로는 《왕드살》이였고 앞으로는 《막내어머니》였다.

고명딸이었던 제 처지를 봉창하여선지 딸이 셋이나 이어지던중에 막내로 아들이 생기여 철들 때

까지 품에 싸안고 다니며 막내라고 부르다나니 《막내어머니》라는 이름이 붙은것이였다.

장꼭단은 어울리지 않는 꼭단이라는 이름보다 그렇게 불러주는것이 좋았다. 그래서 미련없이 잊고만 이름이었는데 소조원이 갑자기 불러주어 이상하게 가슴이 찌르르했지만 께하는 웃음과 함께 충격은 흔적없이 사라졌다.

《꼭단어머니 일을 잘하여 최고분배에 상도 많이 탔더군요.》

장꼭단은 소조원의 말을 흐뭇하게 들었다.

몇해전부터 부쩍 늘어나기 시작한 살림과 그리고 해마다 받아안은 최고분배와 상을 생각하면 노상 웃음집이 흔들흔들하는 그였다.

돌이켜보면 언제한번 남에게 뒤져본 일은 없었다. 협동의 새 생활을 안고 일을 시작한 처녀시절부터 넘치는 정력과 드살센 승벽으로 걸차게 일하여 소문을 냈고 살림을 꾸리며 애들을 키워온 나날에도 일 잘한다는 칭찬속에 표창과 공로메달도 받은 그였다.

사람의 손보다 더 신통한 기계들이 씨불임부터 가을걷이, 지어는 창자에 넣는 일까지 하게 되자 고된 일은 흥겨운 로동으로 변하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노래도 잘 불러 집안이 흥성거렸다. 그런 나날속에서 점차 살림살이에 눈길이 끌리기 시작했다. 남들보다 더 프르르하게 살고싶었다.

장꼭단은 승벽을 내어 일하였다. 기계가 힘든 일을 맡아하니 땀을 적게 들어도 개인실적은 부쩍 올랐다. 재미가 났다. 장꼭단은 자기에게 따로 일감을 달라고 분조장을 졸랐다.

《좋수다! 일감을 따로 줄테니 계속 앞서나가시우. 난 뒤에서 모두가 따라서도록 냅다 밀겠수다...》

살림욕심으로 한껏 달아오른 장꼭단이의 등을 분조장이 떠밀게 되자 그의 개인실적은 쟁충쟁충 뛰어올랐다.

무슨 일에서나 기록을 내어 속보가 나붙고 영예 게시판에서는 꽃다발을 가슴에 안은 그의 사진이 환하게 웃고있었으며 결산분배에서는 최고분배자로 구락부가 떠나갈듯한 박수갈채속에 상을 타군하였다. 그러던중에 지난해에는 또 텔레비존을 상으로 받았다. 얼마나 흡족했던가. 모두들 또 얼마나 부러워하구...

《그런데 이렇게 혼자 일하니 적적하지 않아요?》

소조원은 문득 이렇게 물으며 장꼭단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적적이야 하지요.》

《그런 땐 무슨 생각을 하는가요?》

《생각이야 무슨... 일에 정신이 팔리면 다른 생각을 할새 없지요.》

《그저 살림늘일 생각이겠지요. 오늘의 개인실적은 얼마이구 그것이면 남보다 얼마나 많게 되구...》

그렇게 일년을 벌면 또 최고분배에 상을 타게 될 거다, 하구요…》

신통한 말이었다. 살림이 늘어날수록 점점 더 그 생각으로 몸이 달아올라 진정할수 없었다.

《그러니 혼자일에 혼자 살 궁냥밖에 없을테지요. 분조일은 어떻게 되구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일하는지 살펴볼 경향이 전혀 없을게구요. 잘 생각해보십시오. 콤팩트어머니…》

걱정과 녀려의 빛이 어린 눈길로 바라보며 소조원은 조용히 말했다.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때아닌 비방울처럼 장급단의 가슴에 후두둑 떨어졌다. 그러나 한줄기의 비방울이 가뭇돌고 메마른 땅을 적실수는 없었다.

장급단은 소조원이 돌이엄마와 같은 시비군들의 뒤소리를 듣고 하는 말이 분명하여 그저 그렇거니 했다.

저혼자 이름내고 상타고 살림 늘이는 재미에 취한 《왕드살》이라느니, 분조와 집단에 등을 돌려 대고 개인주의만 한다느니… 웅골찬 작은 몸과 오목눈에 뿔기를 풍기며 이렇게 시비하는 돌이엄마였다.

언제인가 돌이엄마와 작업조가 무어졌을 때 그를 뿌리치고 혼자 하여 실적을 올렸더니 그때부터 저와 같은 일손이 없는 축들과 한짝이 되어 뒤소리를 하였지만 장급단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일자리도 성차게 내지 못하면서 뒤에서 옴니암니하는 시샘군들과 무슨 대책을 하랴.

장급단은 거드름스럽게 시비군들을 눈아래로 굽어보며 계속 기록을 내었다.

일은 할수록 재미가 붙어났다.

참으로 그런것이 없이야, 일 잘한다는 칭찬과 박수 속에 떠받들리고 상도 타며 두툼한 분배로 살림을 늘이는 재미가 없이야 무슨 보람으로 살겠는가…

그런데 올해 모판리가 시작된 때부터 모든 일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렸다. 소조원이 모판관리자의 선정과 배치를 명태자반 뒤집어놓듯하였던것이다.

장급단은 숨털도 채 못빠진 처녀애들을 데리고 누룽제모판을 감당 못하겠다고 딱 잘라냈다. 개인 실적을 올릴수 있는 제안에서 물러설수 없었다.

그러자 소조원은 의례 그럴줄 알았다는듯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아직 일손도 농사경험도 어리지만 고향을 가꾸어갈 꿈이 봄날의 토양처럼 부풀고있는 그들입니다. 그 꿈을 키워주어야지요. 그래서 말기는겁니다. 또 그들과 함께 일하느라 적적한 어머니의 마음도 밝아질겁니다. 티없이 맑은 그들의 마음처럼말입니다. 잘 생각해보십시오, 콤팩트어머니…》

장급단은 더 뻔대지 못하고 버들가지처럼 휘여 들고말았다.

귀에 설면서도 친근하게 안겨오는 잘 생각해보라는 그 권고때문인지, 아니면 다시 들으니 절로 귀

맛이 좋은 콤팩트어머니라는 친절하고 살뜰한 부름때문이였는지… 아무튼 그 이후에도 소조원의 조용한 목소리와 친근한 부름이 먼산의 메아리처럼 은은하게 들려오는걸 보면 아마도 그때문인것 같았다…

《막내어머니, 좀 쉬자요!》

선옥이가 장급단이의 곁으로 다가서며 간청하였다. 장급단은 그제야 허리를 폈다.

《그래 좀 쉬자.》

장급단은 흐뭇하게 말하며 땀을 씻었다. 모판을 돌아보며 축이 난 시간을 봉창하려고 세판게 다그쳤더니 땀도 많이 흘렸지만 일자리도 많이 났다.

《막내어머니, 내 아까 재안모판에 가봤어요.》

《거긴 왜?》

《막내어머니에게서 배운 방법으로 재안모판을 진찰하고싶어 갔됐어요. 그런데 왜 그럴가요, 재안의 모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돌이엄마가 걱정이 하느만하지 않겠어요.》

선옥이의 얼굴에 그늘이 졌다. 다른 애들의 얼굴도 마찬가지로. 장급단이도 덩달아 걱정해 잠겼다.

왜 그럴까?... 아참, 올해에는 봄논석이 많았으니 누룽제에 비해 지대가 낮은 재안모판은 습기가 과할테지. 그러니 모가 뜨게 나올수밖에... 뭐 돌이엄마가 걱정이 하느말다구?...

돌이엄마의 수선스런 모습이 떠올랐으나 오래가지 못했다. 뒤에서 볼멘 소리를 하는 돌이엄마에 대한 반감, 한껏 애를 태우며 땀흘려보아야 장급단이가 상을 탈 때 박수를 치리라는 생각이 그 모습을 지워버리었다.

《막내어머니, 돌이엄마를 도와주자요.》

선옥이가 그의 팔에 매어달렸다.

《돌이엄마를 도와주자구?》

장급단은 심상하게 되받았다. 소조원도 재안모판을 걱정하였지만 그 말들은 모두 장급단의 두툼한 입술에 씹쓸한 미소를 그려놓았을뿐이었다. 그러던 장급단은 자기를 지켜보는 세쌍의 맑은 눈에 부딪치며 흠뻑했다. 금시에 모두 울어버릴것 같았기때문이었다.

《내가 뭘 안다구?...》

장급단은 중얼중얼 둘러대었다. 그러자 경실이 가 설레발을 치며 제자랑처럼 말했다.

《아니예요, 막내어머니만 가면 모판상태를 한눈에 알아보고 진단을 내릴거예요.》

《그래요. 우린 오늘아침 막내어머니의 설명을 듣고나서 정말 상을 탈 자격이 있는 실농군이라구 이구동성으로 말했어요.》

순월이가 이렇게 끼들며 나섰다.

그런데 선옥이만은 입술을 감쳐물고 말이 없다.

그의 눈에는 불만이 어려있는듯했다. 꼭 돌이엄마의 눈길같았다. 그러자 이러쿵저러쿵 하여온 돌이엄마의 뒤소리들이 귀가에 연기처럼 꾸역꾸역 밀려들었다. 그 연기에 숨이 막히는것 같았다.

《안돼... 우린 이 누룽재모판의 모를 잘 키우면 되는거다. 재안은 분조와 작업반에서 대책을 세울테니 우리가 걱정할게 없다. 오지랄이 넓게 남의 일을 싸안고 다니지 말어라!》

장급단은 서슬치게 말하며 팔을 뻗 내저었다.

3

아침부터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새벽에 잠을 깨니 가위에 눌린것처럼 마음이 어수선하고 어떻게 되어 불쑥 떠올랐는지 파습한 모판에 마른재를 살랑살랑 뿌려주었던 몇해전의 일이 눈앞에 삼삼히 떠올랐다. 그다음은 마음을 진정치 못하고 어슬렁거리다가 밥까지 태웠다. 누룽지같은 밥을 먹으며 엄마를 쳐다보는 애들의 눈이 꼭 불만이 어렸던 선옥이의 눈길과 같아서 왜 그렇게 보느냐고 껍 소리 질렀다. 공연히 애들에게 성품이를 하였다는 생각에 마음은 더욱 언짢아서, 간절한 기대를 담고있던 세쌍의 맑은 눈이 눈앞에 열른거리어서 쫓기듯 황황히 모판으로 나왔다.

모판에 들어서니 선옥이가 또 그를 기다리고있었다. 그는 장급단을 보자 입술을 떨며 물기진 소리를 터쳤다.

《막내어머니... 전 지난밤 잠들지 못했어요. 어머니한테 말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겠어요...》

선옥이의 눈에 이슬이 맺히었다. 그는 장급단앞으로 한발 다가서며 절절하게 하소했다.

《막내어머닌 어찌면 그럴수 있어요. 소조원이 재안모판을 도와주기를 바라며 얘기했는데 끝내... 남의 일이라고 하면서 끝내 도와주지 않으니 어찌면 그럴수 있는거예요.

소조원은 새로운 휴대용분무기를 우리에게만 들어주겠다면서 군농기구공장에 갔대요. 며칠 걸린다고 해요. 이제 소조원이 돌아오면 뭐라고 하겠어요. 예! 막내어머니...》

장급단은 선옥이의 항변에 아연하였다. 어느때 다른 사람들에게서 이런 일을 당했다면 경우야 어떻게든 맞받아 소리질렀을 장급단이였지만 멍하니 서있기만 했다. 너무도 절절한 선옥이의 질책과 그의 눈물어린 눈길앞에서 장급단은 감히 탓대질할수 없었다.

《막내어머니, 어머니!-》

경실이가 동쪽길로 달려오며 소리쳐불렀다. 숨을 헐떡이며 울바자안으로 뛰어들어온 경실이는 장급단이를 보자 다짜고짜로 팔을 이끌었다.

《재안에 빨리 가자요, 소조원이 지금 거기에 와있어요.》

《뭐?! ...》

《재안모가 밤사이에 썩트지 않았나 해서 가봤더니 글썽 소조원이 매 파상을 돌아보며 진찰하고있지 않겠어요.》

소조원은 밤새며 휴대용 분무기를 만들다가 새벽에 온 모양인지 눈에는 피발이 서고 얼굴은 꺼칠하더군요. 내가 모판에 들어서자 막 반가와하며 어머니가 어제 재안모판을 진찰했는가고 묻지 않겠어요.》

장급단은 눈앞이 어릿어릿했다.

소조원이 재안을 진찰하다니... 먼 새벽길을 달려왔는데 결에서 등을 돌려대고있었으니 이 장급단이가 사람으로 보일텐가...

《난 어떻게 대답했으면 좋을지 몰랐어요. 그저 열결에 어제는 어머니가 물주기가 급하여 오지 못했지만 오늘아침에는 도와나설거라고 했어요.》

소조원은 묵묵히 모판을 거닐더군요. 어제아침처럼말이에요. 한참 걸더니 내 말이 옳다고 하면서 오늘아침에는 꼭 도와나설거라고 힘있게 말하지 않겠어요. 난 그렇게 힘차고 열정적으로 말하는 소조원을 침 봤어요.

막내어머니, 소조원의 얘기가 옳지요? 어서 가자요!》

경실이는 이렇게 재촉하며 장급단의 팔을 잡아 흔들었다.

《가자요, 막내어머니!》

선옥이가 장급단의 한쪽팔을 다잡으며 정차게 속삭이였다. 언제 왔는지 순월이가 앞에서 경총대며 달려갔다.

《어머니, 빨리 가자요!》

장급단의 걸음을 재촉하는듯 동쪽의 백양나무 가지에서 까치가 꼬리를 출썩이였다. 짹, 까앗, 짹...

《막내어머니! 저기에 소조원이 서있어요.》

경실이가 갑자기 소리쳤다.

《어디?!...》

《저기 재안모판의 바람막이바자옆에 서있지 않아요.》

어머니를 기다리는거예요!》

소조원은 개울너의 모판옆에 묵묵히 서있었다.

장급단은 흠칫하며 걸음을 멈추었다.

저게 누구의 모습인가... 학교시절에 집단이라고 하면서도 개울물이 불거나 때늦게 돌아오는 저녁이면 개울너머에서 기다리던 오라버니들... 아득히 흘러간 시절의 오라버니들이 바로 저렇게 서있지 않았던가...

언제인가 소조원이 그의 이름을 처음 불러줄 때처럼 덩지 큰 몸이 애무에 젖으며 가슴이 스프르

번지였다. 다정하고 친근하던 부름소리가 새삼스럽게 메아리쳐왔다. 그때는 무심하게 들었던 부름이 봄바람처럼 가슴을 적셔주며 새록새록 울려왔다. 곱단어머니… 곱단어머니…

4

장곶단은 자명종시계를 맞추어놓은것처럼 제시간에 깨어났다. 정확하게 밤 2시였다.

서둘러 밖에 나선 그는 모판리때이면 늘 호주머니에 넣고다니는 온도계를 꺼내어 창문의 불빛에 비쳐보았다. 수은주가 서서히 내려여 3도에서 멎었다. 기온은 동이 터올 때에 최저로 내려간다. 지금부터 4시경까지 날씨가 더 차질것이다. 그러니 3시경부터 버겨불을 태우면 과습하여 저온피해를 입는 재안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것이다.

장곶단은 가슴이 뿌듯해났다. 요즈음에는 류다른 흥분과 충격으로 가슴이 설레는 그였다. 집에 들어와서도 소조원의 모습이 눈앞에 삼삼하고 곱단어머니라는 친근한 부름이 방안가득히 울리는것 같아서, 처녀애들이 친팔들처럼 치마폭에 감겨들며 우리 어머니 제일이라고 속삭이는것 같아서 진정할수 없었다. 꿈에서도 소조원이 친근하게 부르며 밝게 웃고 잠에서 깨어나면 소조원이 어딘가 또 앞에서 오라고 불러주는것 같아 마음이 달떴다.

일은 그렇게 되었다. 소조원이 또 사근사근 말한것이였다.

《곱단어머니, 재안에 마른채를 뿌려주는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한것 같은데 더 좋은 방법이 없을가요?》

그가 선뜻 대답 못하자 언제나처럼 조용한 목소리가 뒤에 달렸다. 《잘 생각해보십시오. 곱단어머니…》

장곶단은 생각해보았다. 마른채를 뿌리어 습기는 적어졌지만 지나친 과습으로 모판온도가 매우 낮은것이였다. 장곶단은 아침저녁으로 재안에 들리어 온도를 췌다. 누룽재보다 더 낮았다. 소조원의 말이 옳았다. 온도를 높일 좋은 방법을 찾아내야 했다.

장곶단은 일하면서도 걸으면서도 그리고 밥을 지으면서도 생각에 골몰하였다.

마침내 버겨불 생각이 떠올랐다. 새벽에 버겨를 태우면 저온장해를 막을수 있을것이며 또 겹게 탄 그 버겨재를 모판에 뿌려주면 해빛을 잘 받아서 모판온도가 높아질것이였다.

버겨불이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를 시험해보아야 했다. 어제 저녁에 그 준비를 하였다. 일이 어찌될지 알수 없어 소조원은 물론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재안에 버겨를 운반해놓았다.

그런데 퇴근한줄로 알았던 돌이엄마가 바람막이바자옆에서 그를 말없이 보고있었다.

돌이엄마의 눈길이 그윽하게 슬벽이였다. 요즈음 재안으로 자주 찾아가자 곳곳하게 얼어붙은듯하던 오목눈이 온화하게 풀어지는것이 험똥하게 알린다.

장곶단이라도 가슴이 후터워났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버겨불애기도 할수 없어 장곶단은 걸음을 떼였다. 그런데 동쪽길에 올라 돌아보니 그때까지도 돌이엄마는 장곶단을 눈길로 바라며 움직이지 않고 서있었다.

어둑한곳에서 묵묵히 바라주는 자그마한 몸매의 돌이엄마… 잔고기 가시 세다느니, 시샘군이라느니 하면서 대척도 하지 않았던 지난 일들이 떠오르며 가슴이 옥죄이였다.

《돌이엄마야… 내 잘못했다. 이제 버겨불이 은을 낸 다음 내 용서를 빌며 다 얘기하마. 그때 왜 돌이엄마를 뿌리쳤던지 정말 제 정신이 아니였구나.》

장곶단은 간밤에도 돌이엄마에 대한 생각으로 잠을 설치였다.

돌이엄마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도 버겨불이 꼭 성공해야 했다. 아무렴 헛일은 아닐게다. 저온을 막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테지… 도움이 되구말구! …

장곶단은 팔을 걸차게 저으며 긴 다리를 성큼성큼 내짚었다.

어느덧 재안모판에 닿았다

장곶단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숨을 돌리였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모판안에서 애똥 목소리가 들려왔다.

《기온이 점점 내려가요. 그동안에 1도나 떨어졌어요.》

뚝밖에도 선옥이의 목소리였다. 장곶단은 깜짝 놀랐다.

《이젠 불을 지피자요.》

경실이가 보채였다.

《그러자요. 어서요!》

순월이도… 그러니 모두 떨쳐나왔다.

《버겨불은 천천히 타니 시간이 오래 걸리겠는데요.》

돌이엄마까지 나왔다. 운반해놓은 버겨를 보았겠지만 그의 용도에 대해서는 알수 없을텐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요. 곱단어머니 동트는 시각에 기온이 최저로 내려간다는것을 알고있소. 인차 나올게요.》

장갑단은 홀지에 맥이 탁 풀렸다. 늘 귀가에서 친근하게 울리는듯하고 또 듣고만싶은 소조원의 목소리를 들은것인데 왜 금시 쓰러질것처럼 맥이 풀리는지 알수 없었다.

《갑단어머니가 착안하고 준비한 일인데 어머니가 불을 지펴야지요…》

《…》

《용서해요. 우린 그 생각을 못하구 그저…》

《난 갑단어머니가 재안모판을 볼 때 정말 많은 것을 생각했소. 어머니 버모와 땅의 숨결을 듣는것 같았소. 갑단어머니의 훌륭한 일솜씨와 농사경험에도 존경이 가지만 땅과 난알을 가꾸는 일에 대한 열렬한 애착에 절로 머리가 숙어지오. 선옥이, 경실이, 순월이… 우린 언제면 그렇게 될가…》

《정말 언제면… 우리도 애쓰고있어요.》

《소조원, 왜 내 이름은 부르지 않아요. 막내어머니 매일 와서 온도를 재보며 애를 쓰더니 이렇게 버겨불 착안을 했는데… 정말 생각되는게 많아요…》

《그렇다니 저도 기쁩니다. 이웃사람들과 자신에 대해서 늘 아량있게 살펴보며 생각을 깊이 해야 합니다.…》

《…》

《그런데 저… 늘 한번 물으려고 한건데요. 소조원 혼자만이 갑단어머니라고 부르고있어요. 모두가 어머니의 이름을 잊은지 오래고 어머니도 자기 이름을 생각지 않고있는데… 그런데 소조원동무는 첫날부터 갑단어머니라고 불렀어요.》

한동안 물뿌린듯 조용했다. 정적속에서 발자국 소리만 울리었다. 저벅저벅… 이제껏 조용하고 사근사근하던 심중의 깊이에서 타끓는 뜨거운 열정이 건잡을수 없게 솟구쳐오르는듯 힘차고 열렬한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선옥이… 갑단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소. 난 그 이름에 깃든 사연을 가슴뜨겁게 들었소. 부모들이 얼마나 반갑고 기뻐하면 갑단이라고 불렀겠소. 언제 어디서나 갑단이라고 불리우며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만을 받기를 바라며 그렇게 이름을 지은게 아니겠소. 사회와 동무들을 위해 자기를 바치고 그들속에서 갑단이라고 사랑을 받으며 사는것보다 더 보람찬 일이 어데 있겠소. 갑단이… 정말 이름이 얼마나 좋소!》

장갑단은 이글이글 달아오른 쇠가 명치끝을 쿡 찌르는것 같았다. 그는 끝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동쪽우에 풍덩 주저앉았다. 장갑단은 두팔을 내뻗치며 야들야들한 봄잔디를 어루머듬었다. 무엇이냐 아름이 벌도록 껴안고 애무하며 쓰다듬고싶었다.

녹녹한 안개가 손등을 부드럽게 스치며 온몸을 포근히 감싸돌고 눈구석에는 뜨거운것이 방울방울 맺히었다.

아, 얼마나 좋은 밤인가… 장갑단은 시루떡처럼 부풀어오른 대지에서 풍기는 구수한 흙냄새에 한껏 취하여 넋없이 앉아있었다.

5

장갑단은 운무에 잠긴듯한 먼산에서 오래도록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꽃샘하는 계절에 맞지 않게 날씨가 별안간 물쿠는것이 심상치 않다 했더니 산발우의 안개가 점점 짙어지고있었다.

(이거 원 하늘이 로망을 했나?…)

아무리 이상기후로서니 이렇듯 기온이 돌변할 수가 있는가. 징조로 보아 장마철처럼 큰비를 한줄금 쏟아부을 잡도리였다.

장갑단은 더부러거리던 큰눈을 쪼프리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번에는 이마에 손채양을 하였다. 잠간사이에 먼산들은 안개속으로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장갑단은 꿈쩍 놀라 다시 눈을 크게 뜨고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설마 하고 팔짱을 끼고 우물쭈물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언젠가도 이맘때 그런 경우를 당해본 일이 있다. 갑자기 들이닥친 진눈까비가 급기야 우박으로 변하여 실것이를 하는바람에 하마트면 일년농사를 망칠 뻔했었다.

불현듯 소조원의 조용한 목소리가 뇌리를 쪼하고 울리었다.

《올해에 봄날씨가 변덕스러울것이 예상되니 모판들에서 각성을 높여야 할것 같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갑단어머니가 어련하시겠지만…》

우박이 쏟아지든 비가 내리든 한시빨리 박막을 덮고 나래를 얹어야 했다. 오전까지 모판에 새로 받은 성장촉진제를 쳤는데 일이 터지면 무효로 될 것이였다. 버모에 특별히 좋다는 촉진제여서, 소조원이 새로 만들어진 휴대용 분무기가 성능이 좋아서 흥을 내며 알심있게 친 약인데 한평도 물에 씻기게 할수 없었다.

아참, 누릉재만이 아니다. 오늘 분조의 모든 모판에 성장촉진제를 쳤다. 오후에는 또 소조원이 앞서고 분조장을 비롯한 거의 모든 분조원들이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숲골에 퇴비를 반출하러 갔다는 생각이 마디에 웅이처럼 불거지며 튀어올랐다.

큰일이다! …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알려줄 사람도 도와줄 사람도 없다. 다른 모판들에서는 아직 이런 징조를 모를수 있다. 한시빨리 알려주어야 했다. 그러면 모판을 언제 덮누… 장갑단은 또 머뭇거렸다.

《잘 생각해보십시오. 굶단어머니…》

소조원의 속삭임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장급단의 마음은 한결 안정되었다.

생각해보자… 이제 알려준다 하여도 일손이 더딘 돌이엄마가 비오기전에 모관을 다 덮을수 있을가. 다른 관리자들도 모두 이 장급단이에 비하면 어방없이 딸리지 않는가. 또 다른 모관의 벼모는 누룽재보다 좋지 못하니 축진제의 덕을 꼭 보아야 한다. 그런데 남을 돕다가 우리 누룽재의 약이 씻기면 어쩌나…

생각을 번져가던 장급단은 멈칫하였다. 그는 머리를 휘휘 내저었다. 스스로 얼굴이 붉어졌다. 뭐 다른 모관을 남이라구?… 못된 드살이 또 머리를 쳐들었나? 안되겠다. 소조원이 굶단이라 불러주어도 여전히 밭단이로구나…

장급단은 제발등만 보며 살아온 지난날의 밭단을 이를 쓰겁게 비웃으며 머리를 높이 쳐들었다.

《자, 모두 모여라. 큰일이 생겼다!》

장급단은 약치기를 끝내고 뒤거두매를 하고있는 처녀들을 향해 목청껏 소리질렀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반발과 분개의 폭발이었다. 처녀들은 갑자기 터져나오는 장급단의 갈리고 거친 웨침소리에 깜짝 놀라며 바라보았다.

장급단은 엄엄한 목소리로 이상기후의 변덕을 설명했다.

《설마…4월달인데 무슨 큰비가…》

경실이가 눈이 동그래서 하늘을 쳐다본다.

《설마가 농사를 망친다. 너 요전에 소조원이 각성을 높이라던 소릴 듣고도 그러니, 저길 봐라.》하고 장급단은 서컨 하늘 한끝을 가리켰다. 먼 산발너머에서 장마철의 한때를 편상시키는 매지구름이 나타난것이었다.

《어마나…》

순월이가 겁질린 소리를 냈다.

독버섯처럼 솟아오르던 구름장들은 맹렬한 속도로 밀려오며 하늘을 덮기 시작하였다.

《빨리 모관을 덮자요!》

경실은 언제 반신반의했던가싶게 성급히 들고 뛰며 안달이 나 했다.

《그런데 다른 모관들에서는 아직 저 심술꾸레기 구름장들의 노족을 깨닫지 못했을수 있다.》

《정말! 모를거예요, 우리가 알려주지요.》

선옥이가 이렇게 말하자 순월이는 특상선수처럼 펄 자세를 취했다.

《알려만 줄게 아니라 도와주어야겠다. 재안모관에 선옥이, 물남모관은 경실이 그리고 안골로는 순월이가 달려가서 그들에게 알리고 도와주어라.》

《그런데 어머니 혼자서 어떻게…》

경실이가 장급단리와 모관을 번갈아보며 안타깝게 말했다.

《왜 말을 듣지 않는거나 응…여기 걱정은 말라는데.》

장급단은 눈을 부릅뜨며 발을 탕 굴렀다.

《예?! …》

《경실아 빨리 가자!》

순월이가 재촉하였다. 경실은 끌려나가면서도 장급단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그때까지도 박힌듯 서있던 선옥이도 뒤를 따랐다. 그러나 밖으로 선뜻 나서지 못했다.

선옥이는 언제인가 장급단을 질책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머뭇거렸다. 무언가 말하려는듯 입술을 움지락했으나 끝내 눈길을 떨구며 바람처럼 뛰쳐나갔다.

어느결에 구름이 서컨으로 기운 해를 삼켜버렸다. 을씨년스럽게 상을 찌프린 시꺼먼 떼구름장들이 타래치며 밀려왔다.

드르릉… 어딘가 멀리에서 우뢰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장급단은 모관을 휘둘러보았다. 혼자 남고보니 모관이 별로 넓어보였다. 그는 팔소매를 걷어붙이였다.

어디 한번 거루어보자! 망할놈의 이상기후야.

네가 변덕을 부려도 이 장급단이가 주눅이 들줄아느냐. 한파상도 비를 맞히지 않을테다.

다른 모관을 돕다보니 비를 맞혔다구?… 안될말이다. 분조적으로 한평의 벼모도 약물이 씻겨서는 안된다. 아무렴 안되구말구!…

자, 밭단이 힘을 내여라. 그 숨씨와 날과람은 두었다 어디에 쓸테냐, 파상사이를 이렇게 나가면서 오른컨의 박막을 당겨내리고 왼쪽파상의 박막을 밀어올리면 한걸음에 두 파상씩 덮을수 있지. 그리구 오금이 불이 나게 달리여 한번의 헛손질도 없이 이렇게… 그렇지, 발과 손놀림이 장단치듯 이어지면서… 자, 좀 더 빨리. 좀 더 거침이 없이… 그렇지, 그래, 좋아!

장급단은 허리를 수긋하고 모관사이를 날듯이 달린다. 시간이 흐르면서 작업속도는 더욱 맹렬해진다. 긴팔이 량쪽으로 북나들듯하며 박막우에 나래가 차분차분 덮인다. 북장단에 춤가락이 어울리는듯하다.

드디어 때아닌 4월의 령상모관에 큰비를 몰아오는 바람이 몰아쳤다. 썩아… 모관이 비줄기를 받으며 장엄한 웨침을 더쳤다. 그것은 장급단에게 고마운 인사를 하며 누룽재모관이 올리는 환성이었다.

마지막 나래를 덮은 장급단은 천천히 허리를 폈다. 온몸으로 비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흐뭇한 심

정이 가슴그득히 차올랐다. 이런 때의 만족한 기분은 땀흘린 사람만이 맛볼수 있는것이였다.

이런 때는 정말 좋다! ... 장급단은 대줄기같은 비를 즐겁게 맞으며 모판사이를 걸었다. 박막밑에서 고마움에 겨워 살랑대는 버모의 속삭임을 즐겁게 들으며 걷고 또 걸었다. 꿈에 취한 사람처럼...

비는 올 때처럼 그렇게 갑자기 그쳐버렸다. 어느덧 구름도 한결 얹어졌다.

다른 모판들은 어떻게 되었을가... 장급단은 바빠 누릉재박으로 나와 동쪽에 올라섰다. 어디보다 재안이 걱정스러웠다. 장급단은 이마우에 손채양을 하고 개울너머의 재안모판을 눈빠지게 보았다.

이때 뒤에서 발자국소리가 났다. 재안과 반대방향인 뒤길로 돌이엄마가 허허허이 걸어오고 그뒤로 선옥이가 뒤따랐다.

《어떻게 된거요, 영?!》

장급단은 눈을 홑뜨며 소리쳤다. 그런데도 돌이엄마는 대답없이 울먹울먹하며 다가온다.

장급단은 속이 철렁했다. 어찌된 일인가? 모판을 덮지 못한게 아닌가?

돌이엄마가 장급단의 손을 덥석 잡으며 목갈린 소리로 말했다.

《모판을 다 덮었어요. 정말 고마와요. 급단성님! ...》

장급단은 한순간 멍해졌다.

방금 뭐라고 했나, 뭐라고 불렀어. 돌이엄마가 ...

《급단성님, 날 옥해줘요. 성님처럼 일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서 흠만 들추며 시비한 이 못난이를 막 때려줘요.

소조원이 아니었으면... 소조원이 왜 재안을 나에게 맡겼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윽해진 오목눈에 진정어린 눈물이 넘쳐났다.

《돌이엄마! 내가 잘못했어, 날 용서하라구...》

《성님! ...》

장급단은 돌이엄마의 손을 꼭 감싸쥐었다.

《급단어머니! ...》

선옥이가 정차게 부르며 손에 들고있었던것을 내밀었다. 봄철에 남던저 피어나는 제비꽃과 개나리 등으로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 꽃묶음이었다.

《선옥이가 성님에게 안겨드리겠다고 하며 저기 개울웃쪽에 가서 꺾은거예요.》

《어머니, 받으세요...》

선옥의 맑은 눈에 눈물이 가랑가랑했다.

장급단은 뜨거운것이 눈굽을 아프게 지저대며 불끈 솟구침을 느꼈다. 이어 구슬같은 눈물방울이 불편을 타고 쭉쭉 굴러내렸다.

아직 한번도 울어본적이 없는 장급단이었다. 눈물이란 모르고 살아왔다.

그런데... 텔레비존도 아니고 두툼한 분배돈봉투도 아니고 탐나는 부엌세간이나 가구도 아닌 수수한 꽃들, 흔하디 흔한 버들개지에 싸인 꽃묶음을 받아안은것인데 왜 이처럼 목이 메이는것인지... 장급단은 샘솟듯하는 눈물을 건잡을수 없었다.

(선옥아, 고맙다...)

장급단은 그를 꼭 껴안고 볼을 비비고싶었다, 아! 소조원이 선옥이네들을 곁에 배치한것도 오늘의 기쁨을 위해서였구나. 그래서 절절하게 일러주었구.

《선옥이네들과 함께 일하느라면 적적한 마음이 밝아질겁니다. 그들의 티없이 맑은 마음처럼...》

물남의 동쪽길로 경실이가 목청껏 부르며 달려왔다.

《어머니, 급단어머니! ...》

그의 도움을 받은 모판관리자가 뒤를 따라왔다.

《급단어머니...》

안골모판의 논둑길로 순월이가 뛰어왔다. 그의 뒤에도 사람들이 달려왔다.

뜨겁고 황홀하고 거센 충격이 장급단이의 덩치 큰 몸을 쿵쿵 울렸다.

내가 뭘했다고 모두 이렇게... 정말 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언들 아끼랴. 얼마나 좋은가. 이런 때는 정말 좋구나...이게 진짜 사는 재미구 사는 보람이구나!!...

《급단어머니, 우리 소조원이 와요 ! 분조장도 오구요.》

선옥이가 기쁨에 넘쳐 말했다. 그의 말대로 소조원과 분조장이 숲골쪽의 길로 달려오고있었다.

장급단이의 눈물이 더벅한 눈에 소조원의 모습 이 한가득 안겨왔다.

문득... 수수하고 두리몽실하다고 여기며 감감 잊었던 소조원의 이름이 어디선가 종다리의 지저귐처럼 울려왔다.

성범이, 리성범이... 어디서 아 어디서 울려오는 것인가, 묵묵하면서도 깊이를 알길없는 정든 땅이 그 이름을 부르는것인가, 싱싱하게 자라는 푸른 버모가 속삭여주는것인가. 3대혁명소조원 ! 우리 성범소조원...

소조원이 점점 다가온다. 환히 웃는다. 그 웃음에 눈이 부신다.

하늘도 때를 아는것 같다. 구름이 터갈라지며 맑고 푸른 하늘에서 해빛이 쏟아진다.

그 하늘, 그 해빛을 안고 성범소조원은 가까이 다가온다. 점점 가까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라

리광근

떠들썩 웃으며 인차에 올라
또 하루 갱도에 들어선
름름하다 우리 탄부들
갈래뻗은 굴길에서
마치 제집 마당길을 찾아가듯
스스럼없이 제 막장을 찾아가는 모습

깊고 깊은 갱도길 끝나는곳
서로서로 보이지 않는곳에 일터는 있어도
착암기소리와 발파소리로
서로의 일을 가늠하고 앞다투며
서로의 일을 축하하고 기뻐해주고

번뜩이는 탄맥을 두고 신바람나
옆사람과 할말조차 삼가하다가도
때로 뜻하지 않게 터진 석수에
갱도가 비좁도록 욕심스레 털어놓은
기름진 석탄이 젖어들 때면

어찌하여 그토록
갱도가 떠날듯 목청이 높아지고
드바뻐 뛰어다니며
찾고 부르고
저마다 서슴없이 몸을 내대는것인가

머리 숙여진다
잠시라도 탄부의 일손 멈추면
나라의 수많은 사람 걸음이 떠지는것 같다고
한사람도 몇몇도 아니
만나본 탄부들 저저마다
힘이 진할 때까지 석탄을 캐겠노라고

미덥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석탄을 두고 검은 금이라고
탄부들을 두고 금보다 귀하다 하셨으니
막장끝에 있어도 빛나는것이 우리들이라고
자부에 넘친 그 마음들이여

끌어안고싶다
떠받들고싶다
우리 집 막내같은 애젊은 저 탄부
불우물 곱게 짓는 단발의 저 운전공

흰머리에 안전모 눌러쓴 저 아바이

탄물이 배인 저 손과
들먹이는 저 가슴들이
안아올린 검은금은 그 얼마이며
내 집 살림만이라
나라살림에
저 손길과 후더운 숨결이
얼마나 수고로이 배여있느냐

사랑하노라, 탄부들을 불러
모두가 영웅이라 내 소리높이 웨친들
사람들이여, 마다할이 그 뉘며
사랑하지 않는이 그 뉘더냐

그러하더라, 이 땅의 그 누구
달 밝은 강변길을 거니는 처녀들
저 청년탄부와 인연있거든
서슴없이 찾아오리 백년을 함께 살자고
그 뉘 어느 직무의 아버지도
저 압축기공처녀의 미더운 모습에
아들을 앞세우고 여기로 오리

그 어디 살든 무슨 일 하든
여기 갱도길 걸어보지 못했다 해도
단란한 방안의 따스한 온기를 두고
쉽없이 기대를 돌리는 전류의 흐름을 두고
석탄을 모르는이 없듯이
탄부들을 위하는 마음 뉘에겐들 없으랴

사랑하라 사람들이여
제 하는 일이 제일 어렵다 해도
제 앓은 자리 남보다 다르다 해도
그 일터 그자리가 땅우에 있거든
깊은곳에 일터를 둔
이 사람들을 잊지 말자

사랑하라 사람들이여
땅우에 일터를 펼치고
살림살이 자리잡은 그 모든곳에서
밝은 불빛과 따듯한 열기를 받으며
탄부들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에
나라와 내 살림이 늘어나지 않는가

땅이여, 너를 위하여!

리동후

행복의 노래

쏘어보고
다시 또 쏘어보며
찌릿이 눈시울 적시는 농민들과
나도 함께 달려나와 쓰다듬노라
농장에 실려온 분수식 배관들을

이 벌에 선참 보내주라고
간곡히 이르신 그 은정에
목메여 목이 메여 말이 없는가
농장벌 가꾸시는 수령님의 그 심중
진정 헤아려도 끝은 없나니

못잊어라, 달리는 차중에서
먼길의 피로를 푸셔도 되시련만
차창밖으로 얼핏 스치는
그 하나의 전주대를 보시고도
그토록 만풍년을 안아올 물소리를 들으시며
천만매듭을 한순간에 푸셨나니

수령님 그러도 기쁘시여 바라보시는
이 나라 가없는 들 그 한끝까지

뻗어가고 또 뻗어갈 분수관들
물소리, 만풍년의 물소리를 안고
천으로 헤아리랴 만으로 헤아리랴

아, 그날의 구상속에 또다시
위대한 전변이 펼쳐지는 이 땅
무지개 내리는 단비속에 들려와라
이 가슴을 시원스레 적시며
들에, 언덕에 흐르는 사랑의 물소리

그 물소리
때아닌 왕가물도 밀어내며
하늘 가득 땅 가득
만풍년의 서사시를 새겨가는
영원한 행복의 노래로 울려가리니

수천갈래 뻗어가고 이어지는 관들은
땅속깊이 묻히어 보이지 않아도
분수비를 바라보는 인민의 마음속엔
수령님 바라보신 그날의 그 전주대가
위대한 사랑의 탑처럼 솟아있어라

분수관 늘이는 이 벌에서

어스름이 깃을 펴는
가없는 긴등벌에
길길이 타오르는 우등불
떠들썩 울려퍼지는 청년들의 노래소리

저녁노을 비길 때 언덕을 내리며
아쉬운 마음 안고 마을로 들어서더니
어느새 약속한듯 달음쳐올랐는가
또다시 일손들에 성수났구나

달아오른 몸 식힐새도 없이
차관마다 막돌 가득
드바베 달려와 부리우는 마음들
숨저고리 훌훌 벗어던지고
삽날에 번개일며 땀흘리는 그 열정

그 열정에 타번져 어둠을 사르는가

굴착기도 용을 쓰며 흙발을 퍼올리고
한치 한치 열여가는 물길 따라
묵직한 분수식 콘크리트관
땅속깊이 묻으며 이어가는 기쁨이여

해마다 너에게 덧쌓이는
아버이수령님의 그 은정
그대로 푸른 물줄기를 실은 관으로 이어져
이 벌에 삶을 둔 젊은이들 이밤 잠못들어
온 벌을 분수망으로 덮여가는것 아니던가

아, 천년이 가도
너는 가물을 모르려니
천줄기 만줄기 혈맥처럼 뻗어가는
사랑의 분수관 따라
이 땅이 청춘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기러기떼 날은다

긴등벌에 실안개 서려오르자
높푸른 청동색 가을하늘에
끼르륵- 끼-륵 기러기떼 날은다

떠들썩 분수관을 높이며
사람도 별도 하나로 뒤설레니
아쉬워라, 하늘가로만 날으는 기러기떼

지금은 네 가는곳 구름넘어 천리라도
못잊어 다시 날아와 여기 내릴 때
보리라, 봄하늘에 내리는 분수비의 황홀경을

아, 기러기떼는 날아가도
땅에 바치는 진정으로 풍년을 약속하며
다시 오라, 손저어 바래주는 마음이어

이 밤만은 헤어지기 아쉬워

처녀는 남먼저 알아보았네
지난봄 이 벌에 찾아와
뜨락뜨로운전을 배워주던 그 총각
꿈많은 기계공장 미더운 동무

양수기를 싣고 온 이 처녀
떠들썩 발판개공사장이 흥성이는데
어느덧 시간은 흘러 조립은 끝나고
총각은 처녀의 손 잡아야 끄네
주인인데 먼저 스위치를 넣으라고

순간 상봉의 기쁨 설레여
뜨겁게 마주보는 행복의 눈빛이어
남몰래 맺었던 봄밤의 그 언약
간절히 기다리던 서로의 마음이어서
이밤만은 헤어지기 참말로 아쉬워

긴등벌에 울리는 양수기의 동음소리
두 마음이 하고싶은 속삭임처럼
가슴속에 정깊게 새겨지는 밤
달빛은 두 그림자 하나로 포근히 감싸주었네

땅이여, 너를 위하여!

땅이여
너를 위하여!

온 나라 온 인민을
발판개건설에로 불렀거니
얼마나 크나큰 격동속에
축복을 받아안은것이나

땅이여
너의 영원한 풍년 옷자락을 위하여!

당의 호소 새겨안은 인민의 마음
거세찬 불길로 일어번지거니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
뜨거이 감싸안은것이나

쇠물을 끓이여도
그 한 생각
세멘트를 구워내도
그 한 생각

피줄마냥 지심깊이 관을 높이며

농민들과 지원자들 하나로 어울려라
풍성한 가을을 그려보는 기쁨속에
후더운 땀방울도 함께 묻으며

흐르는 물길은 벌을 적셔도
기계의 동음소리 벌에 울려도
해마다 산언덕 다락밭을
다는 적시지 못했거니

이제는 영영 가물을 모르는
사랑의 단비를 내려주마
들에, 언덕에
비탈밭이랑의 한끝까지

땅이여
너의 영원한 젊음을 위하여!

네 마지막 소원마저 다 풀어주는
오, 분수비 분수비는
우리 당이 부어주는 생명의 젖줄기

긴등벌 발판개공사장에서
1988. 3

명제해설

《인민대중은 당의 령도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결속됨으로써 영생하는 자주적인 생명력을 지닌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게 됩니다.》

김 정 일

사회정치적 생명체에 관한 새로운 해명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삶의 본질과 가치, 인생관의 참다운 원리를 독창적으로 밝혀주고 있다.

사람에게는 육체적 생명과 함께 사회정치적 생명이 있다. 육체적 생명은 인간으로서의 개인의 생존과 관계된다면 사회정치적 생명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존재와 가치와 관련된다. 따라서 사회정치적 생명은 육체적 생명에 비할바없이 귀중하다. 그런데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은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인 사회정치적 집단과 유기적으로 련결되어있으며 그것을 떠나서 유지되고 빛내여갈수 없다. 사회정치적 생명체가운데서도 수령은 최고뇌수의 지위와 역할을 담당하고있으며 당은 그 생명체의 중추를 이루고있고 인민대중은 그 두리에 결속된 유기체로 된다.

그러므로 개별적인 사람들은 단순히 집단의 한 성원이라는 그자체로서가 아니라 당조직을 통하여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인 수령과 조직사상적으로 결합되어 당과 운명을 같이하게 될 때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게 된다.

사회정치적 생명체에 대한 새로운 해명은 우리 작가들에게 문학작품창작에서 주체사상의 원리에 기초하여 혁명적인 사회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여 주체형의 인간전형을 보다 훌륭히 창조해나갈수 있는 길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사회정치적 생명체에 대한 이론을 문학창작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그 집단의 중심이고 최고뇌수인 수령의 절대적인 지위와 결정적인 역할을 잘 형상하여 당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옳게 밝히는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작가들은 혁명적 작품창작에서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상과 이론의 위대성, 령도의 위대성, 사상정신적 풍모의 위대성을 그리는데 첫째가는 관심을 돌려 빛나게 형상하여야 한다.

사회정치적 생명체에 관한 이론을 창작실천에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또한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한 성원으로서의 사람들의 사회정치적 생명의 본질과 그 귀중함을 생활적인 형상으로 깊이있게 밝히는것이다.

문학작품에서는 개별적인 사람들이 사회정치조직의 한 성원으로서 당의 령도밑에 수령과의 혈연적 련계를 공고히 하고 당과 운명을 같이 해나가는 과정이 곧 사회정치적 생명을 간직하고 빛내어나가는 과정으로 된다는것을 심도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사람에게 있어서 사회정치적 생명은 육체적 생명보다 더없이 소중하며 개인의 리익보다 사회적 집단의 리익이 더 귀중하다는것 그리고 사람은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당과 수령이 이끄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위업에 헌신할 때 영원한 정치적 생명을 빛내어나갈수 있다는것을 생활적 진실로 깊이있게 밝혀야 한다.

총서 《불멸의 력사》에 속하는 장편소설들에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과 아버지수령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혁명가들과 인민들의 숭고한 모습을 그림으로써 사회정치적 생명체에 관한 진리가 형상으로 심오히 구현되어있다.

장편소설 《백두산 기슭》만 보더라도 여기에는 조선혁명의 난국을 타개해나가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탁월한 사상과 빛나는 예지와 함께 위대한 령도풍모와 고매한 덕성이 숭고한 화폭으로 재현되어있으며 이와 함께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처럼 오직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며 수령님의 사상과의도대로만 행동하는 강세호를 비롯한 반일유격대원들과 《민생단》이라는 억울한 무명을 쓰고도 오직 장군님께서 계시는곳을 찾아 험난한 생ن길을 헤치는 리경준일행, 장군님의 품에 안기려는 불타는 념원을 안고 나어린 아동단원들을 이끌고 간고한 행군길을 뚫아가는 한남실일행 등의 형상이 생동하게 그려져있다. 작품은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으로서의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심오히 밝히고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속된 인민대중의 불패의 힘과 그 정치적 생명의 참다운 의미를 심도있게 일반화하였다.

작가들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에 관한 이론을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학습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따르는 우리 인민의 열렬한 충성심과 우리 사회의 빛나는 모습을 더 훌륭하게 형상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향토애, 조국애 주제의 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는것은 우리 문학앞에 나선 중요한 문제

심상길

오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자기 향토와 조국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하는것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우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쳐 나가기 위한 필수적 요구로 된다.

향토애, 조국애 주제의 문학작품을 창작하는것은 사람들이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국을 주제로 한 문학예술작품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조국은 삶과 행복의 요람이며 조국이 없이는 참다운 삶과 행복을 누릴수 없다는것과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과 후손만대의 행복과 번영을 보장하여주는 진정한 인민의 조국이라는것을 잘 형상하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자기 향토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가지게 하며 사회주의조국을 목숨으로 지키도록 교양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때문에 우리 작가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열렬한 향토애, 조국애를 심어 줄수 있는 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무엇보다먼저 우리 작가들은 조국은 삶과 행복의 요람이며 사회주의조국이 없이는 참다운 행복을 누릴수 없다는것을 깊이있게 파보여주어야 한다.

우리 인민들에게 있어서 향토는 사랑하는 조국땅의 한부분이며 향토애는 조국애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된다. 그러므로 우리 작가들은 문학작품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향토이자 조국이고 향토를 사랑하는 사람이 참다운 애국자라는것을 깊이 인식시켜야 한다.

향토애와 조국애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것만큼 생동하게 살아 움직이는 개성적인 성격을 형상하여야 한다. 자기가 나서자란 조국에 대한 사랑은 자기 조국의 한치한치의 땅이 자기의 목숨보다도 귀중하다는것을 인식하는데로부터 흘러나오는 사상감정이다.

그러므로 문학작품들은 구체적인 형상을 통하여 우리 인민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고향땅의

일목일초가 어찌하여 그토록 귀중한것으로 되며 돌도 없는 조국의 한부분으로 되는가를 예술적으로 밝혀내야 한다.

서정시 《사랑하노라 조국이며》(오영재)는 이런 점에서 의의있는 작품이다.

이 시는 조국을 무엇때문에 어찌서 사랑하는가를 우리 인민모두의 가슴속에 있는 진정을 대변하여 노래하고있다.

...

숨쉬는 공기도

내 조국의 맑은 공기가 제일이더라

한모금의 물을 마셔도

잔뼉을 굳히며 나를 키워준

내 조국의 물맛이

길을 걸어도

낮익고 사연깊은 산천을 바라보며 가는

내 조국의 길이 제일이더라

...

진실에는 가식이 없고 불필요한 설명이 없는것이다.

시인은 내 조국이 좋다고 그저 무턱대고 억지를 쓰지 않았으며 더구나 그 누구에게 강요하지도 않았다.

이 시에서 보는바와 같이 《내 조국의 맑은 공기》, 《잔뼉을 굳히며 나를 키워준 내 조국의 물맛》 등은 얼마나 생동한 우리 마음속에 차넘치는 정서이며 자랑인가. 그렇기때문에 시인은 《길을 걸어도 낮익고 사연깊은 산천을 바라보며 가는 내 조국의 길이 제일이더라》고 무리없이 노래하고있는것이다.

서정은 명확한 조준속에 있어야 한다. 향토에 대한, 조국에 대한 시인의 절절한 사랑의 감정이 시전편에 풍만한 서정으로 짙게 흐르고있는것이다.

가사 《내 어머니 내 조국》(리정술)도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을 철학성이 깊고 세련된 시적 표현으로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상감정을 노래하고있다.

가사는 조국에 대한 우리 인민의 사랑의 감정을 어머니와 자식간의 관계에 비유하여 깊이있게 밝히고있다. 그 어느 자식도 차별없이 대하면서 온갖 사랑을 다하는것이 우리 어머니의 품이다. 때문에 자

식들은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의 품을 잊지 못하는 것이다.

바로 가사는 이 관계를 조국에 대한 우리 인민의 사상감과 결부시켜 훌륭히 형상화하고있다.

조국과 우리 인민들의 삶의 이러한 혈연적인 관계를 통하여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한없이 소중한 조국을 버릴수 없다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의지를 확인한 여기에 이 가사의 커다란 사상에술적 견인력이 있다.

애국심은 자기 조국의 강토와 력사와 문화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며 그것은 또한 자기 고향과 고향 사람들에 대한 애착심, 자기 부모처자에 대한 애정에서 표현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향토애, 조국애를 심어 주자면 예술영화 《도라지꽃》처럼 사상에술적으로 우수한 작품들을 창작하여야 한다.

《도라지꽃》! 이 영화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으로 남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현시기 당사상사업의 요구에 맞는 의의 있는 문제, 다시말하여 향토애, 조국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를 독특하고 풍만하게 예술적으로 감명깊게 형상하였기때문이다.

누구에게도 다 나서자란 고향은 있으며 그 어디에서 살든 고향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고향에 대한 애정과 조국에 대한 사랑심은 고향과 조국을 사랑한다는 말로써만이 아니라 자기의 고향산천을 꾸리고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한 자기의 헌신적인 투쟁에서 나타나야 한다.

바로 영화는 조국의 한부분인 자기가 나서자란 고향을 위해 청춘도, 사랑도, 생명도 다 바쳐 투쟁하는 주인공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향토애와 조국애의 정신을 깊이 심어주고있다.

도라지꽃 처녀로 불리우는 주인공 송림은 처녀로서 사랑을 귀중히 여기였다. 일찌기 원수놈들에게 부모를 여인 송림은 하나밖에 없는 동생과 같이 살면서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원봉을 남달리 사랑하였으며 그를 언제나 믿고따랐다. 하지만 원봉이가 고향을 버리고 떠나자는 요구에는 응할수가 없었다. 송림에게는 애인보다도 자기가 나서 자란 고향땅이 더 귀중하였기때문이었다. 영화에서는 송림과 그 애인의 상반되는 운명선을 깊이있게 보여 주고있다.

송림의 형상을 통하여서는 잘살아도 못살아도 자기 고향, 자기 조국이 제일 좋고 그것을 빛내기 위하여 투쟁할 때 반드시 크나큰 행복이 마련된다는것과 원봉의 형상을 통하여서는 제 고향, 제 나라가 좋지 않다고 버리면 결코 행복할수 없고 결국에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탄할 때가 있다는것을 생

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여기에 바로 고향에 대한 사랑을 조국에 대한 사랑으로 승화시킨 영화의 철학적 심오성이 있으며 인식교양적 의의가 있다.

우리의 모든 문학작품들은 구체적인 형상을 통하여 우리 인민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고향땅의 일목일초가 어찌하여 조국의 한부분으로 되는가 하는것을 깊이있게 밝혀내야 하며 우리의 조국은 어버이수령님의 품, 한없이 고마운 당의 품임을 개성적인 형상으로 생동하게 펼쳐보임으로써 사람들의 심장을 뜨겁게 뒤흔들어놓아야 한다.

예술영화 《도라지꽃》이 보여준것처럼 통강냉이에 토장국을 먹어도 내 고향, 내 조국이 제일이고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자기가 나서자란 고향을 반드시 행복의 락원으로 꾸리고 그것을 목숨으로 지키겠다는 각오가 스스로 울려나올수 있도록 이 주제에 바쳐지는 모든 문학작품의 형상성을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다음으로 오늘과 같은 참다운 인민의 조국을 세우기 위하여 피흘려 싸운 항일혁명선렬들과 애국선렬들의 투쟁을 훌륭히 형상하여야 한다.

항일혁명선렬들과 애국선렬들은 잃어진 향토와 조국이 그리웠다. 그들은 짓밟힌 향토와 조국을 찾기 위해 항일대전의 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혈전만리, 불구름만리를 헤치며 조국의 광복을 위해 투쟁하였다.

바로 이들의 투쟁과정에 대한 진실한 예술적 화폭을 창조함으로써 오늘의 세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내 고향, 내 조국이 어떻게 찾아졌고 내 고향, 내 조국을 위해 왜 성실한 땀을 흘려야 하는가에 대하여 예술적 해답을 주어야 한다.

특히 간고하고 어려운 투쟁을 직접 체험해보지 못한 새세대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지로 간직하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가도록 지향시키자면 이 주제의 작품을 왕성하게 창작하여야 한다.

우리의 문학작품들이 새세대들에게 이 땅우에 이룩된 모든 혁명적 전취물이 왜 그처럼 귀중한가 하는가를 깊이있게 체득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자기 집과 자기의 마을, 자기의 일터를 사랑하는데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인민정권과 자립적 민족경제, 찬란한 민족문화를 자기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튼튼히 지키고 빛내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 작가들은 사회주의조국을 원수들의 침해로부터 옹호보위하고 더욱 융성번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생을 다 바쳐 일하는 숨은 애국자들의 전형을 잘 형상하여야 한다.

숨은 영웅, 숨은 공로자들은 직위와 명예를 바라지 않고 당과 수령의 원대한 구상을 조국땅위에 꽃피우기 위하여 누가 보건말건 한생을 애써 일하는 우리 시대 인간의 전형이다.

혁명의 주인된 높은 자각과 깨끗한 당적 량심을 가지고 그 어떤 명예나 보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삶의 순간순간을 빛내여가는 여기에 숨은 영웅들의 고상한 사상적 특질이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창작가, 예술인들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생을 묵묵히 바쳐 성실하게 일하는 숨은 영웅, 숨은 공로자들의 고상한 사상정신적 풍모와 실천적 모범을 깊이있게 형상한 작품을 많이 창작하여 조국을 사랑하고 빛내이자면 어떻게 살며 일하여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해답을 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예술영화 《평범한 사람》은 김원삼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의 본분은 무엇이며 나라에 보탬을 주는 당적 량심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하는것을 문제로 제기하고 그에 명확한 사상예술적 해답을 주고있다.

영화는 나라와 인민을 위한 위훈속에 살면서도 자랑할줄 모르며 한평생 위훈을 가슴속깊이 묻어두고 누가 보건말건 성실히 일해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당의 품속에서 살며 일하고있는 로동당원들이며 우리 시대 숨은 영웅들이라는것을 생동한 예술적 형상으로 힘있게 확증하고있다. 영화에서는 주인공 김원삼의 형상을 통하여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성실히 일해가는 우리 시대의 참된 혁명전사의 한없이 숭고한 정신세계를 감동깊게 보여주고있다.

인간이 아무리 평범하다고 하여도 그가 걸어온 길에는 우여곡절에 찬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을것이다.

그러나 영화는 그 과정을 삶과 죽음, 리별과 상봉, 기쁨과 슬픔 등의 교차과정으로만 펼쳐보이지 않고 오늘도 평범하게 살아가는 보통인간, 우리가 흔히 어딜 가나 볼수 있는 그런 사람의 평범한 성격과 생활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사람들에게

이처럼 살라고 새롭게 깨우쳐줌으로써 작품의 사상예술적 가치를 비상히 높이고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원삼이라고 해서 그저 시키는 일이나 수격수격하는 사람이 아니다.

주인공 원삼이가 전동기개조안을 두고 부기장장 학민에게 한 말

《당신같은 사람은 제 하나만 편할수 있다면 나라가 거덜이 나두 눈섭하나 까딱하지 않을 사람이요... 내 오늘까지 대가를 바라며 일하는 사람들속에서 충신을 보지 못했소!》

숨은 영웅이라고 하여 그저 제앞에 차례진 일이나 묵묵히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만을 그린다면 그것은 참된 인간전형이 될수 없다.

나라를 위해 성실히 일하는 우리 당에서 찾아주고 내세워주고있는 우리 시대의 숨은 영웅은 자기의 위훈을 묻어두고 평범하게 살면서도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온갖 낡은 사상과는 타협함이 없이 끝까지 투쟁하는 참된 혁명가들이다.

향토애, 조국애를 형상한 작품들은 누구나 국가와 사회의 믿음직한 주인으로서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온갖 조건이 마련되고있는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야말로 얼마나 우월한 사회제도인가 하는것을 생활적으로, 형상적으로 확증하는데 모를 박아야 한다. 우리의 문학작품들이 구체적인 생활을 담아야 하는것만큼 그 어떤 웅장한 생활화폭보다도 평범한 근로자들이 살며 일하고있는 향토의 소박한 생활, 평범한 자기 초소에서 성실히 땀흘려 일하는 생활을 통하여 사회주의조국을 사랑하여야 한다는 사상을 강조하여야 한다.

언제나 당이 요구하는 작품을 쓰는것을 당적 작가의 숭고한 본분으로 간직한 우리 작가들은 향토애, 조국애를 형상한 문학작품창작에 큰 힘을 넣음으로써 당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초미의 문제에 대한 예술적 해답을 주어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사상에술적으로 우수한 향토애, 조국애를 형상한 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당의 기대와 신임에 충성으로 보답할것이다.

이어지고있었네

김광춘

아름다운
저녁노을을 안고 그는 걸어가네
강변 유보도 따라
퇴근길에 오른
이 거리의 책임비서

여기서 그를 누가 모르랴
가까이 멀리
존경담아 보내오는 인사
모자 벗어 정중히 받아주며
천천히 흐뭇히 걷는 그 걸음

아이의 손목 갈라잡고
마주오는 젊은 부부
허리굽혀 아이의 능금볼도 다독여주고
(이크, 큰놈이로군)
물가로 성큼성큼
로인의 낚시대에서
푸들 짝 꼬리치는 잉어도 따주며

걸어가네
삼삼오오 처녀총각들
흘러가는 유보도,
그들의 웃음소리
정겨운 속삭임소리
마치 그속에서 되짚어지는듯

얼마나 좋은 저녁인가
이런 땐 목단추 하나 풀어놓아도 좋으리
지방공장 시제품도 보아주며
입당문건이 올라온
어느 농장의 젊음이라도 만나주며

분망히 보낸 하루의 피곤도
저 강물에 실려가는듯

히나 유보도는 여기서 끝나는가
저 바루 앞서 걸던
처녀총각도 벗어나고
그들의 즐거운 이야기도 벗어섰으니
뒤따라 벗어나는 발걸음과 함께
마치 오늘의 기쁨도 다 벗어나는듯

(너무 짧군)
그의 뇌리에 번개치는 생각
당의 뜻 받드는 길에
내 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었고
무엇을 아직 못주었는가

기쁨에 기쁨을 이으며
행복에 행복을 이으며
흘러가는 강물을 따라 끝없이 끝없이
저 유보도를 이어놓으리리
그의 가슴속에서
집행위원회 새 결정서
먹내 싱그런 글발이
떠오르고있을 때

그 저녁길에서
함께 이어지고있었네
인민의 기쁨을 위해 걷는
끝모를 행복의 저녁길이
당의 뜻으로 살며 일하는
당일군의 빛나는 생명도

분수비에 젖어 사랑에 젖어

리근지

분수관 따라
물길을 따라
나는 끝없이 걸어가노라
하늘엔 종다리 봄종다리 노래 부르고
검붉은 땅은 아지랑이 날리며 웃네

저기 분수의 뿌무개 돌아보는 처녀야
어쩌면 사나이의 마음 다 빼앗느냐

말쭙 하렘 함초롬히 내리는 분수비에
연분홍 비옷자락 선녀처럼 날리며
무지개속에 무지개속에 사라지지 말고

지난 세월
땅이 타고 가슴이 타던 추억 털어버리며
분수비 내리는 별 아득히 바라보는 아바이
수염발 흐뭇이 쓰다듬네

-어허 별세상이로다
더 일할 때로다

과연 더 일할 때로다
분수비에 온몸이 푹 젖는줄도 모르고
한껏 물먹는 흙 한줌 움켜쥔채
봄빛에 봄향기에 취해 가슴젖는
아, 하늘땅을 무지개로 이어주신
수령님의 사랑이여

어디냐, 한소나기 지난뒤 젖은 옷 짜며
황홀히 바라보던 무지개는
오늘은 청청한 하늘을 적시는 보슬비
땅에서 솟아 일어서는
사랑의 무지개속에 내 취하노라

종다리는 하늘끝에서
작은 가슴 노래로만 벅차

푸른 들 아롱진 무지개속에 꽃했다는 솟구치고
한껏 부푼 가슴 풀어헤친 땅이
쭉쭉 단비를 빨며 새싹을 움틔우는 소리
흐뭇한 마음 땅과 이야기하며 터놓는 기쁨아

위대한 농촌체제의 빗발아래
보아라 벌에 더기에 층층 다락밭에
온 나라 하늘땅 가득히 일어서는 무지개
분수의 무지개 타고온 봄이어서
이 마음 이리도 부풀어 설레느냐

아득한 벌 한끝에 이어져
저 하늘 끝까지 적시며 내리는 분수비
분수비를 한껏 빨아들이는 땅처럼
나는 단가슴 헤치고
무지개속으로 달려가며 소리친다
-새 봄이로다
과연 더 일할 때로다!

우리는 살아서 왜 여기 남았는가

김영근

피의 홍수가 밀려간 거리
꽃도 지고
봄도 가고
새들도 울며 날아가버렸다

허나 광주여, 죽음의 도시여
우리는 살아서 왜 여기 남았는가
유령도 아닌,
천사도 아닌,

우리는 살아서 왜 여기 남았는가
홀어머니 애정이 발목을 잡아선가
쓰러진 학우들을 못잊어선가

아니다. 우리는 살아서 여기 남았다
제 흘린 피가 눈비에 씻길가봐
피젖은 자욱우에 독버섯이 돋을가봐

오, 우리의 숨결이
자주정신 살리는 봄바람이 되려고
우리의 더운 피가
민주의 꽃피울 온기가 되려고

우리는 살아서 여기 남았다
마지막 한사람이 남는대도
독재를 불사르는 불씨가 되려고
꺼지지 않는 화불이 되려고

작가의 문체

오영환

(제 5 회)

작가의 관찰력과 문체

《저 친구 어수룩한체하지만 밑으론 호박씨 깐다니까. 임대하자마자 유격대의 꽃이 기관총수라는걸 제격 알아차리구 진드기처럼 달라붙는걸 보지.》

이 레문에서 《밑으론 호박씨 깐다니까》는 《뒤로 호박씨 깐다》를 약간 변형시킨것으로서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고 남모르게 엉큼한짓을 하는것을 이르는 말이다.

이 속담은 과장의 수법으로 만들어진것인데 작가는 그것을 《어수룩한체하지만》과 결합시켜서 반의적 성격을 띠게 리용함으로써 대상의 본질을 방불하게 나타내고있다.

이러한 표현적 효과는 결과 속이 다른 모순을 련결시켜보려는 예리한 관찰에서 얻어진것이다.

《...깡궁이놀음을 했으면 후에라도 여사여사하다구 한마디 귀뜸이라도 해주는게 한가마밥 먹구 사는 사람의 의리지 아직도 수염을 뺨 내리썰구선 좋다구 흥타령만 부르니 이따위 고약한 친구를 과연 친구 함께 살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이 떠오른단말이야.》

이 레문에서 《한가마밥 먹구 사는 사람의 의리지》는 《한가마밥 먹은 사람이 한울음을 운다》를 약간 변형시킨것으로서 처지가 비슷하고 같은 환경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뜻이나 행동이 서로 통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수염을 뺨 내리썰구선》은 《수염을 내려썰다》를 약간 변형시킨것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나 마땅히 하여야 할 일도 하지 않고 모르는체 시치미를 떤다는 말이다.

처음의것은 필요에 따라 속담의 일부만을 쓴것이고 다음의것은 표현하려는 내용에 녹여붙인것이다.

성구속담의 이러한 창조적 리용은 서운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타이르는 사람에 대한 관찰에서 얻어진것이다. 속히운 사람은 거짓과 진실의 모순을 밝히기마련이다.

우는소리는 부자놀이 한다더니 정말 내참, 난 저같으면 닐리리를 부르겠다.

이 레문에서 《우는소리》는 《실지이상으로 염살하며 곤난한 사정을 늘어놓는 말》로서 뒤에

오는 《닐리리를 부르겠다》와 반의적 성격을 띤다. 《닐리리》는 피리, 새납같은 관악기의 풍악소리를 형용하는 말이나 여기서는 《부르겠다》와 어울려서 내용의 본질이 더욱 생동하게 리해된다.

이것은 반의적 성격을 띠게 하여 대상, 현상을 특징짓는 소설가 김병훈의 관찰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경향성으로 된다.

성구속담리용에서 나타나는 이 작가의 다른 또 하나의 경향성은 자기 관찰의 요구에 맞게 성구속담을 변형시켜 쓰는것이다.

쥐새끼가 소대가리를 깨무는 격이라 입에 넣은 채 삼키지 못하고 꺾떡거리는 숨가쁜 형국이기에는 하였으나 그렇다고 3년동안 피투성이 싸움을 하여 베여문 고기덩어리를 게워놓을수 없는것이 일본의 립장이였다.

이 레문에서 《쥐새끼가 소대가리를 깨무는 격》은 《고양이 소대가리 말은 격》을 변형시킨것이다.

중국을 침략한 일본은 땅의 크기로 대비해볼 때 차이가 엄청나고 또 미국과 손을 잡아 먹을 보려는 일본은 그 나라보다도 작다.

이러한 관찰을 표현하는데는 고양이보다 쥐새끼가 더 적중하고 《말은 격》보다 《깨무는 격》이 더 어울린다.

《...그놈들을 거꾸로 함정에 몰아넣고 이리저리 들구치며 눈알이 쏟아져나오게 때려눕힙시다. 이렇게 되면 마에다라는 흉악한 살인귀도 불나비가 불속에 날아들듯 제발로 우리를 찾아올것입니다.》

이 레문에서 《불나비가 불속에 날아들듯》은 《나비가 밝은 불을 찾아온다》를 변형시킨것이다. 마에다와 같은 살인마에게는 《나비》가 적당치 않았고 《밝은 불》, 《찾아온다》 등이 어울리지 않았다.

원래 불을 보고 날아드는 나비를 통털어 이르는 말은 《부나비》인데 레문에서는 불을 즐기는자에게 어울리게 《불나비》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밝은 불》은 《불》로, 《찾아온다》는 《날아들

듯》으로 표현하여 침략자의 악독한 물골을 더욱 방불하게 드러내었다.

작가는 이와 같이 자기 관찰의 요구에 맞게 성구속담을 변형시키기도 하는 것이다.

이런 경지에 오르자면 우선 성구속담을 많이 알아야 한다. 그런 기초우에서만 자기 관찰의 요구에 맞게 변형시킬수도 있고 새롭게 창조해낼수도 있는 것이다.

다시말하여 성구속담을 많이 익히고 그것을 널리 리용하게 되면 그 작가와 작품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성구속담이 오랜 인간생활의 경험과 교훈, 슬기와 지혜를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그것을 능숙하게 활용하는 작가에게는 인간과 그 생활을 생동하게 응심깊게 보는 넓은 길이 열리게 된다.

그때라야 비로소 작가는 성구속담에서 암시받은 강한 충동으로 현실생활속에서 새로운 경험과 교훈을 찾게 되고 새로운 슬기와 지혜를 낳게 된다.

그것이 곧 작품에 나타나게 되는데 주어진 사상과 내용이 생동하고 응심깊게, 민족적인 정서와 향토적 색깔이 있게,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되게 된다. 작가와 그 작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질적 변화는 성구속담을 능숙하게 활용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가 하는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편집자는 문학통신원들의 수많은 소설원고들을 다루면서 때로는 속담 하나 구사하지 않은 단편소설을 읽어야 하였다. 그런 작품은 하나같이 등장인물들의 정신생활이 빈곤하고, 생활도 무미건조하였다.

글에 맥이 돌지 않고 윤택이 흐르지 않으니 산 사람의 숨결이 생겨날수 없고 움직이는 생활이 살아날수 없었다.

한 문학통신원이 이 리치를 어떻게 깨닫는가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다.

편집자는 한 문학통신원에게 보낸 첫 편지에서 그가 알고있는 속담중에서 투고한 작품에 구사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속담을 사실대로 적어보내라고 썼다.

첫 회답을 받아보니 그가 실지 알고있는 속담이 많지 못하였다.

두번째 편지에는 한달을 기한으로 하고 생활속에서 성구속담을 수집해보내라고 썼다.

두번째 회답을 보니 투고했던 소설에 구사할수 있는 속담이 몇개가 더 보충되었다.

친해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책을 읽는다고 하여 이것저것 닥치는대로 읽어서는 안됩니다. 책은 당면한 창작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것부터 우선 읽으면서 자기의 정치리론수준과 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한 뚜렷한 전망목표를 세우고 읽어야 합니다.》(《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작가들의 정치적 식견과 창작적 기량을 결정적으로 높이자》, 단행본, 11 페이지)

편집자는 세번째 편지에 이 명제를 알려주면서 석달을 기한으로 하고 《성구속담집》을 탐독하면서 투고한 작품에 써먹을수 있는 속담을 다 뽑아보내라고 썼다.

세번째 회답을 보니 그가 투고했던 작품에 쓸수 있는 속담이 굉장한 수자로 늘어났다.

편집자는 세번째 회답을 받아보고 실패한 첫 작품을 개작하도록 하였다.

수정한 작품이 다시 왔을 때에는 그의 글에 맥이 돌기 시작하고 윤택이 흐르기 시작하였던것이다. 이것은 그의 다음번 작품에, 아니 그 다음번 작품에는 기대를 걸수 있는 귀중한 싸이였다.

그 기대는 헛된것이 아니였다. 지금 그는 소설다운 소설을 창작하기 시작한것이다.

다시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에서 생동한 표상을 주는 문장들을 더 분석해보자.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에서 생동한 표상을 주는 문장은 직접비유와 성구속담리용수법으로 표현된것만이 아니다.

그외에도 숨은비유, 에두름법, 과장법, 사람비유, 점층법, 렬거법, 보충법 등을 리용하여 생동한 표상을 주는 문장이 적지 않다.

이미 앞에서 1960년에 발표한 이 작가의 단편소설 《길동무들》에는 표현수법리용에서 주로 직접비유와 성구속담리용 수법을 많이 취하였다는것을 찾아보았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20년후에 발표한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에서는 표현수법 리용이 매우 다양해졌다는것을 찾아보게 된다.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는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창작기량이 높아진것으로 볼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구체적인 의미에서 인간생활을 폭넓고 깊이있게 보는 관찰능력으로 보기로 한다.

단편소설 《길동무들》을 창작하던 시기에는 인간생활과 자연현상을 주로 비유해보고 련결시켜 보았다면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를 창작하던 시기에 와서는 숨겨보고 에둘러보고 확대해보고 쌓아보고 풀어보고 본따보는 것이 새롭게 보충되었거나 미미했던것이 확연해지였다.

이제 그것을 차례로 분석해보자.

숨은비유로 표현한 실제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에서 생동한 표상을 주는 문장들과 거기에 리용된 표현수법을 보면 직접비유, 성구속담리용 수법 다음에 가장 많이 리용한 표현수법이 숨은비유이다.

숨은비유는 문맥상에서 일시적으로 바뀌는 새 뜻을 얻어내는 수법으로서 생동한 표상과 함께 섬세한 감정을 나타내는 기능을 수행한다.

영남을 힐끗 결눈질하고난 오중훈은 시치미를 뚝 따고 한마디 더 불질을 하였다.

《불질》은 총이나 포를 쏘거나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이르는 말인데 여기서는 문맥상에서 《걸고들었다》는 새뜻으로 바뀌었다. 《불질을 하였다》는 표현은 《걸고들었다》는 표현보다 비할바없이 표현적 질이 높다. 그것은 표상의 생동성에서 숨겨진 뜻에서, 감정의 섬세성에서 나타나고있다.

《…매일같이 사처에서 적정보고가 들어오지만 여전히실뿐아니라 이렇게 나를 외지에 내보내시군 하시니 속이 쏴아 못견디겠소.》

《쫄다》는 《줄다》를 알잡아 이르는 말인데 이 레문에서는 문맥상에서 일시적으로 《조이다》로 뜻이 바뀌었다. 《쫄다》는 말속에 말이 있는것으로 하여 말하는 사람의 심리상태를 방불하게 드러내었다.

《…사실은 사령관동지께서 걱정하시던 말씀을 다 털어놓고 일러주었더니 눈에 이슬까지 그렇게서 분부대로 하겠노라고 선선히 대답하였는데 제가 떠나자 무슨 돌개바람이 불었는지…》

《돌개바람》은 한곳의 기압이 낮아질 때 돌레공기가 한꺼번에 모여들어서 용수철모양으로 타래쳐 올라가며 불어치는 바람을 이르는 말인데 여기서는 문맥상에서 일시적으로 《충동》이라는 새 뜻으로 바뀌었다. 《무슨 돌개바람이 불었는지》라는 말이 《무슨 충동을 받았는지》라는 말보다 표현적 질이 높은것은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심리를 눈에 보이듯 형태화한데 있다. 이와 같이 정신적이고 심리적인것을 눈에 보이듯이 형태화하는데서 표현적 효과를 얻고있는것이 하나의 경향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뒤쫓기는 모진 생활과 덧없이 흐르는 세월은 장호의 가슴속에 단념이라는 차거운 얼음장을 깔기 시작하였다.

《얼음장》은 큰 얼음조각이거나 《몹시 참》을 비겨이르는 말인데 이 레문에서는 일시적으로 《생각이 떠지다》라는 새뜻으로 바뀌었다. 《생각이 떠지다》도 정신적이고 심리적인것이다.

…련달아 떠오르는 그 얼굴들과 함께 가슴속에 그득히 실려오는 후더운 감회는 한생 처음으로 체험하는 인정과 사랑의 세찬 밀물이었다.

《밀물》은 일정한 간격으로 밀려들어오는 바다 물을 이르는 말인데 여기서는 문맥상에서 일시적으로 《힘》이라는 새뜻으로 바뀌었다. 《힘》은 형태가 없는것인데 형태화하였다.

그(도꾸다)가 돈화거리에서 멀지 않은 목단하치의 노란자위림지를 차지하고 업자들이 제일 골치를 앓는 채벌인부들을 삼시간에 2천명이나 끌어들이어 대뜸 일대에서 제일 큰 산판을 차려놓아 린군 목재업자들의 눈이 돌아가게 만든것은 모두 군부의 뒤받침으로 이루어진것이었다.

이 레문에서 《눈이 돌아가게》는 문맥상에서 일시적으로 《놀라게》라는 새뜻으로 바뀌었다. 《놀라다》 역시 정신적이고 심리적인것이다.

《기관총몸살을 앓던 사람이 갑자기 ?》

《몸살》은 팔다리가 쭈시고 오솔오솔 춥고 떨리는 증세를 이루는 말인데 이 레문에서는 일시적으로 기관총을 갖고싶어 안타깝게 속태우는 《안달》의 새뜻으로 바뀌었다. 《안달》도 역시 심리적인것이다.

《…우덕근동무가 우리 유격대의 비밀무기고를 알아냈구만. 》

《비밀무기고》라 하면 숨겨진 무기창고를 이르는 말인데 여기서는 문맥상에서 일시적으로 《정신력》이라는 새뜻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표현적 효과는 형체가 없는 대상, 현상을 형태화해보는데서 얻어진것이다.

…아베는 국내에서 전례없는 초긴장정책을 실시하여 국민생활을 비틀었으나 거기서도 그는 빠져나갈 길을 열지 못하였다.

《비틀다》는 꼬면서 트는것을 이르는 말인데 이 문맥상에서는 강그리 《짜내다》의 새뜻으로 바뀌었다. 이런 표현적 효과는 젖은 옷에서 물기를 짜내는 현상과 같은 속내를 본데서 얻어진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심장과 하는 말 외 1 편

김형준

심장이여
나의 소중한 불이여
너 언제부터 가슴속에서
나의 피를 끓여주는 불로 되었던가

그것은
달빛내린 창가아래서
소중한 나의 꿈을 키워주며
어머니가 흔들어주던 요람속에서부터더나

아니면
북부철길 공사장에서
뜨거운 숯덩이로 바위에 첫 시를 쓰며
심장아 말해달라고 너를 찾던 그때부터나

낮에도 밤에도
일을 해도 잠을 자도
내 열정의 영원한 불
내 넋에 세찬 불을 지펴주는 심장이여

언제나 너는
가슴속 깊은곳에서
내가 지닌 뜨거운 열정 불태워
내 가슴의 혼장에 밝은 빛을 더해주었고

내 또한
내가 바란것이라면
물속도 불속도 웃으며 걸어
너와 맺은 약속 지키리라 다짐했지
그러기에 내

공사장으로 떠나던 날
돌격대의 붉은 기폭에 가슴대이고
청춘의 위혼을 맹세하지 않았던가

그날 너와 나
정녕 약속하지 않았더냐
가야 할 천만리길에 너 주저한다면
내 넋은 너의 불길 다시 지피리라고

약속하지 않았더냐
조국에 바칠 청춘의 맹세도
내 처녀와 나는 첫사랑의 고백도
너를 곁고 너의 이름으로 지켜갈것을

하지만 심장이여
너 보이지 않는다고
너의 이름 팔아 거짓 맹세 다진자도
값없는 삶을 위해 너를 아낀자도 있거니

심장이여 내 만일
생활의 향락에 젖어
순간이나마 안일한 삶을 꿈꾼다면
기름마른 등불처럼 너의 불길 꺼버려달라

원하노니 심장이여
단죄에 녹이 쓸지 않듯
너 언제나 열정의 불이 되어다오
내 너의 불길속에 버려진 강철이 되게 !

물과 모래와 돌이면...

내 언제나
무릎치는 몰탈을 밟으며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언제를 쌓으며 걸어갈 나는 타입공

쉬는날, 명절날
종일 굳은 땅을 밟을라면
어쩐지 생소한 길갈아
못내 그리운 타입장의 몰탈길

내 지구에 축을 박는듯
몰탈속 깊숙이 진동기를 박을 때면
그 축을 따라 지구가 도는듯
타입공의 궁지 하늘 땅 넘치거니

마른 날 곳은 날에도
언제나 나는 가네 몰탈길을
가야 할 천만리 길에 마른 길만 없다고
자옥자옥 깨우쳐주는 《진펄길》

내 그 《진펄길》을 탓하랴
세월은 햇빛과 물과 바람으로
산악을 허물어 모래를 만들어도
우리의 몰탈길은 언제되어 굳어지나니

세월이 선사한
그 물, 그 모래, 그 돌이면
나는 지구도 빛을수 있다
혁명과 건설의 조국에 사는 건설자의 권리로!

합수목에서

김대성

무슨놈의 날씨가 이 모양인지 청명이 코앞인데 때아닌 눈꽃이 흩날렸다. 방금전까지 아물대던 아지랑이들은 간데없이 사라지고 움트는 새싹들로 파릇파릇해지던 강변은 백포를 뒤쓴듯 새하얘졌다. 뒤미처 구름의 장막을 헤치고 해님이 불끈 얼굴을 내밀자 흰눈은 줄지에 녹아버렸다.

금시 겨울인가 하면 금시 봄이었다.

입룩장만이 북방의 번덕스런 날씨를 탓함이 없이 언제나 푸른 기상을 시위하며 장엄하게 흐른다.

오후 뗏시경, 세멘트상선작업을 끝낸 《혁신》호 선단은 발전소건설장을 향하여 곧 출항하였다.

짐배들이 오손도손 꼬리를 물고 따라오는 그뒤로 상선부두는 점점 멀어졌다. 선창가에 우두커니 서있는 대형번압기들과 발전기들은 마치 배편을 놓친 길손들처럼 측은해보였다. 저 멀리 위원땅에 강심깊이 뿌리를 박은 언젠는 높은 산과 어깨를 겨루며 키를 솟구쳤는데 발전설비들은 아직도 상선부두에서 떠날 엄두를 못내고있으니 문제다.

속이 답답해진 최창보선장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기관장, 속도를 더 올리게!》

《혁신》호는 박차를 가한 준마처럼 발동소리를 높이 울리며 강 한복판을 꺾질러 나갔다. 쌍쌍이 떠돌던 물오리떼가 황급히 깃을 치며 날아올랐다.

아직도 뭔가 불만족스러운듯 찌뿌둥해있던 최창보는 혀를 끝끝 찼다.

《갑판장, 밥은 안짓고 뭘하나?》

배머리에 오도카니 서있던 애젊은 청년이 흠칫 고개를 돌렸다.

《기사동무를 찾아보는중이에요.》

《해동갑하여 떠났다는 사람이 이 주변에 있을게 뭤가. 바람도 찬데 어서 선실로 들어오라구.》

선단이 두번째 여울을 지나자 최창보의 근심어린 눈빛은 저도 모르게 강변을 어루쓰다듬기 시작하였다.

방금 내려조이기 시작한 봄벌의 애무를 받아 엉성하던 버들숲은 한결 생기를 머금고 버들개지를 하얗게 불리웠다. 그러나 아직도 음지엔 두터운 얼음장들이 백곰의 떼인양 웅크리고 앉아 싸늘한 랭기를 풍겼다.

강물에 손을 잠그면 금시 뼈속까지 얼어들듯한 이런 날씨에 버들개지같이 어린 막내딸이 홀로 배길조사를 떠났다니 마음을 놓을수가 없었다. 글씨

될만한 일을 가지고 하는 고생이라면 여복이나 좋으련만 되지도 않을 일에 바둑바둑 애를 쓰니 곁에서 보기에 정녕 민망스러웠다.

《쳇, 암만 생각해봐두 맹재길이 그 친구가 틀려 먹었다말이에요.》

최창보의 속마음을 넘겨봤는지 갑판장은 쌀을 일며 두덜거렸다.

《허, 조꼬만 녀석이 제 형벌이 되는 사람더러 그 친구가 뭤가. 버릇없게스리.》

갑판장은 자존심이 상한듯 부쩍 코를 추켜들며 그 친구란 말을 곱씹었다.

《그 친구 기사동무의 설계를 망쳐놓자는거예요. 발전소조업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판에 그런 소소한 문제를 코에 걸고 늘어질진 뭤가말이에요.》

그 말에도 일리가 없는것은 아니었으나 최창보는 짐짓 나무랐다.

《번압기기름이 오염되면 그만큼 효율이 떨어진다질 않니.》

《기껏해야 열덫크바 손실을 보겠지요. 그건 새발의 피예요.》

쌀함박을 켜뿌린 갑판장은 손가락을 꼬아가면서 시시콜콜 설명을 했다.

번압기의 대당 출력은 무려 수만수천크바에 달한다. 이게 얼마나 큰 수자인지 알기나 하는가? 해종일 밥도 안먹고 잠도 안자고 셈을 세도 다 못셀 엄청난 수자라는것이였다.

갑판장이 어쩌면 신통히도 자기 생각을 그대로 말했던지 최창보는 내심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렇지. 이거야말로 막부득한 일이 아닌가. 수십만키로와트능력의 대형발전소를 건설하면서 그래 이쯤한 정도의 예누리를 할수 없단말인가. 큰일을 하자니 피차 사소한 손해쯤은 있기마련이다. 아무튼 최종협의회를 계기로 하여 무턱대고 연공청년에게 기울어진 딸의 우유부단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최창보는 야릇한 한숨을 내쉬며 고불통을 꺼내 물었다. 파르스름한 연기가 이 생각 저 생각을 불려주며 조타실에 떠올랐다.

X X

요즈음 발전소건설장에서는 물론이고 해운사업소에서도 발전설비들의 운반문제를 둘러싸고 논의가 분분했다.

기초를 파고 콘크리트혼합물을 다져넣기 시작할 때 갈아서는 언제만 쌓으면 그 우람진 구조물에서 전기가 저절로 튕겨날것만 같았다. 허나 정작 완공의 날이 박두해지고보니 언제란 물을 막기 위한 것에 불과했다. 발전설비들을 설치해야 비로소 전기가 생산된다는것을 그제서야 새삼스레 느끼게 되는듯싶었다.

상선부두로부터 발전소건설장까지는 150 리나 된다. 가파롭고 굽이돌이가 많은 이 산길로 백수십톤에 달하는 대형변압기들을 운반하는것은 매우 아픈찬 일이었다. 발전설비들을 제때에 운반하지 못해 조업기일을 앞당기지 못한다면 그런 맹랑한 일이 또 어데 있을가싶어 사람들은 조바심을 쳤다.

오늘까지는 언제를 쌓던 타입공들이 혁신자로 돋보였다면 래일에는 대형발전설비들을 끌어오는 사람들이 영웅으로 떠받들리우게 되었다. 너나없이 그런 영웅감이 어서 나타나기를 고대하면서도 그 대렬속에 자기자신도 슬며시 세워보게 되는것이였다.

하여 군중토의들이 활발히 진행되였다. 결과 수십건의 가치있는 방안들이 지휘부에 제출되었는데 감론을박을 거쳐 그중 두건이 당선되어 앞으로 최종결승마당에 나서게 되었다.

건설의 주인인 수력건설사업소 설비조립직장 연공반에서 제출한것이 그중의 한건이였고 건설의 지원부대인 해운사업소에서 제출한것이 다른 한건이였다. 어느 기업소가 내놓은 방안대로 발전설비를 운반하느냐 하는것도 자못 흥미있는 일이었지만 두 방안의 직접적인 작성자들이 역대우같은 연공청년과 꽃다운 처녀기사라 호기심은 각별해졌다.

연공 맹재길은 제대군인답게 기계화부대의 공격작전을 방불케 하는 방안을 내놓아 감탄을 자아냈다.

36 바퀴짜리 초대형추레라를 만들어 변압기를 싣고서 석대의 대형불도젤로 뱀다 끌자는것이였다. 듣기만 해도 통이 크고 대담한 작전이여서 많은 사람들이 찬성해나섰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그 행렬이 통과하자면 우불구불한 산길을 끝게 펴고 길폭도 두배로 늘여야 했으니 아이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는가고 일부는 고개를 기웃거렸다.

한편 해운사업소 공정기사인 수옥은 대학을 갓 졸업한 처녀기사답게 랑만적인 방안을 내놓아 경탄을 자아냈다.

전용짐배를 무어 변압기를 싣고서 발전소하천 부두까지 유유히 흘러내리자는것이였다. 이거야말로 신선놀음이었다. 그러나 수심이 얕고 물살이 빠른 이 구간의 배길에 그렇게 큰 짐배를 꽤 띄울수 있겠는지 그것이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냈다.

어쨌든 최창보선장은 막내딸이 못내 대견스러웠다. 그저 이날 이때까지 재롱반이로만 여겨왔는데 일판을 벌리는걸보니 사내장부 부럽지 않을 딸자식이였다. 하긴 이악쟁이 막내딸의 성미를 모르는바는 아니였다.

수옥은 철이 들기전부터 아버지의 《혁신》호를 타고 압록강을 유람하기를 즐겼다. 얼굴이 해말쑥한 제집애가 타륜에 매달려 생글거리는 모습이란 참 귀염상스러워서 선원들은 수옥이를 《물오리》라고 불렀다. 수옥은 굽이굽이 배길을 따라 사시장철 아름답게 변모되는 북방의 유별난 경치를 사랑했고 쫓개줄임을 곁들여 밥술을 달게 드는 배사람들의 소박한 생활에 그지없는 매혹을 느꼈다.

《우리 물오리가 이담에 크면 무엇이 될가?》

최창보가 이렇게 물을 때면 어린 딸애는 엉뚱한 대답을 하곤했었다.

《물오리는 커서도 물오리지요워. 난 이 배보다 더 크고 더 고운 꽃배를 만들어 타고다닐래요.》

그러더니 그 《물오리》가 정말로 해운대학을 지망하는 통에 최창보는 저으기 놀랐다. 수옥은 졸업후 갈매기 나래치는 망망한 바다를 마다하고 물오리때 흐르는 압록강으로 돌아왔다. 오자마자 십년째나 쓰고있던 열론짜리 짐배들을 25 톤급으로 개조하여 짐배수송량을 일약 두배이상으로 늘임으로써 자기의 존재를 력력히 보여주었다.

선원들은 압록강의 배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최선장의 막내딸이 다르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담이 커진 수옥은 덮어놓고 대형짐배를 만들겠노라 장담해나선것이였다. 막내딸의 꿈같은 희망이 어느 사이에 꽃이 피고 열매로 맺히게 되는가싶었다. 하건만 꿈이 현실로 되기란 그리 쉽지는 않는것이여서 최창보는 한편 근심도 없지 않았다. 아무리 따져봐도 배길수송은 확실히 모험적이였다.

《너 꽤 해낼만 하나?》

수옥은 할것 쳐다보더니 어리광치듯 아버지의 어깨에 매달렸다.

《아이참, 난 아버지를 믿고 큰소리를 친거예요. 발전소조업기일을 어길수야 없지 않나요. 절 도와줘요. 네 아버지.》

《그게 어디 떼를 쓴다고 될일이냐.》

최창보는 수지연필을 오무려쥐고 종이장에 략도를 꼼꼼히 그렸다. 특히 장자강과의 합수점에 있는 엄마여울을 두드러지게 표시했다.

여울바닥은 폭약을 밀어넣을 짬도 없는 청석암반이였다. 최창보는 30 년전 두꺼비발파를 해가며 겨우 이 여울바닥을 다스려놓았는데 지금도 짐배들이 자주 걸려서 애를 먹군하느니라.

《이건 엄마여울이군요.》

수옥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들려주던 태끼바위와 엄마여울에 깃든 전설이 떠올랐는지 못내 심하게졌다.

《일곱개의 여울중에서 이게 제일 말썽이다. 운봉언제의 취수구가 열려 강물이 불어날 때 조심스레 빠져나가면 한 백톤가량 실고갈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어렵도 없느니라. 아주 위험하지.》

뜻밖에도 수옥은 환성을 올렸다.

《됐어요! 그럼 대형변압기도 다 나를수 있어요.》

《아니, 백톤집배에 그 거물을 어떻게 실는다고 그러냐?》

수옥은 방그레 웃으며 귀뜸하였다.

《그건 간단하지요. 변압기안에 들어찬 기름이 38 톤이니깐요.》

그런즉 변압기의 무게를 대폭 감소시켜 나르자는 것이었다. 너무도 신기한 생각이어서 최창보는 무릎을 쳤다.

발전소건설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사를 걸머진 자신을 발견하게 된 수옥은 몹시 흥분했다. 일찌기 느껴본적이 없는 무거운 책임감과 가슴 벅찬 긍지는 처너지사로 하여금 침식마저 잊어가며 배길을 조사하고 설계도면을 그리게 하였다.

최창보선장은 정열에 불타 밤을 패는 딸의 모습을 점도록 지켜보곤하였다. 이럴 때면 재색에 정열까지 겸비된 미더운 딸자식의 반력으로 될 사람을 은연중 그려보게 되었는데 그럴만한 대상자가 쉬이 눈앞에 떠오르지 않아 행복스런 근심에도 잠기곤하는 것이었다.

수옥이가 설계한 전용집배는 해운사업소 일군들과 선원들의 한결같은 찬성을 받았다. 수옥은 너무 기뻐 눈물까지 그렁해졌다. 최창보는 이 날이 명절날처럼 생각될 기경이었다.

그날 저녁무렵. 웬 청년이 해운사업소 마당에 나타났다. 키도 크고 코도 크고 눈도 크게 체격부터 사내다운데 너무나 젊은 얼굴엔 노상 미소를 담고 있어 상당한 정도의 호남아였다. 울퉁 두드러진 앞가슴엔 군공메달락장이 두개 달려있었는데 그것은 공훈과 명예를 귀중히 여기는 제대병사의 기품을 유감없이 과시하는듯싶었다.

첫눈에 욕심나는 청년이어서 최창보는 홀린듯 바라보았다.

《가만, 저 젊은이가 우리 사업소에 배치되어왔나부지.》

바줄을 사리던 갑판장이 고개를 기웃거렸다.

《내가 저 사람을 발전소건설장에서 본것 같은데요...》

청년이 잠시 서성거리는데 뜻밖에도 수옥이가 달려왔다. 수옥은 깃듯이 인사차림을 하며 청년을 반갑게 맞아주더니 함께 조용한 설계실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이게 뭐야? 최창보의 두눈은 휘둥그레졌다. 제 어머니가 레장감을 장만하는걸 보고도 얼굴을 훌쩍 붉히며 몸둘바 몰라하던 막내딸에게 저런 멋쟁이종이가 있는줄은 정말 몰랐다.

최창보는 자기도 모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것만 같아 서운하기도 했고 한편 딸이 그만하면 괜찮은 대상자를 만났다는 안도감도 없지 않아 도무지 마음을 종잡을수 없었다.

잠시후 설계실문이 열리더니 청년이 나왔다. 웬 일인지 수옥은 문앞에서 간단히 바래주고는 인츰 들어가버렸다.

청년은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혁신》호 옆으로 어슬렁어슬렁 다가오더니 여기저기 간간스레 살피기 시작했다.

젠장 이건 뭐 배구경을 하는척하면서 가시애비 될 사람의 선을 보자는건가.

최창보는 금옥같은 막내딸의 사위감을 고르는 령감들이 흔히 그러듯이 마뜩지 않은듯한 눈찌로 흘겨보며 물었다.

《자넨 대체 누군가?》

청년은 주눅이 들 대신 가슴을 쪽 펴며 군대식으로 씩씩하게 대답했다.

《옛. 전 발전소건설장에서 일하는 연공 맹재길입니다!》

어쩐지 귀에 익은 이름이었다. 곁에 있던 갑판장이 탄성을 올렸다.

《그럼 36 바퀴짜리 대형추레라를 만들겠다면 그 연공형님이란말이에요?》

청년은 그쪽으로 절도있게 돌아서며 자못 정중하게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야, 이거 정말 반갑군요. 난 이 배 갑판장이예요. 수옥기사하구두 친한 사이구요. 내 누님이나 갈어요.》

애송이갑판장은 자기를 존대해준 연공청년이 마음에 드는듯 공연히 수선을 떨었다. 좌우간 이통에 서먹서먹하던 분위기는 꽤 노긋노긋해졌다.

《여긴 왜 왔대구?》

최창보의 목소리는 여전히 텅텅스러웠다.

《예, 여기 처너지사가 대형집배를 설계했다는 소문이 온 건설장에 짜하길래 좀 구경하려고 왔답니다.》

《음, 그렇게 된 일이었군.》

최창보는 자기의 지나친 억측이 어이없어 버럭 웃었다. 어쨌든 수옥이의 설계가 온 건설장에 소문을 냈다니 아주 흐뭇해졌다.

《그럼 손님인셈이군. 어서 배에 올라오게. 난 선장일세.》

연공청년을 모시다싶이 갑판에 청해들인 최창보는 착실히 담배까지 권했다. 이거야말로 쉽지 않은 일이어서 갑판장은 입을 딱 벌렸다.

《태우게.》

《전 피우지 않습니다.》

《거참 좋은 습관이네. 그래 설계를 구경했나?》

최창보는 궁금하던 차라 아닌보살하고 물었다.
연공청년은 대수롭지 않은듯 대꾸하였다.

《예, 소문난 잔치가 뭐 어떻다더니 정작 와보니
설계가 설었더군요.》

흠족한 웃음발이 감돌던 최창보의 얼굴이 금시
돌덩이처럼 굳어졌다.

《설다니? 그게 무슨 소린가?》

《역시 처녀가 돼서 그런지 속이 쪼물쭈하더라
말입니다. 변압기를 통채로 싣고가기 무서워서 뭐
기름을 뽑아 무게를 감소시킨다나요. 그런 요술을
피울것 같으면 우리가 벌써 저 변압기들을 다 날라
간지도 오렷을겁니다.》

최창보는 듣기에 거부살스러워서 헛기침을
했다. 갑판장이 암시를 주는것 같은데도 눈치
무딘 연공청년은 계속 희떠운 소리를 늘어놓았다.

《그래서 내가 <기사동무, 80년대 청년지식인
답게 통이 크게 생각하고 짐배의 적재량을 대폭
늘이시오.> 하고 말했더니 그 동문 발끈해서
<짐배는 얼마든지 크게 설계할수 있으나
끌고갈 일이 난감해서 그래요.> 하고 변명을
하더군요. 원참.》

입을 껌뻑 다시던 연공청년은 정색해서 물었다.

《그래 선장아바이 생각엔 어떻습니까. 그까
짓 백오십톤짜리 짐배를 못 끌고갈리 없겠지요.》

이게 웬 싱겁둥이가 나타났는지 모르겠다.
최창보는 껌 고향을 지르고싶었다. 그러나 차마
그럴수는 없는것이어서 후들후들 떨리는 손으로
고볼통을 꺼내물며 상대방을 흘려보았다.

재미가 여간아니라는듯 새물새물 웃고있던
갑판장이 슬쩍 귀땀을 했다.

《저 친구에게 태끼바위전설이나 들려주세요.
정신을 버쩍 차리게스리.》

최창보는 고개를 끄덕이었다.

《참, 자네 이리로 올 때 차를 타고 왔나, 배를
타고 왔나?》

연공청년은 어리둥절해지며 배를 타고왔다고
대답했다.

《거 마침일세. 그럼 오는길에 저아래 합수목에
서있는 유별난 바위를 봤을테지?》

《예.》

《그 바위를 왜 태끼바위라고 부르는지
아는가?》

《글쎄요. 내 보기엔 네모난 통처럼 생긴게
토끼와는 비슷하지도 않더군요.》

《토끼가 아니라 태끼처럼 생겼지. 여기서
가마를 가리켜 그렇게 부른다네.》

《하필이면 밥가마를 왜 태끼라고 부릅니까?》

우정 그러는지 동문서답격이다. 갑판장이
킁 웃었다. 최창보는 짜증이 났다.

《아니, 자넨 새각시가 시집갈 때 타고가는
가마도 모르는가?》

《예, 그런걸 난 또...》

고담을 늘어놓을 흥취는 벌써 깨어졌으나
그만 두기도 무었해서 최창보는 서둘러 본론에
들어갔다.

《옛날옛적에 있는 일이네. 어느날
위원서 사는 총각이 만포에 와서 색시를
얻어가지고 떠났는데 길이 너무 험해서
가다가다 더는 못가고 합수목에 있는
그 벼랑우에 가마를 내려놨다네.》

마침 강으로 쪽배가 지나가길래
사정을 해서 색시를 옮겨태웠지. 그런데
배길은 또 어찌나 사납던지 당장
배가 뒤집혔다네.》

최창보는 말을 멈추고 상대방의
동정을 살폈다. 청년은 흥미진진해서
채촉을 했다.

《물에 빠진 색시가 <엄마! 엄마!> 하고
애들처럼 비명을 질렀지. 신랑은
죽기내기로 헤엄을 쳐서 색시를
겨우 구원해냈네.》

산길로도 갈수 없고 물길로도 갈수
없어 그들은 그대로 강기슭에
물러앉아 살림을 시작했더군.
합수목마을이 바로 그때 생겨난
거라네.》

문득 세월이 뒤돌음친듯 주위가
고요해졌다. 신비롭게 들려오는
압록강의 물결소리는 그 이야기가
한갓 전설만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는듯싶었다.

호기심이 어렸던 연공청년의
얼굴은 점차 심각해졌다. 최창보는
넌지시 물었다.

《그래 감상이 어떤가?》

청년은 단호하게 언명했다.

《우린 옛사람들처럼 중도에서
물러앉을수 없습니다. 대형변압기
를 통채로 싣고 기어이 언제를
찾아가야 합니다.》

최창보는 미간을 찡그렸다.

《자네 남 걱정은 그만하고 제
코나 씻게.》

《무슨 말씀인지.》

《배길로 나르는게 그렇게두
마음에 안들면 어서 변압기를
산길로 끌고가란말이네.》

《그건 저...》

청년은 저으기 난처한듯
우물쭈물 대답을 못했다.

《흥, 정작 그렇게 하기는
힘들단말이지. 어서 배에서
내리게. 난 자네같은 말공부쟁이는
질색이네!》

청년은 멍그레 웃으며 비위를
부렸다.

《선장아바이, 이왕 배에
탄김에 발전소건설장까지
갑시다.》

땀다니 깨고하자는 격이다. 최창보는
입이 쓰거웠다.

《그럼 세멘트를 실은 맨
꼬리짐배에나 타게. 어서!》

최창보가 조타실에
헛 들어가자 갑판장은
청년을 나무랐다.

《논치두 없수다레. 우리
선장은 수옥기사의
아버지란말이에요.》

《나두 다 알고있었네. 친구.》

청년은 갑판장의 오탁코를 꼭 눌러주더니 벌썬 벌썬 웃으며 배에서 내렸다.

최창보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종시 마음이 놓이지 않아 설계실에 들렀다. 수옥은 설계도면을 마주한채 그 무슨 생각에 골똘히 잠겨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대답이 없었다.

《그 싱거운 녀석이 장가를 들겠더냐?》

최창보는 딸의 마음을 능쳐주려고 우정 우스개소리를 했다. 아닐세라 수옥은 나무라는 눈길로 할 것 쳐다보았다.

《안요. 글썬 짐배설계를 좀 보여달라고 하더니 무턱대고 짐배의 적재량을 대폭 늘이라더군요. 변압기의 기름을 뽑는건 이 설계의 치명적인 약점이래요.》

최창보는 허구쁜 미소를 지었다.

《그런 싱거운 소리는 듣지두 말아. 핑계핑계 체네선이나 보러 다니는 녀석이 분명한가부다.》

수옥은 뭔가 석연치 않은듯 눈시울을 좁히더니 고개를 가로저었다.

《글썬... 그런 사람같지도 않아요. 최종협의회에서 자기네한테 밀려나고싶지 않으면 준비를 단단히 하라고 오금까지 박던데요.》

《거참 모를 일이다...》

최창보는 은연중 마음 한구석이 불안스러워졌다.

며칠후.

현장지휘부에서는 건설사업소와 해운사업소의 관계자들이 다 참가한 가운데 최종협의회가 열렸다.

맨 앞줄에 앉은 수옥은 긴장한 눈빛으로 도면 한귀퉁이를 조심스레 들여다보고있었다. 연공들속에 있던 맹재길은 구면친구라도 되는듯 수옥에게 꿈뻑 눈인사를 하며 싱글거렸다. 최창보는 자꾸만 그쪽에 마음이 쏠려져 안절부절을 못했다. 언제 나타났는지 연공반장이 그의 옆구리를 건드렸다.

《너무 걱정마시우. 우린 양보하기루 했수다.》

최창보는 선뜻 믿어지지 않았다.

《아니, 그게 사실인가?》

《글썬 재길동무가 따님의 설계를 보고와서 두손을 들더군요. 아무래도 배길수송이 더 좋다는거지요. 거 설계도 설계지마는 처너지사한테 반한 모양입니다.》

《허, 무슨 소릴 하누.》

《왜요. 그 아버지애 그 아들이라고 맹동문 쉽지 않은 총각이웨다. 단단히 붙잡으슈.》

최창보는 은근히 호기심도 없지 않았던지라 번지지 물었다.

《아버지가 누구요?》

《운봉언제를 쌍을 때 내가 그 사람한테서 연공일을 배웠수다. 거 소문났던 수리개반장이 생각나지 않소?》

《글썬... 거 로력영웅이 댔다던 연공반장말인가?》

《예.》

회의가 시작되는통에 그들은 얼른 입을 다물었다. 도수높은 안경을 낀 건설사업소 기사장이 일어났다.

《연공반에서는 룽상수송방안을 보류해달라고 제기해왔습니다. 때문에 오늘 협의회에서는 해운사업소 공정기사동무의 짐배수송안을 기본문제로 토의하려고 합니다.》

긴장했던 장내에 가벼운 탄성이 일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체육경기의 결승전과도 같은 치열한 논쟁을 예견하고있었던지라 그럴만도 했다.

수옥은 선망의 눈길들에 떠받들려 연단에 나섰다. 설계도면을 걸어놓은 그는 침착하게 설명을 해나갔다.

《보시다싶이 이 짐배로는 70 톤짜리 발전기회전자와 30 톤짜리 고정자를 동시에 실어나를수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고정장치를 갑판상에 설치할것을 예견했습니다.》

처너지사다운 섬세성과 정확성이 도면의 요소마다 숨배여있었다.

연공들쪽에서 누군가 성급히 물었다.

《대형 변압기는 어떻게 나르자는겁니까?》

수옥은 그런 질문이 나올줄 알았다는듯 흔연히 대답했다.

《변압기는 기름을 뽑아 무게를 감소시키면 능히 이 짐배에 실을수 있습니다.》

문득 편찮은 기침소리가 울렸다. 수옥의 목소리는 그 기침소리에 위축된듯 가늘게 떨렸다.

《저... 될수록이면 변압기를 그대로 나를수 있게 짐배의 적재량을 늘이라는 권고도 받았습니다는마는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것이여서 이 설계대로...》

누군가 다급히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최창보는 그가 보나마나 맹재길임을 대뜸 알아차렸다. 내심 우려하던 그 일이 벌어지고야만것이였다.

《섭섭합니다. 우린 기사동무가 미흡한 저 설계를 그대로 최종협의회에 내놓을줄은 몰랐습니다. 어쩌면 이럴수 있습니까?》

수옥은 야속함이 진하게 비친 깔꼼한 눈초리로 맹재길을 마주볼뿐 선뜻 대답을 못했다.

밤잠도 제대로 못자며 애를 태우던 딸의 모습이 애처롭게 눈앞에 밝혀오는통에 최창보는 움쭉 일어섰다. 현대 정작 일어서고보니 누구를 역성드는것만 같아 저으기 먼구스러웠다.

《에, 난 그저 그 짐배를 끌고가야 할 선장으로서 한마디 하자는거우다.》

최창보는 맹재길은 안중에도 없다는듯 모두걸이로 말을 이었다.

《함수목아래서는 작은 짐배들도 자주 걸려서 애를 먹는단말이웨다. 그런데 변압기를 통채로 싣고

가는 모험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누가 책임지겠냐 말이요. 예?》

맹재길은 말마디마다 힘을 주며 대답했다.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젊은 연공의 객기에 최창보는 화가 났다.

《자네가 배길을 알면 얼마나 알아? 엄마여울에 발목도 적셔보지 못한 주제에 큰소리는 쟁장...》

맹재길은 말문이 막힌듯 갑자르기만 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듯 수옥은 황황히 자신을 수습하며 말했다.

《저... 변압기기름을 뽑았다가 넣을 때 오염될걸 우려하는것 같은데 그건 다시 러과해넣으면 될겁니다.》

수옥의 목소리는 확신을 담아 차츰 자신만만하게 울렸다.

《발전소조업기일을 눈앞에 두고 이런 사소한 문제때문에 주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 설계대로 곧 배무이에...》

《안됩니다!》

맹재길은 잡아떼듯이 웨쳤다.

《기사동문 우리가 저 언제를 어떤 심정으로 쌓아올렸는지 알기나 합니까?》

무슨 반박을 할듯하던 수옥은 청년이 가리킨쪽으로 피뚝 고개를 돌렸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창밖으로 집중되었다.

시대의 기념비런듯 하늘을 찌르며 거창하게 일떠선 연제가 확 안겨왔다. 그 콘크리트구조물은 이 순간 이름할수 없는 숭엄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우린 공사기일이 급하지만 강물이 조금만 흐려져도 혼합물에 티가 섞일가봐 언제타입을 중지하군했단말입니다. 그런데 변압기기름을 오염시키질수도 있다는게 어디 말이 되는가말이요!》

이 불같은 추궁에 수옥은 얼굴만 창백해졌다. 설계도면으로 얼굴을 감싸진 수옥은 비칠거리며 연단에서 물러섰다. 결국 최종협의회는 중단되고말았다.

그날밤 수옥은 번민에 몸부림쳤다. 구겨진 도면은 눈물로 얼룩졌다.

최창보는 속이 언짢았다. 그는 실망하고 위축된 딸의 정상이 가궁하여 위로해주려고 애썼다.

《너무 걱정말아. 그까짓 배길내속도 모르는 녀석이 혈기에 한마디 한걸 가지고 뭘 그러느냐?》

뜻밖에도 수옥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안예요. 그 동문 옳은 말을 했어요. 그런 진실한 인간을 오해한다는건 정말이지 죄악일거예요.》

《뭐라구?!》

수옥의 눈에서는 불현듯 맑은 이슬이 핑글 돌았다. 그것은 자책의 눈물이면서도 한편 기쁨에 들뜬

듯한 그런 눈물이였다. 그래서인지 이 순간 딸은 단비를 맞은 뒤 꽃송이처럼 더욱 청신하고 아름다와 보였다.

수옥은 놀랍게도 최창보로서는 결코 이해할수 없는 그런 흥분에 잠겨있었다. 이것이 최창보에게는 다소 경망스런것으로 여겨졌다.

《잘한다. 그러니 이제와서 배길수송을 아예 건너치우자는거냐? 하긴 그 웅변가녀석의 말이 옳다면 어서 변압기들을 산길로 날라가라고 해라.》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반년동안이나 도로가 차단된대요.》

최창보는 어마지두 놀랐다. 도로가 차단되면 발전소건설에 필요한 수많은 물동이 전적으로 배길에만 의존하게 되는것이다. 결국 해운사업소는 지금의 두배이상으로 선단을 늘여야 하는데 갑자기 수십척의 끝배와 짐배들을 어디서 가져온단말인가. 이런 형편에서 배길수송밖에 다른 길이란 있을수 없었다.

《가만. 그래서 며칠전 그 사람이 너를 찾아왔됐단말이나?》

《예, 나도 오늘에야 그걸 알게 됐어요.》

수옥은 맹재길의 사심없는 그 행동에 몹시 감동된 모양이였다. 하지만 최창보는 그제 도리어 미심쩍었다. 그렇게 남을 생각해주는 어진 청년이 무슨 심사로 최종협의회때는 말쑥하게 굴었는지 모를 일이다.

딸의 태도를 보니 정끝에 노염나고 노염끝에 정난다고 변압기운반문제로 서로 티각태각하더니 이 들사이에 사랑이라도 읊든 모양이였다. 배길수송을 하자면서도 변압기기름문제를 코에 거는것은 결국 그만두자는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이런 뜨뜨미지근한 태도가 최창보는 기질상 질색이였다.

하필이면 이런 사람에게 갈대처럼 휘여들건 뭐란말인가.

《그런데 짐배의 적재량을 더 늘일 방도는 찾을수 없으니 어쩌면 좋아요?》

딸은 애원하듯 안타까이 말했다. 최창보는 무거운 한숨만 내쉬었다.

《글쎄. 배길이 워낙 그렇게 생겨먹은걸 어찌겠냐? 좀 두고보려무나. 다른 뾰족한 수가 없는 이상 아무래도 그 짐배를 만들자고 할게다. 그러니...》

수옥은 전류에 감전된듯 소스라쳤다.

《안돼요. 이대로는 안돼요. 배길조사를 다시 해야겠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가능성을 찾고야말겠어요.》

최창보는 딸의 눈빛이 이악스레 반짝이는것을 분명 보았다.

X X

갑자기 배밑창에서 충격이 느껴지더니 발동소리가 불안스러워졌다.

생각에 흠뻑이던 최창보는 와들 놀라며 일어섰다. 부리나케 타를 돌렸으나 《혁신호》는 강바닥에 뿌리를 내린듯 움직이지 못했다.

배길에서 약간 벗어졌는데 이모양이다.

《갑판장, 더 힘껏 밀게! 어서!》

삿대에 매달려 안간힘을 쓰던 갑판장이 볼부는 소리를 질렀다.

《아무리 밀어도 소용이 없어요!》

《혁신호》는 발동소리를 더 요란스레 울리며 용을 썼다. 그러나 막무가내였다.

《쳇, 이런 험한 배길로 변압기를 통채로 나르나구? 그 친구가 정신나갔지.》

갑판장은 짜증이 나는지 연신 두덜거렸다. 최창보는 미간을 찌프릴뿐 탓하지 않았다. 퍼그나 오래 동안 씨름질을 해서야 겨우 배를 끌어냈다.

운봉언제의 취수구를 달은지도 오랫동안 벌써 물이 퍼그나 줄었다. 선단은 지친듯이 강기슭에 닿을 내렸다.

저 멀리 태끼바위우에서 마지막 불꽃인양 반짝거리던 해님은 장미빛 노을을 확 뽐겨놓고 물에 잠기듯 사라졌다.

짜아세운듯한 벼랑우에 기묘하게 올라앉은 태끼바위는 노을에 휘감겨 꽃가마처럼 아름다웠다. 금강산이나 묘향산이 보았다면 제 살점이라고 우겨댈만도 할것 같은 신비스런 바위였다. 그 바위뒤쪽에서 장자강이 흘러들어 압록강에 합류한다. 합수목에 있는 엄마여울은 알고 물살이 세기로 유명했다.

저물기전에 태끼바위를 지나 합수목마을앞에서 머무르려고 했었는데 인젠 다 틀려먹은셈이다. 최창보는 속이 언짢아 저녁밥대신에 땡수 한사발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그사이 어둠이 깃들었다.

강변에 웅크리고 돌러선 산봉우리들은 급기야 거무칙칙하게 변했다. 강물은 버럭 겁에 질린듯 수십어린 소리를 지르며 어둠속에서 몸부림쳤다.

어쩐지 답답하고 쓸쓸했다. 강물소리도 서글픈저 강가에서 홀로 헤매이고있을 딸의 모습이 애처로웠다. 무엇때문에 되지도 않을 일에 그 고생을 하는것인지...

문득 합수목쪽에 불빛이 나타났다.

불빛은 짓누르는 어둠과 정적에 도전하듯 기세 좋게 반짝거렸다.

배머리에 우두커니 앉아있던 최창보는 얼른 일어섰다. 그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부랴부랴 간데라를 들고나섰다.

허둥지둥 태끼바위를 돌아서니 불빛은 더 밝게 안겨왔다. 그것은 밤고기군들의 초라한 간데라불이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이었다.

회곳거리는 화광속에 웬 처녀의 모습이 황홀하게 보였다. 봄외투자락을 나뭇기며 압록강을 향하여 누구인가를 안타까이 부르짖고있는 그 처녀인즉 틀림없는 자기 딸 수옥이었다.

최창보는 무릎 멈춰서며 귀를 기울이었다. 여울물소리에 뒤섞여 발동소리같은것이 어렴풋이 들려왔다.

《재길동무! -》

최창보는 흠칫 놀랐다. 이 장소에 맹재길이가 있다는것은 천만뜻밖이었다.

연공청년을 부르는 수옥의 목소리만 안타까이 울려갈뿐 대답은 없었다. 그대신 기관총소리를 편상케 하는 그 발동소리는 더 높이 울렸다.

《어서 나오세요! 물고기들이 다 익었어요. 얼마나 맛있게 구워졌는지 몰라요.》

그제서야 귀에 익은 연공청년의 절절한 목청이 강 한복판에서 울렸다.

《조금만 기다리요!》

《아이참, 그러다 감기드시겠어요!》

자못 정다운 목소리였다. 어딘가 주부다운 나무람과 응석조차 깃들어있는듯한 그리도 따끈한 정이 어린 딸의 목소리였다.

《괜찮소. 내 이래봬두 군대뎌 겨우에 땡수옥을 하던 사람이요! 그러니 너무 걱정마요!》

두 젊은이는 이처럼 목청껏 웨치며 화합하는것이 그리도 즐거운듯 겨금내기로 계속 소리를 쳤다. 타오르는 모닥불도 흘러내리는 강물도 이들때문에 절로 신명이 난듯싶었다.

사랑의 노래인양 즐겁게 울려퍼지는 그 목소리들에 귀를 기울이니 최창보는 불현듯 자신이 측은하게 여겨졌다. 뭔가 벅차고 소용돌이치는 그런 흐름에서 밀려나 한적한 기슭에 홀로 나앉은것만 같았다. 저절로 손맥이 풀리더니 간데라가 툭툭 떨어졌다.

수옥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처음 한순간 무슨 불청객이라도 쳐다보는듯하더니 뒤늦게야 방긋 웃으며 달려왔다.

《아버지!》

《저기서 뭘하느냐? 오토바이가 빠졌니?》

《아버지, 우린 배길을 열고있어요.》

그제서야 최창보는 기관식 착암기의 독특한 음향을 가려들을수 있었다. 그러니 발파를 하려는 모양이었다. 철없는 애들도 아닌데 이런 엉뚱한 놀음을 벌리는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아니, 발파나 한두방 터친다고 배길이 흰히 열릴상싶으냐. 연공녀석더러 이 놀음을 당장 견어치우라고 해라.》

《아버지두 참, 그 동물 모욕하지 마세요.》

《기사라는게 주대두 없이 쯤쯤...》

때마침 발동소리가 멎더니 맹재길이 물결을 헤가르며 기슭으로 나왔다. 수옥은 얼른 그리로 달려갔다.

《휘발유가 떨어지는통에 마저 뚫지 못했소. 휘발유통을 가져오오.》

맹재길은 아직 최창보를 보지 못한 모양이었다.

《어서 불을 쪼이세요. 제가 마저 하겠어요.》

답차게 울리는 처녀의 말에 총각은 호탕하게 웃는다.

《왜 웃어요. 너자라고 숙보지 마세요.》

《숙보기때문이 아니라 동무 아버님이 들려준 엄마여울전설이 생각나서 그러오. 글썽 옛날에 시집을 가던...》

《동무두 참. 저기 아버님이 계세요.》

맹재길은 반가운듯 경충충 달려왔다.

불빛에 비쳐 거인처럼 돋보이는 그의 어깨우엔 중기관총같은 기관식 착암기가 메워져있었다.

《아니! 아버님이 여길 어떻게 오셨습니까?》

언젠 선장아바이라더니 벌써 반죽종게 아버님 이란다. 최창보는 어이없어 대답도 안했다. 맹재길은 기관식 착암기를 수옥에게 넘겨주더니 모닥불앞에 바짝 다가앉았다.

《자. 이걸 잡취보십시오.》

맹재길은 곁에 기름이 노리끼레 내배도록 구워진 종개를 권했다.

《난 싫네.》

《어서 드십시오. 이걸 수옥동무 솜씨입니다. 뭐 애명이 물오리였다면서요.》

맹재길은 한바탕 기운을 쓴 뒤라 식욕이 부쩍 당기는지 구운 물고기를 단번에 서너마리씩 와작 와작 씹어먹었다. 어찌두 맛나게 먹어대는지 결사 람조차 절로 군침이 돌 지경이었다.

《물오리고 수리개고간에 어느 세월에 여울바닥을 다 까낸다고 이 야단인가.》

최창보의 통명스런 목소리에 눈이 둥그레졌던 맹재길은 히죽이 웃었다.

《발파를 하는줄 아십니까? 우린 여울바닥에 땅크무한케도를 설치하는중입니다.》

최창보는 엉뚱한 대답에 어안이 빙빙해졌다. 맹재길은 최창보가 깔고앉은 빨대목을 손으로 가리켰다.

《배길 량옆에 착암기로 구멍을 뚫고서 이런 빨대목들을 침묵들처럼 주런이 박아놓자는겁니다. 그 다음...》

《가만!》

순간 최창보의 뇌리에는 뭔가 번뜩 스쳐지났다. 뒤이어 짜릿한 전율이 온몸에 줄달음쳤다. 그는 엉거주춤 일어섰다.

《그러니 대형 짐배가 그 빨대목들을 타고 미끄러져넘는단말이지? 음, 현대 그때 부하가 걸릴텐데 끝배가 꽤 끌어낼가?》

맹재길은 때없이 흥분한 최창보를 바라보며 버릇처럼 히죽이 웃었다.

《글썽 그 문제가 걸려서 안타깝다구 수옥동무 여기에 주저앉아 눈물을 짜고있더군요. 그래서 내가 그거야 강기슭에서 불도젤이 바줄로 좀 끌어주면 될것 같다고 했지요.》

열렸구나! 배길이 열렸어! 무릎을 탁 치며 환성을 올리려던 최창보는 멍적은 생각이 들어 그자리에 주저앉았다. 잠시 덤덤히 침묵이 흐른뒤 한결 풀이 죽은 목소리로 물었다.

《자네 우리 수옥이와 여기서 만나자고 약속을 했었나?》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돼서 자네도 여기에 나타나게 됐나?》

《비판을 받았으니 접수한거지요.》

능청스런 대답이었다.

《비판이라니?》

《최종협의회에서 엄마여울에 발도 잠귀보지 못한 녀석이 큰소리를 친다고 욕을 한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랬던가...》

한숨을 푹 내신 최창보는 나무라듯 중얼거렸다.

《원 사람두... 변압기기름을 뽑았다가 다시 넣을 때 오염이 되면 얼마나 되겠다고 또 효률이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지겠기에 이런 수고를 하는건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천성적인듯 익살스런 웃음이 흐르던 맹재길의 얼굴은 별안간 신중해졌다. 웅글은 그 목소리에서는 범접하기 어려운 기상조차 느껴졌다.

《만년대계의 창조물에 자그마한 흠집도 남겨서는 안됩니다. 지금 날로 규모가 방대해지고있는 우리의 자립경제는 한와트의 전력이라도 더 보내줄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습니다. 경제의 심장부와도 같은 발전소를 건설하는 우리들이 난관이 있다고 하여 에너지를 한다면 당이 제시한 천역키로와트시의 전력고지를 어떻게 점령할수 있겠습니까!》

이 절절한 목소리가 그대로 강한 전류인듯 최창보의 가슴속깊이로 찌르르 흘러들었다.

이때 갑자기 강 한복판에서 착암기소리가 울렸다. 맹렬히 울려퍼지는 그 소리에 놀란 맹재길은 텅기듯 일어섰다.

《아니, 저런 이악쟁이 봤나!》

맹재길은 급기야 물탕을 텅기며 달려들어갔다. 이끌리우듯 몇걸음 따라서던 최창보는 물살에 밀리워 어푸러질듯 멈춰섰다. 순간 일찌기 느껴본적이 없는 뼈아픈 자책이 정수리를 찡 울렸다.

으흐... 내가 어느새 이 지경이 됐단말인가. 티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만년대계의 창조물을 일떠세우려는 저 애들의 값높은 정신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다니 ...

잠시 멎었던 착암기소리가 기세충천하여 더 높이 울린다.

여울물소리를 단숨에 짓누르며 높이 울리는 저 동음소리야말로 피끓는 청춘들의 심장의 메아리였다. 하나의 맥박이라도 번영하는 조국에 아낌없이 보태여주려는 청춘들의 뜨거운 마음에 떠받들려 이 한밤 합수목에는 빛나는 년대의 새 전설이 아로새겨지고있었다.

문득 가슴이 쾅하니 열리는가싶더니 근래에 와서 있는지 없는지조차 감촉되지 않던 그 심장이 후두둑 뛴뛰었다.

(27 페이지에 계속)

생명선을 일떠세우는 건설자들속에서

순천땅!

오늘 이곳은 비날론련합기업소건설과 같은 대건설로 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우리가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장에서 현지 체험을 하면서 창작사업을 하고있는 조선문학창작사 평양시창작실 소설가 김형지동무를 찾아 련포벌에 이르렀을 때는 어둠이 깃든 저녁이었다.

수많은 용접불빛으로 하여 건설장은 환하여졌다. 무한대한 힘과 열정을 안고 뚫어번지는 건설장의 밤, 우리의 건설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바치는 무한한 충성심과 끝없는 열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들끓는 밤이다.

비날론구역에서 우리는 소설가와 만날수 있었다.

소설가는 이곳에서 장편소설 《건설자들》(가제)의 초고를 써놓았다고 한다.

우리와 만난 소설가는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의 규모에 대하여 공지에 넘쳐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비날론련합기업소건설이라고 할 때 석회석을 대주는 광산화장공사로부터 그 운반계통, 무연탄운반설비, 산소발생로, 카바이드생산공정, 메타놀과 비료생산, 여기에 필요한 전기를 대줄 발전소건설 그리고 염화비닐, 가성소다, 탄산소다 등의 생산을 위한 모든 건설이 다 포함되어있다는것이였다. 듣고보니 그것은 한개의 기업소라기보다도 완전한 공업지구의 건설이라는 인상이 안겨왔다.

《...그리고 굽고 가는 배관의 총 연장길이는 삼천리강산을 몇차례 돌만한 길이입니다. 어떻습니까. 건설규모를 대충 짐작할수 있겠습니까?》

소설가의 말을 통하여 우리는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규모의 방대성에 대하여 다시한번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우리는 소설가와 함께 건설장지휘부에 들어갔다.

지휘부는 이고장 사람들이 사슬재라고 부르는 나지막한 야산우에 자리잡고있는 2층집이다.

지휘부에서 우리는 김형지소설가와 긴 이야기를 하였다.

소설가는 우리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는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생명선이라고 말씀하시였다고 하였다.

순천땅에 일떠서는 종합적 대화학공업기지-그것은 정녕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키우신 설계가들에 의하여 설계되고 건설자들에 의하여 건설되고 있는것이다.

《생명선을 일떠세우는 건설자들속에서 생활하는 내가 작품에서 제기하려는것은 량심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건설자들앞에 제기된 방대한 과업은 그들에게 높은 자각과 성실성을 요구하고있습니다. 특히 기초를 파고 수많은 철기둥을 세우며 그것을 미장해버리는, 말하자면 그 진속이 남의 눈에 나타나지 않는 건설로동은 깨끗한 량심과 성실한 정신세계를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습니다.》

소설가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그가 독자들앞에 절박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각이한 사고방식과 일본새를 가진 건설자들을 형상하면서 참된 행복은 누리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와 땀으로 가꾸는데 있다는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회적 문제를 똑똑히 심어주지 못하는 약점을 나타낸다면 예술적 형상에서 일정한 수준을 보여준다 해도 그것은 독자들의 평가를 받지 못할것입니다.》

한동안 말이 없던 소설가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절실하고도 의의있는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서는 당정책에 민감하고 당정책을 깊이 연구하여 그것을 자기의 신념으로 창작의 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옹호관철하는 립장에서 창작의 붓을 들어야 할것입니다. 그래야 벽찬 현실속에서 우리 당이 요구하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옳게 포착할수 있고 생활을 일면적으로 피상적으로 보지 않고 그 본질을 반영할수 있을것입니다.》

패기와 열정에 넘쳐 탐구를 거듭하면서 새롭고 의의있는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밝혀내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벌리고있는 소설가의 말은 우리에게 공감을 주었다. 소설가의 말은 계속되었다.

...제아무리 기교가 높고 솜씨가 있다 해도 똑똑한 사회적 문제를 내세우지 못한다면 창작에서 실패를 면할수 없다.

당정책의 진수속에 담겨있는 시대의 지향을 한 가슴에 안고 그 실현을 위하여 불타는 열정과 고상한 정신을 지녀야만 사람들의 혁명교양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새롭고 본질적인 문제를 안고있는 종자를 발견할수 있을것이다...

우리는 소설가의 말을 긍정했다. 우리가 그에게 절실한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형상화하는가 하는것도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하자 그는 느슨한 미소를 머금으면서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문학이 내세우는 인간문제는 예술적 형상을 통해서만 사람들에게 새로운 감명을 줄수 있다.

작품이 제기한 문제가 독창적으로 깊이있게 형상될수록 그의 감화력은 크고 문학작품으로서의 가치와 품격이 높아질것이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형상에서 독창성을 보장하는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의 생활분야도 특색이 있고 작가가 제기하려는 의도도 새로운것만큼 인간들의 형상도 80 년대의 성격답게 그려야 새로운 경지를 열어놓을수 있을것이다. ...

패기와 열정에 넘쳐 독창적 탐구를 거듭하면서 새롭고 의의있는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밝혀내려고 애쓰는 소설가의 노력의 흔적을 우리는 그의 이야기에서 엿볼수 있었다.

우리는 그가 장편소설 집필에서 새로운 문제성을 제기하리라것을 믿어의심치 않았다.

본사기자

눈덮인 겨울밤에

김래경

조국을 방문한 동무를 찾아
호텔을 향해 달리는 발걸음이
뛰는듯 활기롭던 겨울밤

기척할새도 없이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반기며
와락 끌어안고 불을 비비며
너무 기뻐 마주보며 웃던 그 밤

조국의 벽찬 현실에 감탄한 환희
덧쌓인 회포도 나누기전에
친구는 떠듬거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더라

-3 년전에 자네 어머니가 세상떠났네
고향에서 보내온 편지와 사진일세

들었던 잔은 맥없이 떨어져 박산나고
담배는 소태처럼 쓰기만 해
나는 조용히 자리를 물러났어라
치밀어오르는 슬픔을 가가스로 참으며
천만가지 자랑을 가슴에 묻어둔채
호텔을 나서던 깊은 밤

정월보름이라 달은 밝은데
그날따라 맵짠 추위도
이 가슴 식혀주지 못했어라
어머니를 그리며 부르며
넋잃은듯 거닐고 거닐 때
사무치게 그림던 어머니 모습 .

5. 10 단선때
아버지와 누나를 잃고

원한에 사무친 가슴 달래며
이 아들을 기다리며 살아온 어머니

어머니를 남녘에 홀로 남겨둔채
이역땅에서 살아야 했던 쓰라린 마음
생사여부도 모른채
십여년을 조국의 품에 안겨
어머니를 그리며 살아야 했던 가슴저민 아픔

어머니를 만나면
해녀의 아들이 대학교원이 되고
처음 보는 여섯손자 큰절 올려
내 나라 우리 제도 자랑하리라던
수십년간 바라던 한가닥 소원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지다니

보물진 편지는 바람에 날리고
달빛만이 눈부시게 쏟아져내렸어라
달이 그 달이 가슴에 비수를 안겨주는듯
바람이 그 모진 바람이 분노의 숨결 더해주는듯
분렬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뼈에 사무친 원한을 풀자
벽차게 차오르던 가슴속의 분노

자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이 나라 어머니들을 대신하여
어머니를 애타게 기다리는
이 나라 아들들을 대신하여
뛰자 ! 달리자 ! 조국통일을 위하여 !
머리에 흰서리 정차게 날리며
복수의 걸음 다시금 내짚은
이어지고 이어지며 내 삶에 영원한
맹세의 밤이여!

인생에 대한 생각

김광진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을 두고 인생이라고 한다. 때문에 사회정치생활과 경제생활 그리고 문화정서생활, 가정생활... 인간의 일대기를 이루는 이 모든 생활을 통털어 인생의 의미안에 넣을수 있을것이다. 참으로 인생에 대한 논의처럼 폭이 넓고 다양하고 자주 되풀이되며 따라서 우리들에게 것처럼 익숙한 논의나 화제는 또 없을것이다. 사람들의 일상사와 관련된 려행길에서의 한담조차 인생에 대한 이야기와 분리할수 없다.

그러나 나의 경우에는 정작 《인생》이라는 두 글자를 정면에 바라보며 그 의미와 참된 인생에 대하여 정색하여 음미해보고 사색을 기울여본적은 별로 없다. 문학에 뜻을 둔 나로서는 이런 고백을 하기가 더욱 부끄럽지만... 주위에 신선하고 풍만한 공기가 넘쳐흐르면 그 공기의 존재에 대하여 잘 느끼지 못하며 늘 건강한 사람이 자기 심장의 박동에 대하여 주의를 덜 돌리는것과 같다고 할지... 하긴 이것 역시 구차한 자기 변명일것이다. 자기 삶이 행복하고 보람찰수록 그에 대하여 나는 깊이 생각해야 했다. ...

나는 얼마전에 자강도 전천으로 가는 열차안에서 어린 길동무들을 만나게 되었다. 전천녀자고등중학교의 학생들이었다. 그 처녀애들은 광복거리건설장을 찾아가서 춤과 노래로 건설자들을 고무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이 학교로 말하면 전국학생소년예술축전무대에서도 손꼽히는 자랑을 가지고있었다. 기특하고 재능있는 학생들이었다. 나의 감동은 결코 거기에만 있지 않았다. 차안의 길손들에게 광복거리건설장의 이야기를 신이 나서 들려주던 한 처녀애는 《야, 내가 10 년만 먼저 태어났더라면! ...》 하고 붉은넥타이를 매만지며 한숨까지 튕는 것이었다.

그 처녀애는 10 년만 먼저 태어났더라도 이 광복거리 건설장의 주인이 됐을것이 아닌가고 아쉬워하는 것이었다. 어서 빨리 철이 들고 어서 빨리 성장하여 거창한 대건설의 행군대렬에 뛰어들고싶은 처녀애의 안타까운 심정을 어찌 어린 마음이라고만 하겠는가. 인생의 커다란 문턱을 하루빨리 넘어서서 거창한 사회생활에 뛰어들었으면 하는 이런 심정은 우리 시대의 모든 청소년들의 심정 그대로일 것이다.

《저 애는 어른이 될 날을 손꼽아기다리는구려.》 하고 백발의 로인이 머리를 끄덕이며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한데 나는 서른이 지난 그 시절에는 저 애와 생각이 달랐수다. 철없는 어린애로 되돌아가고싶었었으니까요. 》

해방전에 그는 40 대의 로총각으로 압록강에서 떼몰이를 하였다고 한다. 칠성판을 등에 지고 짚오래기같은 목숨을 노호하는 강물에 띄우고 생사를 기약할길 없는 물길을 떠나던 그 시절, 그에게는 딸을 주겠다고 나서는 사람조차 없었다고 한다. 빈대피로 얼룩진 함바의 삿자리 한끝에 덩구는 작은 보통이 하나를 재산으로 여기고 사는 인생, 감독의 피문은 채찍에 떠밀려 노호하는 강물속에 수장된 남편을 찾아온 녀인의 곡성, 멀리 고향에서 부쳐온 한숨과 기원의 편지, 《왜 왔던고 왜 왔던고 울고 갈길을 왜 왔던고...》 탁배기 한사발을 앞에 놓고 자기 운명을 탄식하며 부르던 늙은령감의 구슬픈 노래소리...

생활의 중압에 눌리고 절망의 나락끝에 섰던 그는 세상물정을 모르고 인생의 고뇌를 다는 모르던 시절을, 철없던 그 시절을 못내 그리워했다고 한다. 떼몰이를 타고 수심가를 부르며 강물의 덧없는 흐름에 떠실려가면서도 강변에서 해바라기를 하며 물장구를 치는 벌거숭이 어린애들이 부러워 한숨을 지었다고 했다. 그는 한많은 세상을 저주하였고 기구한 인생을 슬퍼하였다. 아니, 그의 생활은 인생이라고 부를 가치도 없는 것이었다. 일제놈의 총칼과 자본의 중압에 눌린 망국노의 생활-그것이 정녕 인생이었던가! ...

《개, 돼지만도 못한 목숨이었지요. 숨을 쉰다고 해서 사람으로 살았다고 말할수도 없고 근근히 호구를 하고 연명해간다고 인생을 걸어왔다고 말할수도 없는지요.

나혼자만이 아니였수다. 과거 우리 백성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지요. ...》

로인의 말은 계속되었다.

그렇다. 어찌 로인만이랴.

해방전 나의 아버지의 경우를 놓고보아도 그것은 인간다운 생활이라 부를수 없는 것이었다. 나의 아버지는 강원도 통천의 어느 바다가에서 깨어진 쪽배에 몸을 싣고 험어빠진 그물을 취율리며 살아왔다. 역시 이 떼몰이군로인처럼 왜놈선주에게 떠

밀려 칠성관을 등에 지고 풍랑사나운 바다로 나가
지 않으면 안되었던것이 나의 아버지의 생활이었다.
죽지 못해 사는 여기에 무슨 인간다운 삶이 있었겠
는가.

그 로인의 말처럼 그것은 사람의 생활이 아니었
다.

숨을 쉬고 근근히 연명해가며 생을 부지하는데
그친다면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그나마 생계
도 부지 못하여 한많은 세상을 하직하는것이 레상
사였으니 그것은 정녕 들짐승보다 못한 삶이었다.

바로 그런 고통과 질곡에 헤매이던 우리 인민은
자주적 인간의 장엄한 위력과 삶을 노래하며 백두
에서 타오르는 주체의 봉화를 따라 일떠섰다.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자주적인 인간의 삶을 위하여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따라 사람들은 결연히 일떠섰다.

얼마나 많은 항일혁명투사들과 애국렬사들이
장군님을 따르는 항일무장투쟁의 위대한 성전에 떨
쳐나섰던가.

그 영광의 길우에는 아홉살난 어린 혁명가 금순
이도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슬하에서 자라난 금
순이었기에 철부지 나이였지만 조국광복의 위업에
한몸을 바칠수 있었으며 그의 생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진리를
새겨주었으며 수많은 금순이가 태어났던것이다

북으로 달리는 이 렬차칸에서 만난 처녀애의 모
습에서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렬차에서 내가 만난 전천의 이 처녀애는 물론
인생의 거창한 의미를 아직 다는 모를것이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원수님과 영광스러운 당중
앙을 따르는 우리 시대의 참된 인간들에게서 자기
의 미래의 모습을 보고있지 않는가. 하기에 어서 빨
리 자라서 그들처럼 사회주의대전선행군의 벽찬 투
쟁속에 뛰어들고싶어하는것이다.

하기에 나는 그 처녀애와 같은 청소년들이, 우
리의 새세대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참된
인생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있다고 웨치고
싶은것이다.

참된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을 빛내인다는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참된 삶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따라 자주
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서 참된 삶과 보람,
행복을 체험하는 우리 인민모두가 한결같이 이 물
음에 대답할수 있다. 인간의 참다운 삶에 대하여,
주체의 인생관에 대하여...

가사

병사의 꽃

최성일

축하의 꽃송이 가슴에 달고
병사의 얼굴에 웃음꽃 폈네
훈련의 땀방울 꽃잎에 슴배여
일당백 향기로 차랑 넘치네
아 병사의 꽃은
일당백 전사된 영예이라네

량불엔 소금꽃 눈가엔 서리꽃
병사는 웃으며 천리를 왔네
높은 산 깊은 강은 병사의 요람

싸움군 의지로 꽃을 피웠네
아 병사의 꽃은
조국의 수호자의 위훈이라네

오늘에 땀들인 병사의 꽃은
결전의 그날에 금별이 되리
훈련도 전투로 바치는 길에
우리 당 전사로 영광 빛나리
아 병사의 꽃은
우리 당 전사의 충성이라네

피흘린 땅에 자유는 오리

구희철

겨울 번개

분노의 함성
우뢰소리 되어
원한 서린 하늘을
흘린 피 갖지 않은 땅을 온통 흔든다

피타게 찾아
자주는
민주는
통일은 어디에 있느냐

움트던 민주화의 싹을
최루탄 연기로 질식시키고
파쇼의 군화로 짓밟아버린
군사장패가 살판치는 남녘땅

피발선 눈
불이 이는 눈을 보라
아직 눈썹인 계절인데
천만 번개되어 번뜩이지 않느냐

성난 우뢰소리
노한 번개
온 남녘땅이
먹장구름 뒤덮인 하늘로 되었으니

오, 우뢰소리는
사철 겨울인 이 남녘에 요란타
노호한 번개는
겨울에도 남녘 민중의 눈에 퍼렇게 비낀다

흰 돛

바다 아닌 땅우에
폭풍을 안고 떠간다
파쇼독재 규탄하는
프랑카드들 흰 돛이 되어서

피흘려야 찾는 자유
목숨 바쳐 찾는 민주
죽어서도 찾을 통일

항쟁의 바다에 뜬 흰 돛에 새기고

오, 투쟁의 폭풍뒤에 기어이 올
자유의 그 안식을 찾으며
피흘려 쓰러지고 목숨 잃고 죽어도
손, 손에 이어 이어 떠간다
그 흰 돛, 붉은 돛이 되도록...

봄이 왔다

고운 꽃망울
슛스러이 웃으며 고개드는
봄이 왔다

하얀 눈
말끔히 녹인 산과 들이
봄 마중하라누나

연두색 봄풀이
소담히 펼쳐지는 계절이
젊은이들을 들로 산으로 부르는데

봄 마중하며
꽃을 즐겨야 할
남녘땅 젊은이들 어디로 갔느냐

산에 이른 봄꽃 피고
강에 버들개지 눈떠도
깃뿔한 마음엔 봄빛이 못달아

이봄
온 남녘땅 청년학도들
항쟁의 거리 투쟁의 대오에
성난 사자같이 펼쳐나섰구나

세월따라
절기따라 찾아오는 봄이 아닌
자유의 봄, 민주의 봄을 위해

봄이 와도
압제의 겨울이 도사린
얼어붙은 동토대 남녘에

항쟁의 봄을 다시 부르며...

오, 결사의 폭풍속에 찾을 봄
통일의 그 봄 위해

불붙는 심장 해물로 추켜들고
질풍같이 나가는 그 길에
삶의 꽃 피어나는 새 봄은 오리

피어린 령전에

꽃이 많아도
붉은 이 꽃을 놓는다
항쟁의 그날에 피흘려 쓰러진
이름 모를 젊은이의 령전에

살아있다면
사랑하는 처녀에게
자기의 붉은 심장이라며
붉은 꽃송이 안길수도 있었으리

꽃이 많아도
불같이 타는 꽃 좋아했으리
살았으면 지금도
노호한 항쟁대오의 앞에 섰을

오, 다 옮겨주고 갔구나
이름모를 젊은 항쟁투사여
그 젊음, 그 희망
그 사랑, 그 소원도...

이름이 무엇인지
고향이 어디인지
알수 없어도 좋다
자유와 민주를 바래 한마음 되였기에

붉은 꽃
그래서 천만꽃중에서
살았으면 것처럼 사랑했을
이 붉은 꽃 령전에 놓으니
그대 죽지 않은 넋이 꽃속에 웃누나

그날이 있어

거칠것 하나 없는
저 하늘이 차라리 부러워
내 때로
계절새 바라보며 넋을 잃을 때 있다

하늘이 무심탄 말
뉘라서 세상에 먼저 했더냐
우리 민중이 바라는 통일의 길
한사코 가로막는 역적아 벼락맞아라

참말로
부러워 눈길 아득히 주면
어느덧 마음에도 날개는 돋쳐
꿈길에도 찾아가는 이복의 락원

계절조들아
이제 너희들 오히려 부러워하리
한계절 너희들 오가도
분렬의 장벽 무너뜨린 길우로
남북형제 오고 갈 그날이 있어...

남해가에 피는 꽃

파도소리 들으며 자라
해풍을 이겨내며 자라
너 그리도 억세더냐
남해가에 피는 만경화

꽃씨면 모조리 앗아가도...

독어린 눈들이 매는 되여도
만경화는 찾지 못하리
꽃이면 모조리 짓밟고

안되리
압제의 총칼 그 모두
꽃밭을 파제길 보습이 된대도
씨앗마다 꽃송이마다 통일념원이 맺혀
온 남녘겨레의 가슴속에 어김없이 붉게 피는것을

동향친구

박관범

지금 리상호의 집근처에는 흰 꽃이 활짝 핀 배나무 과원이 많다. 과수원 사이사이를 뚫고 가느다란 시내가 한줄기 댕기오리처럼 흐르고있다. 사람들이 이 강쪽에다가 배나무를 한줄로 죽 심어놓았는데 요즘 배나무꽃이 만발하였다. 참 볼만하다. 활짝 핀 꽃을 점도록 바라보고있으면 꽃잎들이 어떤 미인의 눈동자처럼 련상되어 마음이 절로 황홀해진다.

조선학교에서 오래 교편을 잡고있는 상호가 오늘은 일요일이어서 좀 늦은 조반을 마치고 한가스레 신문을 들추어보고있는데 전화소리가 울려왔다.

상호는 습관적으로 송수화기를 들었다.

《아, 영신씨. 아이고 참 오래간만일세. 네 네. 모두 잘 있소. 네 네 좋소 뭐 할말이? 좋구말구. 벚꽃도 피고 날씨도 좋구한데. 그러지 않아도 한번 찾아가려고 했는데. 별식은 없어도 벚나무밑에서 한잔 하세. 네 네 그럼 기다리겠소.》

동향친구 김영신한테서 오래간만에 전화가 왔다.

학교시절의 동창이기도 한 영신이라는 일년에 몇번씩은 만나곤하였었는데 제각기 바쁜 일에 몰리고 또 멀리 떨어져 살고있는 관계로 좀처럼 만나기가 힘들었다.

그와 만난것이 어제인것 같은데 어느덧 일년이란 세월이 흘러갔다.

상호는 친구의 의리로 보나 또 사업상의 의무에서 보나 이래서는 안된다고 자신을 타이르면서 그 오기를 기다리고있었다.

(할 말이 있다고? 그가 나한테 갑자기 할 말이란게 뭘가? 참 모를 일인데.) 상호의 머리에는 작년에 만났던 경식이라는 영신의 모습이 느닷없이 떠올랐다. ...

작년 3 월하순경이었다. 저녁밥을 먹고 텔레비존을 보고있는데 《따르릉따르릉》 전화종소리가 울리었다. 상호는 무심히 송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십시오. 아, 리선생이십니까? 전 경식입니다. 전화로 당돌한 질문입니다만 선생은 등산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 경식군인가? 뭐 등산? 등산이라야 힘든 산 같은데는 전혀 기본적이 없고 산채를 뜯으려 야산에는 더러 걸어들어간적이 있지. 건 왜?》

영신의 큰아들 경식으로부터 뜻밖의 전화였다.

《기》대학 정경학부를 졸업하게 되는 경식이가 이삼년전만 해도 상호를 《아저씨, 아저씨》 하고 불려왔는데 오늘은 선생이라고 불렀다.

상호는 조선학교에서 교편도 잡고있고 신문과 잡지같은데 글도 써서 발표하고있으니까 경식이가 자기를 보고 선생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했지만 그보다도 그 부름소리가 경식이자신이 당당한 대장부가 다 됐다는것을 표명하는것처럼 들렸던것이였다.

사실 경식이는 키가 흰칠하고 체중이 중량급은 실히 넘어보였다. 시원히 벗어진 이마밑에 또렷하게 붙은 두눈은 언제나 예지에 찬 광채로 빛나고 있었다. 보기에 믿음직한 장정이였다.

《저의 아버지와 한번 같이 산에 안내해드릴가 싶어서 그러합니다. 선생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해가지구 한번 댁에 찾아가 뵈겠습니다.》

상호가 그후 경식을 만나 계획을 확인한 결과 4 월중순에 《지씨부》에 가기로 결정을 보았다.

경식의 말에 의하면 자기는 학교등산부에 들어가서 자주 등산을 하고있는데 그의 부친 영신이가 운동부족으로 몸이 비대해져서 혈압이 자꾸만 높아지고있으므로 운동을 좀 시켜야 하겠다는것이였다. 그의 부친은 이따금 골프를 하고있지만 몸에 큰 도움이 못된다고 했다.

등산을 가는 첫날 셋은 아침 10 시경에 집을 떠나 《시라이와》를 향하여 산을 뚫아올랐다. 경식이 선두에 서고 상호가 가운데 끼이고 영신이가 맨 뒤를 따랐다.

경식은 말하자면 대학 등산부에 있으니까 일본의 험산준령을 거의 다 답사한 등산의 명수이다. 그에게는 이런 《지씨부》같은 산이야 자기 집 근처를 산책하는것과 별다름 없는 등산이였다.

경식은 일부러 발길을 천천히 쪼으면서 두발에 한번씩은 뒤를 돌아다보았다. 상호와 영신은 숨이 차서 10 메터를 채 못가서 좀 쉬어가자고 야단을 부렸다.

그러면 경식은 어이가 없다는듯이 입가에 쓴 웃음을 지으면서 한참씩 선채로 쉬군했다.

셋이 《시라이와》 산정에 가닿은것은 해질무렵이였다. 태양은 벌써 서산에 자취를 감추고 하늘은 온통 붉은 노을로 진하게 물들고있었다.

산정에서 불타는 저녁노을을 바라보는 경치는 참으로 웅장하고 황홀하였다.

《모두 이 맛에 등산을 하는가부지...》

영신이가 손수건으로 이마며 목이며 전신에 흘러내리는 땀을 닦으면서 멍하니 서서 멀리 서쪽하늘가를 바라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아버지, 땀 좀 흘리셨나요?》

《그래. 한 서너말은 잘 짜낸것 같다.》

《그래야 몸이 가벼워집니다. 하하.》

경식이가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만족한 웃음을 터뜨렸다.

《야, 가벼워지긴커녕 발이 무거워서 집에 돌아갈 걱정만 쌓인다.》

《허허... 걷지 못하면 경식군이 어련히 업어다드리지 않으려구. 무슨 걱정이 그렇게도 많은가.》

상호도 같이 따라웃었다.

《거리에 있으면 달리는 자동차밖에 눈에 띄지 않는데 산에 오르니 자연이 엄연하게 존재해있구만 그래.》

이번에는 상호가 어딘지 숙연한 어조로 어두워지는 산정에서 엉뚱한 말을 토했다.

《이사람, 무슨 말을 하는가. 그러면 자연이 어디 도망가겠나?》

《아니, 그런것이 아니구 내 말인즉 이 자연을 통해서 자기자신이 보인단말일세.》

《그게 무슨 말인데?》

《내 생각엔 그렇게. 이런 자연속에서 세속의 더러운 때를 한벌 말끔히 씻어버리구 깨끗한 자신의 립장에 돌아가서 다시 맑은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게 되면 좀 생소한 맛이 나지나 않을까 해서 하는 말일세.》

《리선생이 좋은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향간에서는 모든것이 리해타산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령 레를 들면 매달 며칠에는 수형을 떨구어야 한다든가 또는 회사의 수입이 부족하여 돈을 빌리려고 어떤 은행의 유력자를 만나 골프장에 간다든가. 지불금이 모자라 친구의 용통을 받아야 한다든가... 이런것들은 모두 자기자신과 서로의 신경을 마비시키고있지 않겠습니까?

잘 생각해보면 그것이 다 자기의 의사에서 움직이는것이 아니라 장사파 돈 때문에 뒤흔들리고있다는것입니다. 그런 생활이 사람에게 리로울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묵묵히 산속을 헤매며 다니면 자연에 대한다는것보다는 자기자신에 대한 대결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에는 자연을 극복하려는 사람이란것이 뚜렷이 존재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산에 오르는것을 자기자신을 찾는 길이라고도 생각하고있습니다. 그것은 고향을 되찾는 길에도 통하고있다고 느껴집니다....

《고향을 찾는 길이라?》

상호는 흐뭇한 얼굴로 경식을 바라보았다.

《네, 리선생 웃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등산을 좋아하여 산들을 좀 찾아다닙니다만은 일본에는 각처에 <고마야마>, <고마다께>라는 이름이 붙은 산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것은 옛날 우리 나라에서 일본에 이주해온 사람들이 높은 산에 오르면 자기가 살던 땅 <고마>가 보이는것 같다던가 혹은 자기가 살던 땅이 <고마>였기때문에 같은 이름을 붙인것이라고 짐작됩니다.》

그래서 고향이 그리울 때는 <고마야마>에 오른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을 하고있습니다....

경식의 말을 아주 흥미있게 듣고있던 상호는 《허허, 거 참 재미있는 말이구만. 고향을 보기 위해서 혹은 고향이 그리워서 산에 오른다. 또 그것이 자기자신을 찾는 길이라, 알만해. 아주 특출한 학설이 나왔구만. 경식이가 참 공부를 많이 하구있어. 오늘 등산은 이것만 해도 충분하구만그래. 하하.》

《리선생, 너무 비행기 태우지 마십시오. 저는 아버지의 시끄러울 정도의 권유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잃었던 자기 고향과 자기 나라 말을 되찾기 위해 고향에 가서 공부할 결심을 다졌던겁니다. 자기말을 되찾는다는것은 자기 정신을 되찾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음...》

상호가 신중한 낯색으로 경식을 쳐다보았다.

《리선생님, 그것이 저의 인간회복의 길이라고 확신하고있고 또 제가 좋아하는 등산과도 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리선생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식군다운 철학강의를 산정에서 들었구만. 빼앗겼던 정신을 찾기 위하여 자기 나라 말을 배운다는것은 참 훌륭한 철학이로구만. 그래야지. 자기 나라 말과 풍습을 배워야 해. 나는 경식군의 철학을 무조건 찬성하겠네. 오늘만이 아니구 앞으로 종종 등산에 불러주게나. 그런데...》

상호는 경식의 얼굴을 다정한 눈길로 바라보며 말끝을 흐리었다.

아버지가 《민단》이 아니면 경식이를 서울이 아니라 평양으로 보냈으면 하는 욕심이 상호의 가슴속에 무럭무럭 끓어올랐다.

《모두 철학가가 된것 같은데, 자 그런 얘기는 또 두고서 하기로 하고 배도 출출해오는데 어서 산막에 들어가서 저녁준비를 하자구.》

영신이가 먼저 산정의 바위등에서 내려섰다. 그들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산장으로 걸어갔다.

셋은 이날 《시라이와》 산막에서 하루를 묵었다.

여우 우는 소리가 멀리서 검은 장막의 고요를 뚫고 밤새도록 들려왔다.

셋은 이튿날 2,000 메터가까운 《구모도리》의 산정을 가볍게 정복하고 《우에노하라》 방면을 향하여 령마루를 타고 내려왔다.

이날 등산에서 상호는 경식이가 어른이 다 된것을 뚜렷이 엿볼수 있었고 또 그가 일본에서 자라났지만 옷사람을 존대할줄도 알고 자기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이 끔찍할뿐아니라 고향을 잊지 않고 빼앗겼던 자기 나라 말을 공부하겠다는 생각에 느낀 바가 있었다. …

전화를 받은 상호의 머리에는 작년에 등산을 했을 때의 경식이가 지금은 서울에 가서 공부를 잘하고있는가 어떤가도 알고싶었던것이다.

영신은 곧 차를 몰고 상호의 집으로 달려왔다.

1 년이란 짧은 기간이지만 갓 선이 되는 그의 머리에는 서리가 더해지고 늘어졌던 량분의 살이 쭉 빠져서 하관이 뾰족하게 드러났다.

불과 1 년도 못되는 동안에 사람이 이럴수가 있나?… 하고 상호는 내심 걱정을 하면서 《참 오래 간만인데 왜 이렇게 여위었나? 이것두 다 나이탓인가?》 하고 그의 손을 잡았다.

《뭐라고 할가 그저 일이 좀 생겨가지구… 건 차차 이야기 하기루 하고 그래 집안이 다들 무고한가?》

무슨 일이든 물이요 불이요 막 달려들군하던 그의 왕성한 혈기는 티끌만치도 찾아볼수가 없었다.

영신이는 기력이 강한테다가 사고력이 치밀하여 그가 손댄 상업상 거래도 모두 성공해서 남부럽지 않게 잘살고있다.

그에게 상업상 실패라는것이 있을수 없을것인데 도대체 전화로 말하던 그 걱정거리란게 무얼가… 하고 상호는 한가닥 의혹을 품지 않을수 없었다.

그는 속으로 머리를 기웃거렸다.

(영신이는 총련이나 《민단》이나 가리지 않고 사귀는 사람이니까 혹시 《안전기획부》 요원놈들과 같은 나쁜놈에게 걸려들지나 않았는가? 자기와 직접 무슨 관계가 있는것이나 아닐가.) 하고 상호의 의혹은 시간이 갈수록 파문처럼 퍼져갔다.

하긴 상호와 영신의 관계에는 조국이 분열된 첫날부터 이날이때까지 몇고비 우여곡절이 있었다.

학교 졸업을 앞둔 어느날이었다. 오래간만에 만난 둘은 도교교의 무사시노벌을 묵묵히 걷고있었다.

길옆에는 한뼘가량씩 푸르싱싱 자란 보리가 봄바람에 물결치고있었다.

둘은 학교를 졸업한후에 살아갈 길을 서로 모색하고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재일교포들에게 독립국가의 공민된 영예감과 크나큰 희망을 안겨주었으나 아직 동해바다의 물결은 거칠고 높았으며 또 너무나 넓었다.

분열된 조국을 두고 이국에서 사는 그들은 깊은 절망속에 잠겨 고뇌에 휩싸여있었다. 총련이 결성되기는 시간이 일렀고 귀국선도 아직은 뜨지 않았다.

일본에서 살자니 차별이 심하여 취직할곳이 없었고 고향에 돌아가자니 배길이가 막혀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자넨 졸업하면 어떻게 할것인가?》

영신이가 먼저 무거운 침묵을 깨뜨리었다.

《난 지금 조선학교에서 이야기가 좀 있기는 하지만 월급이란건 없구 부형들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밥을 얻어먹으면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네. 말하자면 봉사지. 그것도 될지 어쩔지… 그래 자넨?》

《칠혹야밤일세. 지금까지 해온 장사라도 해가면서 생각해봐야지. 그러다가 고향에라도…》

그는 학교에 다니면서 미군기지 주변에 가서 놈들의 담배와 술을 사다가 팔아서 학비를 충당하고있었다. 그래서 그를 만나면 모두 《장사군》이라고 부르고있었다.

《애써 전공한 공부를 살려야 할텐데 피차간에 참 딱하구만… 그러나 고향엔 못가지.》

《그게 무슨 소린가?》

영신이는 눈을 크게 부릅떴다.

《지금 남조선에는 6법에 무법을 합쳐서 7 법이란 말이 떠돌고있다네. 거기 가서 어떻게 살려구.》

《이런 제기, 자넨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가! 그래도 우리가 공부한걸 살리려면 고향밖에 더 갈곳이 어덴가. 나는 남이요 북이요 하고 갈라서 생각하는것이 딱 싫어졌네. 나는 장사가 바빠 공부를 못해서 어떻게 손을 잡았으면 좋을지 모르겠네만…》

《아니, 오해해선 안돼. 나는 남반부에 있는 고향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외세와 독재자를 반대하고있는걸세.》

《또 그 소리야. 난 그런덴 간섭하고싶지 않네. 제 살 도리나 생각해야지… 여하튼 고향에 가보아야 할게 아닌가… 도피해서는 안되네.》

《뭇이? 도피라고?》

상호의 심장은 놀뛰었다.

《도피가 아니고 뭔가?》

영신이도 목의 피대가 돌아섰다.

《현실을 똑똑히 보게. 지금 승냥이가 방안에까지 기여들어 늑은이, 아이 할것없이 물고 뜯고 하는 판에 무슨 엉뚱한 말을 하고있어. 우선 승냥이를 내 쫓아야 해.》

《승냥이 ? 그건 너무하지 않는가?》

《뭐 너무하다구? 참, 이제 알 때가 오겠지. 자네 자기가 태어난 고향만이 조국인것처럼 생각하고있는데 조국이란 뭔가? 이젠 정말 심사숙고할 문제이네... 자, 그럼 난 가네.》

상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투박투박 걸어갔다.

영신이도 그와 반대방향으로 켜 걸음을 옮기었다. 둘은 성난소처럼 씩씩거리면서 남북으로 헤어졌다.

그들이 다시 만나게 된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0년전이었다.

영신은 그간 많은 돈을 벌어서 땅을 사고 집을 짓게 되었다. 집을 짓는 상량식에 상호도 초청되어 갔다.

상량식은 저녁무렵에 시작되었다. 깎아놓았던 재목들을 일떠세워 서로 맞추고 잇대고 하면서 나무메로 똑딱거렸다.

상호는 한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대목들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서둘러서 하는 일을 보고만 있었다. 아찔하게 높은곳에 걸려있는 외나무재목을 날쌔게 건느는 도비들의 동작에는 놀래지 않을수 없었다. 집은 2 층집인데 간수가 많았고 재목들도 웅이가 없는 미끈한 전나무를 썼다. (영신이가 그간 돈을 많이 벌었는걸!) 상호는 혼자 감탄하였다. 상호는 그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무어주신 총련이 결성되면서 민족학교의 교원으로 일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재일동포들을 공화국두리에 굳게 단결시키자는 총련의 취지를 전적으로 지지찬동해나선 상호의 정치적 립장은 확고하였다.

그런 상호를 자기 집 상량식에 초대한 영신은 좋은 집을 짓게 된 자기를 힘껏 자랑하는것처럼 보이기도 하였고 또 정치적 립장을 가리지 않으려는 그의 민족적 량심인것처럼 보이기도 하였다.

재목을 가지런히 퍼놓은 우에 명석을 깔고 사방기둥에 술을 뿌려서 조선에서처럼 고수레를 하고 빙 둘러앉아 33, 77의 손벽을 치면서 상량식 연회가 시작되었다:

상호는 립시로 널판자를 편 우에 종이를 칸 식탁 한켠 구석에 앉아 잠자코 내놓는 술과 반찬을 먹었다.

대목들은 자기네끼리 동량을 둘러싸고 말을 주고받으면서 술자리를 흥겹게 하고있었다.

상량식을 축하하러 온 손님들은 술을 먹으면서도 힐끔힐끔 흰눈으로 상호를 결눈질하는것 같아 뭔가 앉아있기가 거북스러웠다. 주식을 간단히 마친 상호는 해가 기울어지면서부터 뺑기가 온몸에 스며들어 치가 떨리면서 감기라도 걸리지 않았는가 걱정이 되어 부랴부랴 자리를 일어서고말았다.

《자, 영신씨, 그럼 난 가겠네. 집이 다 되면 또 오겠네. 이렇게 덩실하게 집이 서니 참 기쁘구만. ...》

《왜 그렇게 빨리. 좀더 놀다가지 않고... 자리가 맞지 않나? 자네가 총련학교에서 일하고있다는것은 다 알고있지만 무엇인가 분위기가 잘 어울리지 않누만.》

《글쎄 자주 만나면 그렇지도 않을텐데...》

《접장질은 이제 그만하구 무슨 장사라도 하지. 그래야 서로 어울릴것 같구만.》

영신은 무엇을 생각했는지 상호의 비위에 거슬리는 말을 불쑥 꺼냈다.

그러지 않아도 몸이 오싹오싹하던 그는 무심결에 한 말인지는 모르지만 돈없는 자기를 모멸하는 말처럼 들려왔다. 상호는 순간 분기가 솟구쳤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가. 말을 삼가하게! 자, 그럼 난 가겠네.》

상호는 분을 삭일수 없었으나 이런 자리에서 성을 낼수도 없어 꼭 참고 집으로 돌아오고말았다.

그후로 상호는 영신이와 별로 오가는 일이 없었는데 한 5년전 설날아침에 영신이가 불쑥 상호를 찾아왔다.

상호는 그를 기쁜 낯으로 맞이하였다.

서로 설인사를 나누고 설음식을 같이 먹었다.

그는 술이 거나해지자 《이사람, 조선은행이 날 살려주었소. 글쎄 조선은행이 날 살려주었소.》하고 같은 말을 몇번이고 되뇌이였다. 수형의 지불이 하루만 더 늦었으면 손을 들만한 자기의 위기를 총련상공인의 주선으로 조선은행에서 융통을 받아 살아났다는것이다. 그리고 상호가 그 총련상공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잘 말해주어 고맙다고 손을 잡고 흔들었다.

상호도 참 일이 잘되었다고 같이 기뻐했다. 그는 상호에게까지 깊이 머리를 숙이면서 자기 집에 꼭 놀러와달라고 간청하였다. 이때로부터 그들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지난해 가을이었다.

상호는 불일이 생겨서 간다에 들렀다가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커피생각이 나서 《오까》라는 다방에 들어갔다. 여기로는 옛날부터 조선사람이 많이 드나들었다.

상호는 다방의 손님들을 아랑곳도 하지 않고 빈 자리를 찾고있는데 뒤에서 누가 양복저고리를 잡아당겼다.

《오, 난 또 누구라구. 영배아니야.》

《리형, 요즘 참 보기 드물군요. 자 여기 앉으시우.》

그는 연기가 자욱한 탁한 방에 앉아 상호를 쳐다보면서 자리를 권하였다.

상호는 뜻밖에도 영신의 동생 영배를 이 다방에서 만났다. 그와도 역시 정치적 립장은 달랐으나 동향의 정으로 더러 만나면 이야기를 나누곤하였다.

그도 영신이처럼 상업거래를 하여 한재산 만들고있었다. 그는 언제나 남조선 집권자들에 대하여서는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고있었다. 그런 점에서는 상호와 서로 어울리었다.

《참 오래간만인데, 누굴 기다리고있는게 아니요?》

상호는 그의 앞에 앉는것이 방해가 되지 않을가 싶어서 주저하고 서있었다.

《회사일로 방금 손님을 만나고 자리를 일어서려는 참이었는데요. 어서 앉으시우. 우리 집에 좀 놀러 오시지 않고, 하여튼 거기 앉으시지요. 이야기나 좀 합시다.》

상호는 그와 대하는것이 뭔가 서먹서먹한것 같았으나 영배의 다정한 말소리를 듣고 마음이 폭 놓이면서 요즘 영배가 남조선에 드나든다는 소문을 듣고있었기때문에 불현듯 그쪽 이야기를 좀 듣고싶은 충동을 느끼었다. 상호는 그의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요즈음 고향에 더러 갑니까?》

《웬걸요, 그 긴급조치가 뭔가 나온후로는 안갑니다. 그전에는 골프를 하러 자주 갔습시다만...》

《골프하러 거기까지 간단말입니까?》

상호는 눈이 둥그래서 그렇게 되물었다.

《왜요? 한시간이면 날아가는걸요. 저 서울 삼각산 밑에 굉장히 넓은 골프장이 생겼습시다. 일본고관들도 막 가고있는걸요.》

영배는 그리 놀랄것이 없다는듯이 태연스럽게 말을 하고있었다.

(자 이거 일본과 남조선괴뢰들과의 관계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단말인가.)

상호는 속으로 혼자 한탄하였다.

문밖의 도로를 자동차가 소음과 배기가스를 토하면서 물결치며 틀러갔다. 상호는 바깥을 멍하니 내다보면서 《건 그렇다 하구, 골프하러 간다면 긴급조치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상호는 머리를 기웃거리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

《아니지요. 그 골프장에두 일본에서 간 우리들의 말을 살그머니 엿듣고있거든요. 그래서 말 한마디 자유로 못합니다. 공연히 말 한마디 실수했다가는 그저 이거웨다.》

영배는 오른손으로 목베는 시늉을 해보인다. 그리고 금이를 내보이면서 쓴웃음을 짓는다.

《아니 그렇게 엄합니까?》

《리형, 말도 마시우. 내 친구가 저기 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선>이라는 말을 한마디 했다가 그만 찻혀들어가서 죽을 똥 싸고 뭉테기 돈쓰고 겨우 도망쳐오지 않았수. 괜히 그곳에 가서 함부로 탕탕 말하다간 큰일나지요. 그러니까 안가는것이 상수이지요.》

영배는 머리를 찢레찢레 흔들면서 죽어도 자기는 더는 남쪽에 안간다는 표정을 하였다.

《그래 잘 생각했구만. 까짓것들이 언제까지 그러나 보지. 또 한번 뒤집혀야 하겠구만. 영신형은 요즘 어떻게 하구있소?》

상호는 한오리 두오리 흰 머리칼이 보이기 시작한 영배의 머리에 시선을 돌리면서 잠간 사이를 두었다가 말을 이었다.

《글쎄말이요. 우리 형님두 내가 자꾸 그만두라고 하는데두 요즘 홀하면 저기 나가서 땅을 산다 집을 짓는다 하구있지 않소. 뭐 죽어도 자기 고향에 가서 죽어야 하지 않겠는가구 하면서. 것두 세월이 조금 안착이 되면 또 몰라두 제 생각 같아서는 그것이 모두 허사인것 같습니다.》

영배는 그의 형 영신이가 하고있는 고향갈 준비를 이렇게 비난하고있었다.

《그래두 사람이 나이들게 되면 자기 고향을 찾게 되는게 자연스럽지 않을까?》

상호자신은 갈 생각이 없으면서도 영신의 립장을 동정하고있었다. 상호는 그런 자기의 모순을 느끼면서 혼자 속으로 웃었다.

《글쎄 전 잘 모릅시다만 남조선도 언제까지 저 모양이겠소?》

저 리승만이 때처럼 또 모두 들구일어나는게 아닙니까? 저는 그때까지 기다리는것이 현명하다구 저의 형님께두 이야기합니다만 형님이 내 말을 들어주어야지요. 그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알게 되는게 아닙니까.》

영배의 말도 수궁할만하였다. 장사치는 언제나 눈치가 빠른법이다.

상호는 그저 머리를 끄덕끄덕하다가 화제를 바꾸고말았다. 상호는 다른 이야기를 좀 하다가 그와 헤어졌다.

상호는 풀이 죽은 영신을 이윽히 바라보면서 아무래도 이즈음 남쪽정세가 하 수상하고보니 아마

그곳에서 탈이 생긴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그의 입에서 말이 나오기전에는 무어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

하여튼 오늘은 날씨도 좋고 해서 영신이와 상호는 술 한병을 들고 강쪽으로 나갔다. 만발한 벚꽃밑에는 저마다 명석을 깔고 어느 정당, 사회단체며 회사패거리와 가족끼리 친구끼리 패를 무어 앉아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한참 유흥판이 벌어지고있었다.

상호와 영신이도 좀 한산한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자 한잔 함세.》

상호는 영신에게 술을 한잔 따랐다.

영신이와 상호와의 사이에는 사업거래는 물론 금전거래도 없었고 다만 있다고 하면 동향이라는 정이 있을뿐이었다. 때문에 두사람사이에는 눈곱만치도 흥정이란게 없었고 아무런 허식이 있을수 없었다.

이런 술이란 참 야산에 피는 꽃처럼 향기롭고 풀잎에 맺힌 이슬처럼 맑아서 시적인 흥취가 절로 났다.

둘은 고향간 친구들이며 십년가도 만날수 없는 친구들의 옛말이며 서로 들은 소식들을 주고받으면서 술을 마셨다.

《그래 김군, 나한테 이야기해야 할 걱정거리란게 무엇고?》

상호는 한잔술에 거나해졌으나 뭔가 마음 한구석이 초조해져서 끝내 이런 질문을 먼저 내놓고야 말았다.

《음...》

영신은 아주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묵묵히 안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인쇄된 종이 한장을 상호앞에 꺼내놓았다.

상호는 무심히 그 종이를 펴보았다.

《부당 체포 학생청년을 구원하는 재일 류학생회 성명서》라고 찍힌 큼직한 활자가 상호의 눈에 띄여들었다.

영신은 젊은 시절부터 무슨 정치모임이니 사회단체모임 같은데는 여간해서 얼굴을 잘 내놓지 않는 성미였다.

영신이와 이 빠라와는 필경 무슨 깊은 관계가 있을것이라는것을 상호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도대체 이게 뭔데 ?》

상호는 왕방울 같은 두눈을 크게 뜨고 영신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걸 읽어보면 알겠지만 내 큰 아들 경식이 공부하러 서울갔다가 그만 붙들려버렸는데... 저 망할 자식들이 하숙방에서 학원의 자치에 대해서 좀 토론한것을 무슨 밀정이 일본에서 들어왔다고 사건을 날조해가지고 잡아가두고서는 놓아주어야지. 참 세상에 이런 답답한 노릇이 어데 있겠나.》

영신은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쉬었다.

상호는 인쇄된 빠라를 한구절한구절 읽어내려갔다.

《...우리들은 고향에서 <안전기획부>에 련행되어 몸서리치는 고문의 체험으로부터 <학생침투간첩단사건>과 그 이후 비밀리에 체포구금된 학우들에게 들썩우려는 루명이 완전한 날조임을 여기에 증언한다.

...우리들은 허무감에 빠질것을 거부하고 조선사람으로서의 민족의 녀를 안고 류학할것을 결심하고 제고향에 왔던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이 순수한 심정은 <안전기획부>에 의하여 무참히 짓밟히고말았다.

...정의와 량심, 인권과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는 립장으로부터 옥중의 학우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힘껏 싸울것을 여기 결의한다....

빠라를 다 읽고난 상호는 자기도 모르게 부드득이를 갈았다.

직년봄에 같이 등산하던 경식의 모습이 그의 눈앞에 선히 떠올랐다.

아버지를 끔찍히도 위하던 경식이, 자기를 찾기 위하여 잃었던 자기 나라 말을 공부하러 서울로 간 경식이 지금 저 파쑈정권의 감옥에서 신음하고있다니...

《아니, 경식군이! 이거 큰일났구만그래. 아무런 죄도 없는 경식군을 그놈들이 잡아가두었다말인가?》

《그게 딱한 노릇이 아닌가. 무슨 죄라도 지었다면 또 몰라도 이건 생사람을 막 잡아다가 가두고 죽쳐대니 참 원통하고 분해서 가슴이 찢어질 지경이라니까.》

《저놈들이 미쳤소. 완전히 미쳤소. 놈들이 아마 자네 돈을 몽땅 빼앗아먹자는 수작이 아닌가?》

《저놈들이 경식이를 죽이지나 앓을가 겁이 나서
… 참 기가 막히지… 자네 도적놈묘에 술붓는다는
말을 아는가?》

《그런 말은 왜 또 새삼스레…》

《이사람, 내 말을 좀 들어보게. 선조의 분묘가
있는곳에 가서 내 뼈라도 묻을가싶어서 저기다 땅
을 한뼘 사서 집을 한채 짓지 않았겠나. 저 큰놈
이 기어코 일본에서 살겠다고 고집을 부리는것을
이리 멀리구 저리 달래서 서울구경을 몇번이고 시
켰지. 그래서 겨우 설득이 되었는데, 깨달은것이 있
었는데, 우리 나라 말을 공부하겠다고 해서 대학원
예비과엘 넣지 않았겠나. 이쪽에서 가는 학생들은
우리 말을 모르니까 한 이년동안은 말공부를 해가
지구서야 저쪽 학교 본과에 들어가게 되는 모양이
지. 그래 나두 이따금 저쪽에 나가서 아들놈 격려두
하구 저기서 살아갈 준비도 하면서 지내오고있는데
데 그것이 1년도 채 못가서 이 지경이 되었으니 이
결 어찌한단말인가.

내가 돈을 놈들에게 얼마나 많이 바친줄 아나.
그래가지구 나중에는 다들 껌히구 요모양 요꼴이
되고말았으니. 참 기가 맥히는 노릇이요. 이러나 저
러나 내 아들이라도 돌려보내주었으면 좋겠는데 이
건 머 거저 뜯어먹는놈만 많구 껌힌 사람은 놓아주
질 않으니 이결 어찌한단말인가. 결국은 내가 속았
고 나만 속박 녹아난 셈이지.

이 학생들의 <성명서>처럼 내 이제는 놈들과
싸워가지구 사생결단을 지어볼가 하는 생각이 드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도적놈 묘에다가 암만 술을 붓
고 지성을 들여봐야 타고난 본성이 도적놈들인데
될 말인가.

저놈들한테 내 아들을 껌히고있으니 참 내 립장
이 딱하기는 하지만 이제야 죽기내기를 해서라도
내 아들을 빼앗아오는길밖에 없지 않는가.

그래 자네 의견은 어떤가?》

영신의 말을 들은 상호의 머리에는 놈들에게 처
참한 고문을 당하는 경식의 시련의 모습이 떠오르
면서 치솟는 분격을 억제할수가 없었다.

《참 못된놈들이군! 그 순진한 학생들을 집아가
두고 고문을 하다니. 원 죽일놈들 같으니.

원래 그놈들이 총칼로 정권을 가로챈놈들이거
든. 자네 아예 그 도적놈들에게 술 사주지 말게. 이
<성명서>의 학생들처럼 이제부터는 놈들과 맞대고
싸워야 해. 저 도적놈들을 내쫓고 민주정권을 세워
야 경식이도 감옥에서 나올수 있고 자네도 고향에
가서 뼈를 묻을수 있단말일세. 자네가 몸상한 리유
를 이제야 잘 알겠네. 자 술이나 한잔 들고 용기를
좀 내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설
마 놈들에게 귀한 아들을 빼앗겨서야 될말인가.

나두 있는 힘을 다해서 도와줄테니 용기를 좀
내라구.》

《이거 참 고맙네. 고마워. 나도 이젠 내 힘껏 싸
울 각오가 되었네. 내가 자네 말을 처음부터 들었으
면 이렇게는 안되었는걸, 자네앞에 면목이 없구만.
앞으로는 명심하여 나의 잘못된 생각을 근본적으로
고치고 자네와 함께 손잡고 살아가고싶네. 잘 부탁
함세.》

영신의 말에는 진심으로 자기를 뉘우치는 회오
의 정이 담겨져있었다. 영신이도 이제야 앞이 보이
게 되었구나 하는 안도감이 상호의 마음을 든든하
게 하였다.

둘은 굳게 악수를 하였다.

때마침 세계 불어오는 봄바람에 벗꽃이 와솔와
슬 떨어졌다. 상호와 영신이는 자리를 차고 일어섰
다.

꽃놀이를 한 일주일후에 도교 요쁘야 《사학회
관》에서는 수천명 조선청년학생들이 모여서 남조
선집권자들의 파쑈만행을 규탄하는 결기모임이 성
대히 진행되었다.

대회장의 맨 앞자리에는 영신이가 붉은 글자로
《죄도 없이 체포된 류학생들을 당장 석방하라!》
고 쓴 어깨띠를 두르고 의연히 앉아있었다.

이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뒤바라지를 하기 위하
여 런던 밤잠도 못자고 동분서주한 상호는 오늘아
침 영신을 요쁘야역까지 바래주고 학교에 좀 늦게
출근하였다.

시대의 서정이 비낀 생명수

-시 《물이 일하러 간다》를 읽고-

김순림

시 《물이 일하러 간다》(황승명)는 깊은 정서와 독특한 시풍을 가지고 시대의 서정을 구현한 성과작이다.

시에 내용을 주는것은 시인 자신이 아니라 그 시대의 생활이다.

시인은 자기 시대의 생활이 속삭여주고 암시하는것을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감수하고 사색하면서 그것의 의미를 정서적으로 노래하며 시대의 서정을 구현한다.

따라서 시는 어느 부분보다도 민감하게 시대의 흐름과 분위기, 생활의 내용과 그 특징을 앞장서서 대변해나서며 시대의 메아리로 높이 울린다.

시 《물이 일하러 간다》는 당과 수령의 원대한 대자연개조 구상에 따라 변모하는 우리의 현실을 흐르는 물줄기를 통하여 서정적으로 훌륭히 노래하고있다.

천년을 만년을 흘러 놀고먹던 강이 물머리를 돌려 날새도 쉬여넘는 첩첩아호비령 백리굴을 꺾질러 일하러 가는 의의깊은 순간에 시인은 시대의 서정을 포착하였다.

...

천야만야 뛰어내려
날리는 물보라
타빈을 안고돌며
뿌리는 불보라
밝고밝은 이 강산이 더 밝아지는듯

개벽이로다
동창에서 솟는 해를 마중하고
충충 다락발을 적시며 흘러흘러
간석지 새땅에선 둥근달을 실자누나

...

여기에 바로 시대의 서정이 체현되어있다.

세월을 두고 덧없이 흐르던 대령강이 사회주의 이 강산의 생명수로 흐르며 일하러 가는 시적 화폭에서 시인은 시대의 모습을 보고 뜨겁게 노래하는 것이다.

자연개조, 사회개조, 인간개조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사회주의현실에서 흐르는 생명수는 그속에 시대의 숨결을 체현하고있다. 그것은 지난날 단순히 메달랐던 땅을 적시며 흐르던 그런 물이 아니라 전기를 일쿠고 《충충 다락발을 적시며 흘러흘러》《간석지 새땅》에 새삶을 마련해주는 젖줄기인것이다.

우리는 시에 넘쳐나는 이러한 정서적 화폭을 통하여 우리 당의 대자연개조의 구상에 따라 변모하며 통성변영하는 조국의 모습을 뜨겁게 감득하게 되며 시대의 서정을 느끼게 된다.

잠시 여기에서 1956년에 창작된 《평남판개시초》(리용악)를 되새겨보자.

시초에서는 절벽을 뚫고 암벽을 깨낸 십리굴에 도도히 흘러들어가는 강물소리를 천년을 메달랐던 광활한 벌이 몸부림치는 소리와 새날을 호흡하며 전변하는 소리로 노래하며 시드는 벼포기를 안고 가슴을 치며 울던 조상들의 이야기를 전설속의 이야기로 남기면서 열두삼천리에 강물을 끌어온다고 10년에 걸쳐 재산을 다 털어버치고 개펄에 코를 처박았다는 열두부자동쪽에 비양스러운 웃음을 보내기도 한다. 다른 한편 시초는 난생처음 벌판에 물을 맞이하는 농민들의 감격을 덕치마을 칠보령감의 모습을 통하여 소박하고 해학적인 필치로 밝혀낸다.

시초에서는 시대가 비낀 이러한 시적 화폭들을 통하여 당시의 시대의 서정을 뚜렷이 구현하고있다.

만일에 이 시에 노래된 열두부자이야기나 생명수를 맞는 감정세계를 오늘의 생명수를 맞는 감정세계로 대치한다면 그것은 오늘의 시대의 서정으로 느낄수가 없을것이다.

시 《물이 일하러 간다》는 우의 시와 같이 조국땅에 흐르는 동일한 대상, 생명수를 노래하고있지만 그것을 시대정신의 높이에서 시적으로 감수하고 시대의 서정을 체현시켰다.

시에 펼쳐진 타빈을 안고도는 물보라, 충충다락발, 간석지새땅 등의 시적 화폭들은 당과 수령의 령

도따라 대자연개조가 실현된 오늘의 시대에서만
볼수 있는 모습이다.

시 《물이 일하러 간다》는 이렇듯 같은 생명수
를 노래하면서도 시대의 숨결, 시대의 체취를 체현
시켜 시대의 서정을 뜨겁게 노래한것으로 감동이
있는 시이다.

시는 또한 시대의 서정을 흥겨운 민요가락에 태
워 흥취있게 노래하고있다.

이 시에서 노래의 대상은 흘러가는 물줄기이다.
시의 전반적 서정의 흐름은 대상의 특성에 맞게 흐
르는 물줄기처럼 흥겹고 능실댄다.

...

날새도 쉬어넘는 첩첩아호비령
걸어서 몇백리
넘어넘어 몇백리
백리를 꿰질러
어허, 일하러 간다

산에 산에 진달래
너도야 그 향기 실어보내거라
명문의 양물이쳐너
너도야 고운 꿈 실어보내거라

흐르는 물줄기를 타고 안겨오는 시대의 서정은
얼마나 건드려지면서도 흥에 겨운가.

우의 련들은 마치 풍년가의 멋들어진 장단을 자
아내기도 하고 양산도의 흥겨운 가락을 안겨주는듯
도 하다.

그리고 다음 련에서는 농악무의 구성진 가락에
저절로 끌려들어 독자들도 어깨춤이 들썩함을 느낀
다.

...

멋이로다
학두루미 앞세우고 달맞이봉 돌아서니
덧없이 흐르던 대령강이 얼싸안고
함께 가잔다 일하러 가잔다

...

시 《물이 일하러 간다》가 이처럼 시대의 서정
이 뜨겁게 굽이치면서도 흥겨운 민요가락에 태워
정서적으로 노래할수 있는것은 현실의 의의를 정서
적으로 파악했기때문이다.

이 시는 우리 당의 위대한 대자연개조의 구상이
실현되고있는 현실속에서 일하러 가는 물에서 시적
계기를 잡고 거기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를 정서적
으로 파악하고 노래하였다.

이것은 일부 대자연개조를 노래한 시들에서 대
자연개조의 거창한 규모와 의의만을 논리적으로 설
명하거나 도해하는데 그치고마는 현상이 있다는것
을 고려할 때 매우 시사적이다.

우리 시단은 이러한 시대의 서정이 뜨겁게 넘쳐
나는 서정시를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할것이다.